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KOICA ODA 교육원

KCOC

발간사

201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아젠다 2030 : 지속가능개발 목표 SDGs'는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leave no one behind) 가장 소외된 사람들부터 고려하는(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개발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SDGs의 이행을 위해 5대 브랜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한편,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지구촌 새마을운동사업입니다. 개도국 농촌인구 32억 명 중 25%인 8억 명이 빈곤인구로서 전세계 빈곤율 9.6%(201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로서 그 효과성이 입증된 새마을운동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요청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도국뿐만 아니라 OECD, UNDP, WFP 등 국제기구에서도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 KOICA는 공동연구나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은 경제발전의 성공사례요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사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의 열망도 크지만 선진국들도 한국을 개발원조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공동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가장 큰 성공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삶은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다(조지 버나드 쇼).'

지난 세대가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하기까지 위대한 여정을 걸어왔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 청년들은 국제개발협력의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밑바탕의 온 힘을 끌어 모아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KOICA가 함께할 것입니다.

금번 발간되는 이 교재를 통해 미래 세대 청년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도전적인 개발 이슈를 이해하고, 청년 스스로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교재 제작을 주관해 주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및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코이카 이사장

김 인 식

발간사

2016년은 지난 15년간 시행해 온 MDGs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며 새롭게 SDGs로 넘어가는 해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국제사회 또한 무척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현 시대에서는 나 혼자, 우리나라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세계 속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듯 지구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세계시민입니다.

한국의 개발 NGO들은 아동에서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는 한국 개발 NGO의 협의체로서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며, 국제개발협력교육의 기반 구축과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KCOC는 KOICA와 함께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책,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을 발간했습니다. 이후 6년 만에 최신 동향과 새로운 주제들을 반영해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공동의 노력과 협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책자 발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KOICA ODA 교육원, 각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책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원고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 더 좋은 책자를 만들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자문진과 감수진, 두꺼운 원고를 먼저 읽어 보고 독자의 시각으로 세심한 의견을 더해 준 고등학생 · 대학생 시범 독서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지속가능발전 시대에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세계시민의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이 그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가 그 시작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시민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문 영 기

발간사 4

1장 국제개발협력 개관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역사 13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 35

국제개발협력과 ODA 42

2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제

개발협력 - 빈곤과 불평등 51

개발협력 - 인권 66

개발협력 - 교육 83

개발협력 - 아동 99

개발협력 - 여성과 성 평등 113

개발협력 - 보건 129

개발협력 -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140

개발협력 - 사회적 경제 157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의 배경과 역사 171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의 분야 180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조정 체계 190

3장 세계시민의 실천

국제개발협력교육과 세계시민성 203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216

다양한 참여 방법 227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개발협력 활동가 이야기 269

부록

주요 약어표 297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302

국제개발협력 기관 312

국제회의 356

추천 도서 목록 376

주 379

1장

국제개발협력 개관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역사, 주요 개념, 최근 동향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역사

: 국제개발협력이란

사회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계는 유례없이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 사는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그 사실을 잊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관련된 뉴스를 일상적으로 접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이나 여행, 일자리를 위해 해외로 떠나기도 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들어온 것이며, 옷이나 신발을 비롯해 매일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세계 곳곳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커피 생산국의 기후 조건과 국제시장의 커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저 멀리 아프리카 · 중동 · 남미에서 발생된 에볼라 · 메르스 ·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기도 한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사회는 개인과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

공하고 전에 없던 협력을 만들어 내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앞으로는 국제적 이슈가 일상의 더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구촌이라는 이 사회가 함께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국제 무역이나 문화 교류 등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지구촌이 지속적으로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해 온 분야인 '국제개발협력'을 다루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지구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모든 절차를 뜻한다.

우선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의 자세한 뜻을 살펴보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원조'나 '국제구호'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제원조International Aid나 해외원조Overseas Aid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선진국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돕는 활동'을 설명하는 단어였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원조의 대표적 형태였다. 아울러 선진국 시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후원하는 것도 원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국제(해외)원조'라는 단어로 설명되어 왔다.

또한 '국제구호'라는 단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구호의 의미는 "재난이나 재해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이다.[1] 우리는 종종 지진, 태풍, 홍수 등 거대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광고를 접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의 복구 및 재건을 위

해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구호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의미한다. 재난 · 재해에 대한 구호 및 복구 활동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인도적 지원' 주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한편 앞서 설명한 원조 및 국제구호 등의 말들이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다. 이는 원조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적 · 시혜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제안된 용어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금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원조라는 단어로 인해 선진국의 지원만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혁신은 원조라는 개념에 가려지기 쉽다. 이는 발전 혹은 개발을 의미하는 영어 'Development'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evelopment는 어원상 "감추어져 있던 것 혹은 싸여 있던 것이 드러나거나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2] 이와 같은 의미를 감안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에게는 원조가 아닌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호 협력, 더 나아가서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오염, 기후변화Climate Change, 분쟁과 테러 등 다양한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것들이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국제기구뿐만 아니



출처: pixabay

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기업, 재단, 그리고 시민들 개개인을 포함한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혜적 성격의 원조보다는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개발협력이 보다 지향해야 할 개념일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그럼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은 누가 하는가? 전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국제기구 혹은 각국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예를 들어 UN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가 대표적인 국제개발협력 기관이다. 1945년, UN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여 번영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상처 위에 창립되었다. 이에 UN은 안보 및 평화 · 인권 · 개발을 UN 역할의 3대 축으로 정하고, UNICEF유니세프, UN 아동기금, UNDPUN 개발계획, UNEPUN 환경계획 등과 같은 다양한 UN기관들을 활용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국제기구로서는 국제금융기구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들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여해 개발을 위한 사회 서비스 시행 및 인프라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대표적 기구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 있다.

두 번째로 각국 정부도 전통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주체이다. 정부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은 유럽 및 미국 등 서구 국가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심의 공여국들은 1960년대부터 원조 형태로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해 왔는데, 공여국의 대표적인 원조기관

으로는 미국의 USAID, 영국의 DFID, 스웨덴의 SIDA 등이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공여국인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신흥 공여국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대만과 같은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이 아니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기술 협력 등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립과 참여로 운영되는 시민사회단체들이다. 이러한 단체들은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 시민사회단체CSO와 같은 명칭으로 불리는데, 예를 들어 옥스팜Oxfam, 월드비전World Vision,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등의 단체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 다른 국가의 아동과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들이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 구분되는 점은 바로 평범한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개발협력 주체로는 기업 및 재단이 있다. 기업은 개발도상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난한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임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공헌을 통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번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종종 기업가 혹은 기업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시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을 비롯해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등이 있다. 또한 재단 설립과 별개로 회사 내 사회공헌

부서 형태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주체에 대해서는 책자 뒤쪽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의 이유

지구상에는 다양한 국가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약 74억 명이 살고 있는 지구는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전통적 문제부터 기후변화, 테러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다른 국가들을 도와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 OECD 회원국들의 ODA 관련 전문 위원회인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인도주의적 동기, 진보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 모든 사람의 연대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3)]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도주의적 동기이다. 사람들은 궁핍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된다. 흔히 식량과 식수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느끼는 선한 마음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인도주의적 동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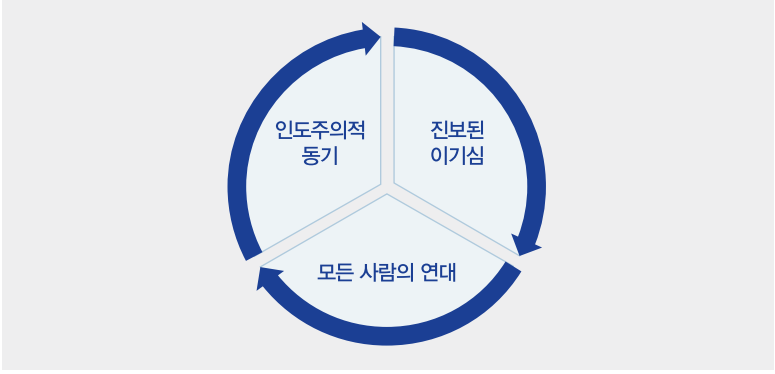
두 번째 이유는 진보된 이기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기심이 발현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생각하는 기회를 제시한다. 이기심이 좁은 의미로 발현될 때에는 우리 가족, 우리 국가에만 유리한 것으로 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명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다른 국가

를 돕는 것은 결국 우리 가족과 우리 국가의 이익을 넓히는 일이 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선진국은 자국의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 더 나아가 한 지역과 세계의 정치 및 경제적 안정 ·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개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동기는 모든 사람의 연대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는 이제 몇몇 국가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내전은 난민을 양산했고, 이 난민의 유입은 인접국 및 다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국제개발협력의 이유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리 가족, 우리 국가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평화와 공존이 필요한 시대이다. 예전처럼 국경 통과가 어렵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가 아니다. 이미 전 세계는 단 몇 시간 만에 다른 대륙을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적 동기이든, 진보된 이기심이든, 혹은 전 지구적인 연대 차원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지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현 시대에 국제개발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다.

: 국제개발협력의 배경과 역사

유사 이래 어느 시대이든 가난한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자신의 주변이 아닌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한 조직적 운동이 생겨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의 움직임은 역설적이게도 끔찍한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전쟁이 만들어 낸 처참한 상황은 인류에게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고, 이로 인해 인류의 협동 정신이 발현되기에 이르렀다.

1863년에 설립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스위스 사업가 앙리 뒤낭Jean Henri Dunant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전쟁 부상병의 극심한 고통을 목격한 앙리 뒤낭은 부상병 구호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는 국제적십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후 적십자는 전 세계의 분쟁 및 재난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전쟁 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된 기관은 다양하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동유럽 지역의 아동들을 돕

기 위해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된 세이브더칠드런, 제2차 세계 대전 중이던 1943년에 기근 구제를 위해 설립된 옥스퍼드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를 바탕으로 하는 옥스팜, 한국 전쟁 고아를 돕고자 1950년에 설립된 월드비전과 같은 NGO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례 역시 전쟁의 상처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1945년,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미국은 유럽 재건을 위한 대규모 원조를 결정하고, 130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지원하는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통하여 유럽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1948년에는 마셜플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OEEC유럽경제협력기구가 설립되었는데, 이 조직은 1961년에 이르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마셜플랜의 배경에는 '위기에 빠진 유럽을 구하자'는 선량한 마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소련과의 냉전에 접어든 미국은 이 상황을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주의 간의 경쟁으로 파악했다. 이에 소련이 유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고, 유럽을 미국의 우방으로서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거금을 들여 유럽의 경제적 복구를 지원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에 대한 원조가 반드시 선한 동기, 남을 도우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 아닌 국가 차원의 원조를 살펴보면 국제 정세를 비롯한 정치적 이유가 반영된 경우가 많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서도 각 국가들의 정치 · 경제적 변화 및 위기가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전쟁 복구를 위한 원조의 시기가 지나고, 1960년대에는 OECD와

UN으로 대표되는 유럽 및 미국 주도의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UN은 1961년 WFPUN 세계식량계획, 1965년 UNDPUN 개발계획, 1967년 UNIDOUN 공업개발기구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여러 조직을 설립했다. UN은 이러한 기구들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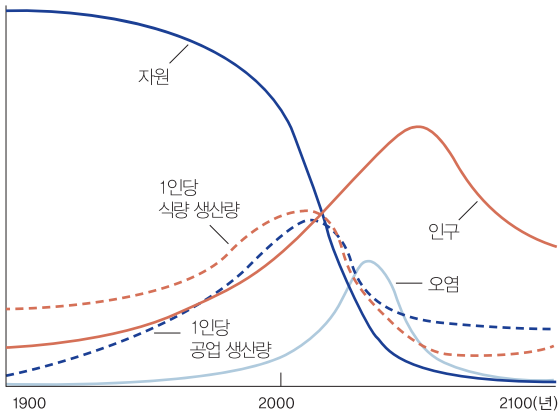
한편 OECD는 1961년 DAC를 설립하고 적극적인 원조에 나섰는데, 이는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국제사회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서구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광대한 식민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들은 오랜 종속 기간 동안 사회 갈등 및 저개발, 군사 및 산업 기지를 위한 자원 착취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이에 공여국이 된 유럽과 미국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DAC가 설립된 것이다. 다시 말해 1960년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면서 주로 식민지 국가였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감이 대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구 사회의 연대와 더불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 국가인 개발도상국 차원의 연대도 시작되었다. 1964년 UN 내 77개 개발도상국의 참여로 시작된 77그룹Group of 77은 이 시기 개발도상국 관점의 국제개발협력 연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7그룹은 개발도상국의 의견 조정과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요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4)]

1970년대에 들어 국제개발협력은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 마련 등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원조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는 원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는데, 인간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식량 · 식수 · 교육 · 보건 등의 기초 항목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1970년대는 빈곤을 한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인간의 삶의 조건 측면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특징으로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도 빼놓을 수 없다.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이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Limits of Growth》는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던 세계에 경고를 보냈다. 이 보고서는 지구의 자원이 유한하며, 서구 사회의 생산 · 소비 방식 및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적절한 대응을 취한다면 지속 ·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성장은커녕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이듬해인 1973년

성장의 한계 그래프



출처: 《성장의 한계》, 저자 재구성

에는 UN이 UNEP(UN 환경계획)를 설립함으로써 환경이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문제임을 상기시켰다.

이외에도 UN은 1976년에 UNIFEM(UN 여성개발기금)을 설립하였으며, 1979년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을 채택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곧 여성이 교육 · 보건 등 여러 사회 서비스에서 소외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는 다시 직업 · 결혼 · 출산 등 여성이 인생의 주요 고비를 맞을 때마다 다양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포함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신자유주의가 국제개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는 작은 정부 및 시장의 극대화 추구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이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빈곤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이와 관련된 산업이 촉진되고, 그 효과가 중산층 및 빈곤층에게도 전달될 것이라는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신자유주의는 성장 및 효율성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으며, 빈곤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시장의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국제개발협력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1990년 세계은행, IMF, 미국 재무성의 협약으로 체결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통하여 공

공 지출 축소, 국영 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촉구 등의 규제 개혁을 개발도상국에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편 198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은 국제개발협력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선언은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며, 인간이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고,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 권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발전권선언은 발전을 "포괄적인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과정으로서 발전과 그로부터 산출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있어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의미 있는 참여를 기초로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복지가 부단히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5] 또한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apartheid,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 · 점령 · 침략, 국가의 주권 · 국가적 통일 · 영토 보전 등에 대한 외국의 간섭과 위협, 전쟁의 위협"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지목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6]

1990년에 들어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등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조는 냉전 시대 중 우방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그간의 정치적 당위가 사라지면서 개발협력의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빈곤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점을 의식하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조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유럽의 원조에도 아프리카의 빈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외원조만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한 무역 구조가 고착화되고,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이 원조 자금을 착복하는 여건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원금을 쏟아 부어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공정한 무역 구조와 깨끗하고 투명하며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치 구조인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만드는 것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1950년대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피해 복구 • 유럽 지역의 재건과 투자 • 마셜플랜(Marshall Plan)
1960년대	• 경제 성장 지원 원조 • 유럽 및 미국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기틀 마련 • 식민지에 대한 책임감 부상
1970년대	•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 •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개발의 주요 이슈로 부각 • 환경과 여성에 대한 관심 증대
1980년대	•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표방 •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1990년대	• 냉전 종식,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 정립 • 원조 피로(Aid Fatigue) 현상 대두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중시
2000년대	• 빈곤과 사회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 • MDGs •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대한 논의

이와 함께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도 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보조금 지원과 원조의 대가로 시장 개방과 공공 지출을 축소하여 사회안전망을 줄이는 등의 '강제된 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공공 지출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관련이 있는 UNHRC 특별보고관 목록

시작연도	한국어 번역 명칭 / 정식 명칭
1998년	교육받을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1998년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2000년	적절한 주거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adequate housing as a component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and on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in this context
2000년	식량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002년	건강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2008년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 /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출처: OHCHR

한편으로는 발전권선언에 힘입어 빈곤과 사회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UN은 UNHRC(UN 인권이사회) 아래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혹은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적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해 감시 · 조사 · 보고하는 임무를 맡기

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UNHRC 산하에 식량, 극빈, 식수, 위생, 교육 등 국제개발협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특별보고관이 인종 차별 · 고문 · 종교적 자유 · 표현의 자유 등 주로 시민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쟁점을 다룬 것에 비하면, 빈곤 퇴치를 위한 여러 경제 · 사회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빈곤이 인권의 문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는 빈곤 해결은 시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의무를 수행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에 있다는 뜻이다. 자유 시장과 기업이 빈곤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신자유주의 체제와 달리 빈곤을 권리의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다.

2012년 9월 27일, UNHRC에서 채택된 '극빈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Guiding Principles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극빈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극빈은 부분적으로 국가 및 여타 경제 행위자들의 행위와 방임에 의해 만들어졌고, 가능했고, 지속된 것이다. 과거의 공공 정책은 극빈자에게 도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세대를 통해 빈곤이 전달됐다. 구조적이고 체제적인(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 문화적) 불평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남아 빈곤을 더욱 견고히 했다. 일관성이 결여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은 빈곤 퇴치에 대한 약속과 배치되었고, 약속을 지킬 수 없도록 했다."

위의 내용은 빈곤이라는 현상에 담긴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빈곤은 인권 침해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여타 침해를 낳는 조건이다.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는 복합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슬럼에 사는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한 물 · 위생 · 보건 · 교육 등 기본 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되곤 한다. 또한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차별받기 때문에 사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8)]

2000년대에 들어 UN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해야 하는 주요 목표로 'MDGs새천년개발목표'를 제시했다. 2000년에 열린 UN총회에서 전 세계 정상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새천년선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8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들이 합의한 새천년선언을 바탕으로 공동의 약속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측정 가능한 목표와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①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③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④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⑤ 산모 건강의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⑦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⑧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지표를 제공하고, 정부 · NGO · 국제기구 등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으며, 8개의 간결한 목표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MDGs가 개발의 전체적 연결 관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특히 빈곤이 생겨나는 구조적 문제인 인권 침해, 불평등 등의 문제는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MDGs는 UN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목표를 구성할 때 관련 기관 및 시민들과의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MDGs는 2015년으로 달성 연한이 마감되었는데, 이에 UN은 MDGs를 보완하는 한편 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만들게 된다.(엮은이 주. 한국에서는 SDGs를 '지속가능개발목표' 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로 번역하고 있다.)

2000년대는 MDGs와 더불어 원조효과성에 관한 OECD의 논의가 심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OECD는 로마(2003년), 파리(2005년), 아크라(2007년), 부산(2011년)에서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를 개최했다. 이 회의들은 지금껏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원조가 왜 효과적이지 못했는지 진단하고, 향후 더욱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2005년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① 수원국의 주인의식 ② 수원국의 개발 전략과 공여국의 원조 일치 ③ 공여국 간 원조 조화 ④ 원조 성과 관리 ⑤ 상호적 책임 등 원조효과성에 관한 5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은 그 시대의 정치 · 경제적 상황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 권력 구도, 개발도상국의 부상 등 여러 상황들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201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는 더욱 복합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미국과 유럽을 깊은 경제 침체로 밀어 넣었다.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DI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부들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9] 또한 UNHCRUN 난민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은 UNHCR의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해였다. 전쟁과 박해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다른 지역 및 국가로 탈출한 사람은 6,530만 명에 이른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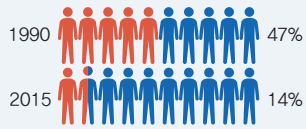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보려 한다.

MDGs는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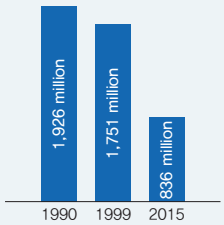
UN MDGs 보고서에는 15년(2000~2015년)간의 성과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되어 있다.

목표 1.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층 비율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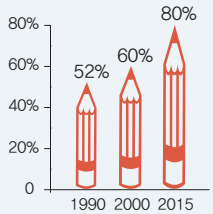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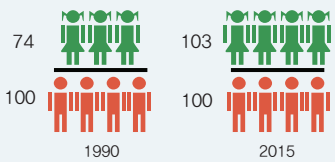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초등학교 순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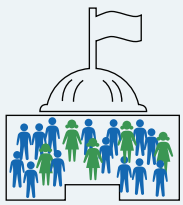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

남아시아 남녀 아동의
초등학교 등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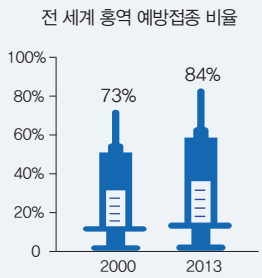


1995년 이래, 90%의 국가에서
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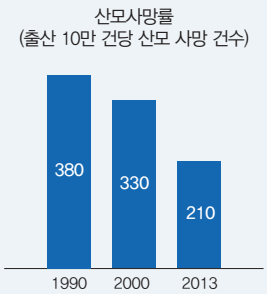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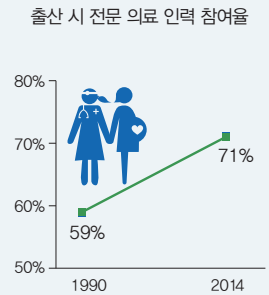
목표 4. 유아(영아)사망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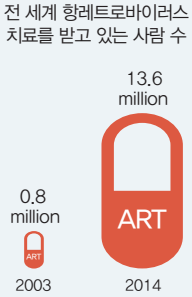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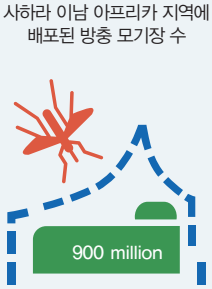
목표 5. 산모 건강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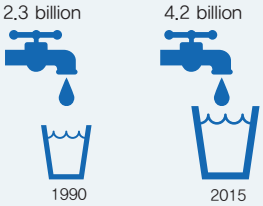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1990년 이래, 19억 명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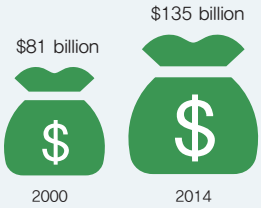


1990년 이래, 오존층 파괴 물질 소비는
98%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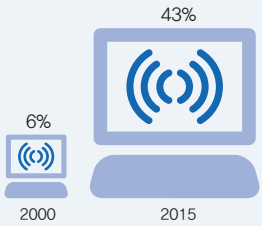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ODA의 규모



전 세계 인터넷 사용률



출처: 《The Millenium Development Report》 2015

국제개발협력의 최근 동향

앞의 내용을 통해 전쟁의 참극과 폐허 위에서 인도적 정신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본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오랫동안 원조라고 불린 일방적 시혜를 벗어나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동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선 새로운 시대의 국제개발협력은 더 이상 가난한 국가의 빈곤 감소와 발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과거에는 빈곤을 개발도상국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예로 UN이 제시한 MDGs는 개발도상국의 절대 빈곤과 보건, 교육 등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구의 빈곤은 가난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의 원인 파악과 해결에 있어 선진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자. 국제 시민사회단체인 Climate Action Network와 Beyond 2015가 UN의 에너지 분야 컨설테이션UN Thematic Consultation on Energy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산 규모 상위 11%에 해당하는 인구가 온실가스의 50%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1] 일부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Man-Made Climate Change'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3℃ 이상 기온이 상승할 것이며, 그 결과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12] 브라운 대학의 기후와 개발에 관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뭄 · 기온 변화 · 홍수 · 태풍으로 인하여 1980년 이래 전 세계에서 130만 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분의 2가 최빈국 국민이었다.[13]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선진국들의 협조 없이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 내의 심각한 격차와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빈곤은 가난한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내에서도 점점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근래들어 인도나 중국과 같은 신흥 경제 성장국에서 부의 양극화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빈곤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OECD 발표를 보면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집계되었다. 평균적으로 부유층은 빈곤층보다 10배 많은 소득을 벌었으며, 특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이 격차가 19배에 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선진국 내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역시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에 대한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하여 "인류는 동일한 세계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현대의 문

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가장 부유한 국가에도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오늘날의 세상을 "엄청난 발전을 이뤘지만, 용납할 수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세상"으로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21세기에는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주목하는 새로운 주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의 국제개발협력은 원조를 중심으로 식량 · 보건 · 식수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 제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단지 그것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사회 기반시설 부족은 한 사회의 전반적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빈곤층이 가난을 탈피하지 못하고, 빈민가에서 자란 아동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을 대물림받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수행이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이었다면, 최근에는 공정무역 단체 ·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대안 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및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인 민관협력PPP 등을 통해 수많은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역시 새로운 동향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흐름과 대안은 이 책의 2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제'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세대의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 선진국의 상황을 포함한 불평등 문제 부각, 빈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주목, 다양한 주체의 참여라는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들은 2015년에 제정된 SDGs에도 반영되었다.

MDGs가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UN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개발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9월 25일, 제70회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UN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SDGs가 채택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목표에서는 어째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란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 및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4)]

SDGs에는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개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포함되었다. 이는 SDGs가 MDGs와 가장 구분되는 부분으로서 일부 국가,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었던 MDGs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등 선진국의 책임이 막중한 문제들도 포함된 것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같이 SDGs는 지금까지 전 지구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논의해 온 결과를 모아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였다. SDGs에서 다루는 주제와 범위는 MDGs보다 더욱 방대해졌으며, 빈곤과 개발의 구조적 문제와 전 지구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소 지나치게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같아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지구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미래 세대의 필

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빈곤과 불평등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사례인 것이다.

SDGs의 최종 문서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약 계층 및 극빈층을 비롯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UN 등 모든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있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모든 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SDGs의 17개 목표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 상태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 5.	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가능한 유지 · 관리 보장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로의 접근 보장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 9.	복원력 높은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목표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 15.	지속가능한 육상 생태계 이용을 보호 · 복원 · 증진,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로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목표 17.	이행 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출처: KoFID, KOICA(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국제개발협력과 ODA

ODA공적개발원조란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15]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ODA를 집행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원조를 집행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각국의 정부부처(주로 외교부)를 통해 ODA를 실행하고 있는데, 원조를 위한 독립된 기관으로는 영국의 DFID, 미국의 USAID, 스웨덴의 SIDA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을 주축으로 한 공여국들은 OECD 내에 DAC를 구성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함께 논의하고, 회원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상호 평가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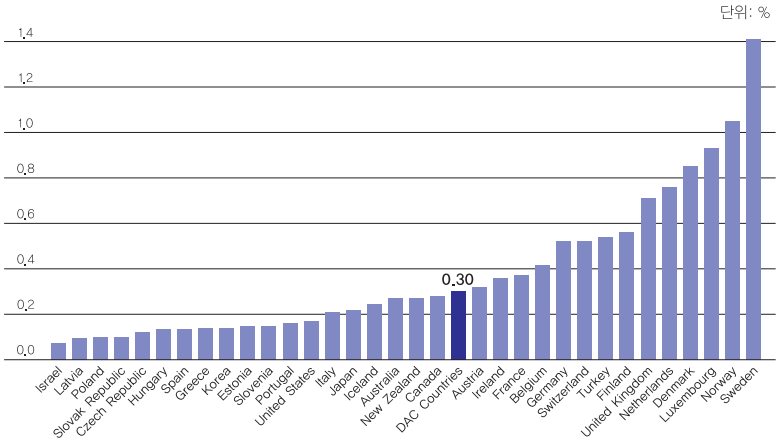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국이 아닌 여러 국가들도 점차 ODA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대만 등의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ODA를 시행하고 있으며, 쿠웨이트를 비롯한 아랍 지역 국가들은 지역 협력 차원에서 ODA를 시행하기도 한다. 또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 혹은 신흥 경제 성장국 간 국제개발협력이 이뤄지기도 한다. 여기서 남남협력이란 주로 전

통적 공여국들이 북반구에,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들이 남반구에 위치해 있던 것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이러한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들이 서구 국가들과 맺었던 공여 · 수원 관계에서 벗어나 남반구 국가 간 상호 협력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UN은 DAC 회원국들에게 GNI국민 총소득 대비 0.7%의 ODA 제공을 권고하고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ODA/GNI를 0.7% 이상 달성한 회원국은 스웨덴(1.41%), 노르웨이(1.05%), 룩셈부르크(0.93%), 덴마크(0.85%), 네덜란드(0.76%), 영국(0.71%) 등 여섯 나라에 불과하다. DAC 회원국의 평균 ODA/GNI 비율은 0.3%로 UN으로부터 권고받은 0.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6]

ODA는 지원 자금의 상환 조건에 따라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눌 수 있다. 무상원조grant는 수원국의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으로, 여기

OECD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 현황[17]



출처: OECD(2015년 기준)

에는 개발도상국의 예산 지원, 프로젝트 원조, 기술 협력, 개발도상국의 부채 탕감,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NGO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양허성 공공차관'이라고도 부르는 유상원조loan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대출, 다시 말해 수원국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 원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도로나 발전소 등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을 건립할 때 선진국이나 국제금융기관이 부족한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때 공여국이나 기관은 국제시장 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차관을 제공해 수원국의 상환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투자와 발전을 유도한다.

한편 ODA는 원조의 전달 경로에 따라서 '양자원조' 및 '다자원조'로도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양자원조는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원조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직접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다자원조는 국제기구가 여러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의 ODA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7억 달러 규모의 ODA를 지원받았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이 받았던 원조는 긴급구호, 물자 원조, 기술 협력, 개발차관 중심의 경제 원조 등 다양한 형태였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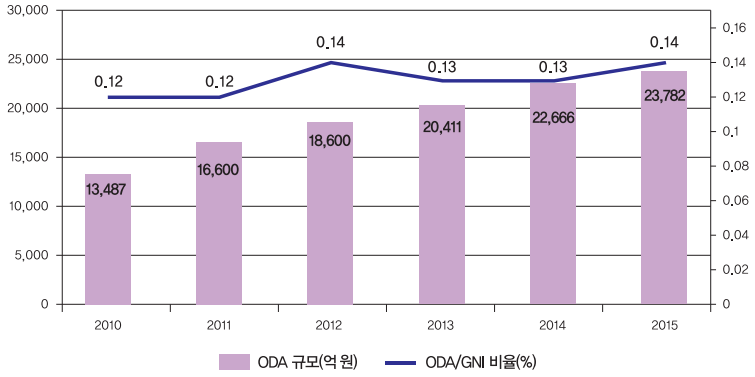
이후 한국은 꾸준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차츰 탈바꿈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정부는 유상원조 집행을 위하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창설

하고, 기금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다. 이후 1989년 한국수출입은행은 최초로 나이지리아와 차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1990년 정부는 UNESCOUN 교육과학문화기구 한국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을 시작했다.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를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본격적 원조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010년에는 OECD 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인 세계개발원조총회High Level Forum, HLF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한국의 ODA 추진 체계는 2010년 1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ODA는 총괄 및 조정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구성되었다. 먼저 한국의 ODA를 총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 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국제개발협력을 심의 · 의결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양자 유상 및 무상협력의 주관기관으로서 한국 ODA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시행기관 단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유상협력을, KOICA가 무상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ODA 규모는 약 2조 3,782억 원이며, 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OECD DAC 평균 공여 비율의 절반 정도 금액을 공여하였다. 같은 해 기준 한국 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46:54 비율로 시행했으며, 수원국은 아시아(43.8%)에 가장 많이 집중되었다. 또한 한국 ODA는 교통(13.3%), 수자원(11.0%), 교육(10.3%), 보건(10.2%)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9]

한국의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 현황[20]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ODA 시행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은 대표적 형태인 민관협력을 통해 ODA 사업에 참여 ·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인권, 환경, 여성 등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한국 역시 ODA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상과 유상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상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은 시민사회단체, 개발 NGO, 대학, 기업 등이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의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유상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민자사업차관, EDCF 자금과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 금융을 결합한 복합 금융 등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추천 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 갈라파고스 | 2007년

UN식량특별조사관이 전하는 전 세계 기아의 실태와 진실

탐욕의 시대(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장 지글러 지음 | 갈라파고스 | 2008년

기아라는 현상의 역사적인 배경과 저변을 보여 주면서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 지글러의 두 번째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지음 | 부키 | 2004년

선진국들이 오늘날의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실태를 밝히며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찬사의 위험성과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모색의 필요성을 밝히는 책

안젤리나 졸리의 아주 특별한 여행

안젤리나 졸리 지음 | 바람구두 | 2007년

UNHCR(UN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서 여러 국가를 방문하여 보고 듣고 배운 난민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책

추천 사이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ODA 관련 정부 공식 안내 사이트 www.odakorea.go.kr

KOICA www.koica.go.kr

KOICA ODA 정보센터 www.oda.go.kr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www.edcfkorea.go.kr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2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제



이 장에서는 빈곤, 인권, 아동 등 전통적인 개발협력 주제부터 최근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제개발협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와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상호 연결된 각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소개하고, '사람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개발협력

빈곤과 불평등

전 지구적 빈곤의 종식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이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할 SDGs는 현재 기준으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이는 빈곤이야말로 복잡다단한 문제 – 질병, 재난, 재해, 환경 파괴 등 – 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이자 결과이며, 인류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 빈곤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에서 빈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동을 구하는 과제 정도로 이해되거나 혹은 특정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문제로 치부되어 실제로는 새로운 정책적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특정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대중적 담론의 초점은 흔히 개인의 게으름 · 복지에 의존 · 분쟁과 재난 · 개인 역량 부족 등과 연계되며, 불평등 · 사회적 배제와 차별 · 분배의 정의 · 일자리 부족과 같은 논점과는 동떨어진 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전 지구적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감소시킨

다. 빈곤을 일부 최빈국 및 극빈층의 생존 문제로 한정하는 관점은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식의 단기 처방만 낳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인명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는다.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자선이나 시혜로 여기기 쉬운 반면 빈곤을 낳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숙고는 이뤄지기 어렵다.

한편 빈곤을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나 교육 및 보건 등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도 '특정 집단에 대한 특정 서비스의 제공'으로 좁아지게 된다. 이런 접근은 일시적으로라도 소득이 늘어난다면, 교육만 잘 받으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면 누구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잘못된 가정을 하는 셈이다. 그 결과 전 지구적 경제 정의, 자원과 시장으로의 접근, 일자리의 배분, 재난 · 재해에 대한 취약성 경감 등 빈곤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게 된다.

: 빈곤을 보는 눈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10.7%에 해당하는 7억 7,700만 명이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빈곤에 처해 있으며, 절대 빈곤층의 절반 정도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1] 이러한 수치들은 문제의 규모를 보여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빈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큰 숫자 이면의 현실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한다. 통계는 집단의 현실을 표면적으로 보여 주는 반면, 빈곤을 낳는 현실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 안에서도 '어떤 집단이

빈곤에 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빈곤은 한 대륙이나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며, 성별 · 연령 · 민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더 취약하며, 영유아 · 청소년 · 노년층이 빈곤에 따른 고충을 더욱 심각하게 겪는다.

일하면서도 빈곤한 사람들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한 개인에게 돌리는 비난을 자주 접한다. "아프리카 대륙 사람들은 게으르다"거나 "분쟁을 일삼고 자녀를 너무 많이 두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식이다. 하지만 빈곤은 전 지구적, 그리고 개별 국가적 경제 구조 및 사회 정의 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영양실조와 농업, 토지 분배 정의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소농민의 권리를 대표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인 비아 깜페시나La Via Campesina는 이러한 모순의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땅에서 직접 농사짓고 있는 농민의 다수가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농사에 필요한 물 사용 권리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지만, 토지에 대한 이들의 권리는 매우 미약하다. 특히 여성은 농업 생산의 70% 이상을 감당하면서도 토지 소유에서는 합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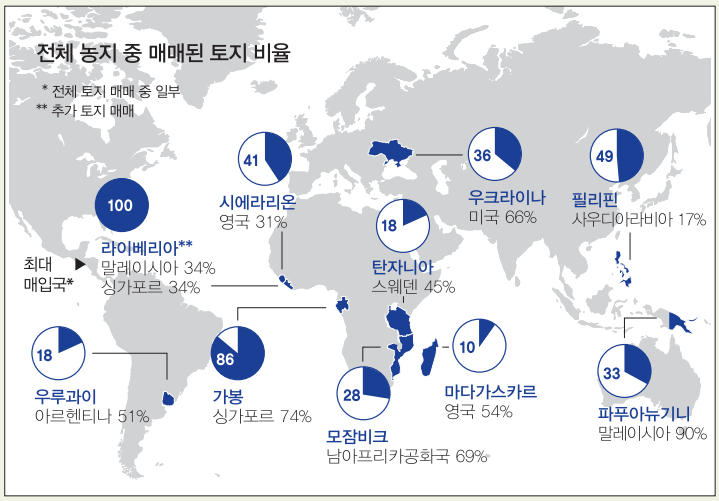
최근에는 선진국 자본에 의한 토지 수탈이 벌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이다. 국제개발협력 NGO인 옥스팜은 가난한 나라에서 축구장만 한 크기의 땅이 1초마다 선진국의 금융 자본과 투자 회사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한다.[2] 특히 옥스팜은 보고서를 통해[3] 미국의 농업 투자 회사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단 3,000

만 원으로 59억 5,000㎡에 이르는 땅을 49년 동안 빌린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회사는 그 땅이 서류상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로 되어 있어 헐값에 빌린 것이라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땅이었다.

그렇다면 미국 회사가 이 지역에 들어와 대규모 농장을 개발하면 그곳에 살던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작으나마 자신의 땅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잃게 될 것이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거나 대규모 농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수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의 한 시사 주간지는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100%가, 시에라리온에서는 41%가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고 지적한다.[4)]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빈곤층은 열심히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 활동에 참여

전 세계의 토지 수탈Land-Grabbing Around the World



출처: Der Spiegel, 저자 재구성

해도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거나 아예 생산 활동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분쟁이나 게으름 때문에 빈곤하다는 편견까지 있으니 빈곤에서 벗어날 기회는 더욱 멀어진다. 아프리카 토고의 한 정치인은 이런 상황을 두고 "아프리카를 향한 시선은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 더 위험하다"고 일갈한다.

그렇다면 빈곤을 낳는 전 지구적, 그리고 개별 국가적 경제 구조와 사회 정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영양실조와 농업, 토지 수탈의 문제를 예로 든다면 무엇보다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농업 투자가 가능토록 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과 제도, 정책, 기술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농업 생산량이 늘고, 그 결실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의 식량 위기, 1996년부터 비아 깜페시나에 의해 제기된 식량주권 운동 등의 영향으로 소농의 생산 권리, 농사지을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소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특히 UN은 비아 깜페시나가 펼쳐 온 농민 운동의 영향으로, 2013년 UNHRC에서 농민과 농촌 지역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UN선언을 제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역사상 최초로 UN에서 농민인권선언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비아 깜페시나를 중심으로 한 소농 권리 운동의 노력과 성과는 '빈곤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력하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라는 편견을 넘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짚어 내고 대응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무엇보다 빈곤한 사람들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이룬 결실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빈곤을 제대로 바라보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바로 빈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다. 빈곤을 낳는 전 지구적, 개별 국가적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혹은 빈곤층이 겪는 현실에 대한 종합적 파악 없이는 빈곤 퇴치를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 반면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측정은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국제사회는 빈곤을 단지 소득 부족으로 보는 시각을 더 넓혀 빈곤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이해하고 포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빈곤 측정을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1.25달러 미만' 혹은 '1.9달러 미만' 등의 금전적 빈곤 지표는 상대적으로 측정과 전달이 쉬워 빈곤 상황을 부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금전적 지표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게 쓰이는 것이 바로 소비 지표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사, 거리 상점, 일용직 등 비공식 부문에서의 활동이 많아 공식적인 소득 지표를 산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지표는 빈곤층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세계은행은 빈곤 가정이 식료품, 의복,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비 금액을 추정하여 절대 빈곤선을 정한다. 현재는 2015년에 설정한 미화 1.9달러 미만을 절대 빈곤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런 지표를 통해 빈곤의 국제 비교가 가능해지고 빈곤 퇴치를 위한 뚜렷한 목표 설정과 자원 동원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적 빈곤 지표로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빈곤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다. 금전적 지표는 한 가정의 총소득이나 총소비를 가구 인원수로 나누어 1인당 빈곤선을 추정하는데, 이 같은 방식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겪는 빈곤의 경험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빈곤 가정 내에서도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노동의 양과 질, 영양 섭취, 교육으로의 접근 등에 있어 불평등이 생긴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중산층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는 데 비용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 지표만 봐서는 이러한 현실을 알기 어렵다.

또한 금전적 지표로는 빈곤의 역동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빈곤은 언뜻 만성적이고 고정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빈곤층은 생애 주기 · 일시적 질병 · 실업 · 재난 등에 따라 빈곤에 빠졌다 탈출하기를 반복한다. 이때 한 사회가 제공하는 사회 보호 체계나 안전망, 그리고 개인이 가진 대처 역량에 따라 개별 가구의 빈곤 경험이 달라진다. 가뭄으로 곡물 수확이 줄어 끼니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다고 하자. 이때 어떤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비료나 씨앗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돈을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식량을 지원해 주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같은 차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가구의 빈곤 경험을 결정한다. 지원이 없는 지역의 농민들은 빚을 갚고 끼니를 잇기 위해 농기구를 내다 팔고 이자율이 더 높은 돈을 빌리는 식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빈곤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또한 농민들의 연대체나 결사체의 유무도 빈곤 경험을 결정한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이 나서서 정부에 사회안전망Safety Net을 요구하고, 일시적 위기에서 농민을 보호할 조치들을 취한다면 농민이 겪는 빈곤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와 개인이 가진 이러한 역량들은 금전적 지표로는 포착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빈곤에 대한 대책 수립 시 간과되기 쉽다.

한편 국제사회는 금전적 빈곤 측정 지표를 보완하는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개발하여 확산시켜 왔다. '역량 중심 접근법'은 대표적인 다차원적 빈곤 접근법으로, 단순히 소득의 부족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자원을 획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결핍한 상태를 빈곤으로 본다. 이때 개인이 누리는 기회와 자유는 한 사회가 가진 역량에 의해 결정되기 쉬우므로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교육 · 보건 · 안전 등 사회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기회 박탈이 각 개인의 역량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UNDP는 1990년부터 역량 중심의 접근을 토대로 한 여러 나라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측정하여 국제 비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수는 빈곤을 측정할 때 1인당 실질 GNI국민 총소득 외에도 평균 기대 수명, 문해文解율, 교육 수준 등의 지표를 두루 종합한다. 이는 경제 성장이 반드시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토대로 사회가 갖고 있는 역량에 비춰 빈곤의 다차원적 특징을 포착한 것이다.

최근 들어 빈곤을 이해하고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그룹 간 빈곤 격차, 즉 그룹 간 불평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MDGs의 결실이 모든 이들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자각에 기반을 둔 것이다.

지난 25년간 전 지구적 차원의 빈곤은 크게 감소했다.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1990년 19억 명에서 2016년에는 절반 이하인 8억 3,600만 명으로 줄었다. 절대 빈곤율을 기준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0년 47%에서 2015년 14%로 현격하게 감소했다.[5)]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세계적으로, 집합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출했고,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이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빠르고 대대적인 빈곤층 숫자 감소는 실제로는 인도와 중국 등 인구 대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이며, MDGs의 빈곤 감소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고르게 나타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정치 및 사회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극빈 취약 계층일수록 빈곤 완화 활동에서도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그룹 간 빈곤 격차에 주목해야 한다. UN이 MDGs의 뒤를 잇는 SDGs를 통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을 주창하며, 전 지구적 · 국가적 빈곤으로부터 시선을 세분화해 도시와 지방 · 여성과 남성 · 아동과 노인 · 장애 · 소수 민족 등의 그룹 간 빈곤 격차 해소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현실에서 비롯한 것이다.

소액금융의 두 얼굴

빈곤층의 자산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기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이끈다는 소액금융microfinance은 빈곤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 주목 속에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소액금융을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인 상호 신뢰 및 협력과 연계한 방안은 세기의 혁신으로 손꼽히며,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소액금융기관인 그라민 은행과 이를 설립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렇듯 소액금융이 빈곤 감소를 위한 획기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빈곤층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연대채무 상환 책임에 시달리면서 자살하거나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뒤를 이었다. 방글라데시, 인도 등에서 실시한 주요 연구 결과는 소액금융이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계층의 사업 투자와 이익 증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알려진 것처럼 소비 · 교육 · 보건 · 여성의 권한 향상 등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류학자 라미아 카림Lamia Karim은 2011년에 발간한 저서 《가난을 팝니다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Women in Debt in Bangladesh》를 통하여 인류학적 관점에서 소액금융이 농촌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소액금융과 이를 확산하는 NGO 활동은 여성을 대출자로 하고, 여성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룹 대출을 통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라미아 카림은 이 같은 활동이 여성들을 빚더미에 앉게 할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명예와 수치에 대한 관례를 악용해 여성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과 마을 공동체에서 폭력을 양산하며, 자본의 맹렬한 공격 앞에 맞설 여성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줘 주목받았다.

소액금융이 개발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성 높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액금융으로 인하여 오히려 여성의 권한이 약화되거나 자살이 증가한 사례는 빈곤 완화 정책 설계 및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빈곤층을 소득 기준으로만 파악하고 빈곤층 각 그룹의 사회적 특성을 세분화해 파악하지 않는 빈곤 완화 정책은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빈곤을 세분화하여 지역, 성별, 연령, 장애, 민족 등 소외 그룹의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의 역설과 빈곤층 친화적 성장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개발할수록 불평등도 함께 증가한다는 이른바 '개발의 역설'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국제개발 분야의 석학이자 식량주권운동가이기도 한 필립 맥마이클Philip McMichael은 저서 《거대한 역설Development and Social Change》에서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라는 도전적인 물음을 던진다. 해마다 평균 7~8%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인도에서 아직도 5세 미만 아동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농민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 개발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가져온다는 암묵적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흔히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는 개발development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성장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개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어떤 성격의 개발인지를 반드시 묻고 짚어 봐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이러한 질문에 '빈곤층 친화적 성장 혹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접근으로 답하고 있다. 이 접근은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강조한다. 이는 개발을 위해서는 자원을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성장의 결실이 빈곤층에게까지 자동적으로 고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존의 접근과 달리 개발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성장, 빈곤층의 소득을 높여 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정책은 대표적인 빈곤층 친화적 성장 방안 중 하나이다. 빈곤층은 경제 성장과 개발 과정에서 부당한 폐해를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장을 통해 얻는 세금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빈곤층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빈곤층이 성장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보호 정책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2003년 집권과 함께 도입한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는 조건부 현금 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을 방법으로 한 대표적 사회보호 정책이다. 브라질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빈곤층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되, 그 조건으로 수급 가정 자녀들의 학교 출석률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내걸었다. 또한 여성의 산전 검진, 아동 예방접종,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 등도 연계했다.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으로, 소비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여 바라봤다. 빈곤층은 현금 지원의 부작용으로 빈곤층이 점점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뒤엎으며 일자리를 찾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혔다.

한편 볼사 파밀리아는 석유, 철광석, 콩 등 원자재 수출 가격 상승으로 경제 호황을 누리던 브라질 좌파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populism'[6]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전후로 브라질이 겪고 있는 경제 침체와 정치적 소요가 이 같은 비판을 뒷받침하였다.[7]

그러나 볼사 파밀리아가 브라질 전체 인구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명을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편입[8]시켰고, 특히 학교 출석과 현금 지원을 연계한 접근은 출석률 증대와 관련하여 그간 교육 분야에서 시도된 어떤 정책보다도 효율적이었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9]

빈곤층에게 경제 호황의 결실을 직접적으로 분배하고, 특히 교육과 보건에 투자한 사회 정책으로서 볼사 파밀리아의 장기적 성과는 이제부터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현재 브라질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 새로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빈곤 감축으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을 낳는 전 지구적 구조와 빈곤 국가의 특수성, 그리고 빈곤의 복잡성 등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의 성과와 한계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아동 · 교육 · 여성 · 보건 등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빈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접근이 어떠해야 하는지 간략히 정리하고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은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절실한 주제이면서도 추상적으로 여겨지거나 소홀히 다뤄지기 쉬운 주제이다. 그렇다면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어느 사회에서든 성장과 빈곤, 불평등 완화는 사회 정책의 가장 핵심적 주제이자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은 공동체가 풀어 가는 정치, 경제, 사회적 대화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새롭게 추구할 SDGs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 공동의 목표를 통하여 빈곤을 소득 감소로만 바라보던 시각을 넓히는 한편, 개발의 의미를 정치 · 사회 · 환경적으로 두텁게 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빈곤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빈곤층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 분배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머물기 쉬운 빈곤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위해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실

험 ·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빈곤 감소를 위해 ODA를 활용하며, 그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효과적인 빈곤 감소를 강조하는 과정 중 국제개발협력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정량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 · 검증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일보다는 측정이 쉬운 일을 하는 것으로 변해 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곤을 없애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과정에 빈곤을 낳는 구조에 대한 도전 혹은 빈곤층의 힘을 키우는 사회 운동에 대한 관심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빈곤층이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현실을 반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빈곤 극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과 빈민들을 위한 공정한 무역 · 이주 · 노동 정책을 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자본이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시민 연대를 늘려야 한다.

추천 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지음 | 갈라파고스 | 2007년

UN식량특별조사관이 전하는 전 세계 기아의 실태와 진실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지음 | 교양인 | 2013년

개발의 의미와 본질 · 개발과 불평등 사이의 내적 관계를 파헤치고,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다나카 유 외 지음 | 알마 | 2007

일본 NGO 활동가 16인이 겪은 세계의 빈곤 현실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30가지를 소개하는 책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지음 | 사계절 | 2016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경제와 빈곤 문제에 대해서 쉬운 용어로 소개하는 책

빈곤에서 권력으로(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던컨 그린 지음 | 이매진 | 2010년

국제개발 NGO 옥스팜에서 발간한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자

개발협력



인권

"인류는 개발 없이 안보를 누릴 수 없고, 안보 없이는 개발을 향유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 없이는 그 둘 중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2005년에 열린 제60차 UN총회에서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제시한 주장이다.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인권이 왜 중요한가?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풍요로워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어떤 기후,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든 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가? 1990년 중반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인권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한다. 인권이란 '인간人間의 권리權利'를 줄인 말로, 여기서 인간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인류를 말한다. Right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1] 첫 번째는 '옳음'으로 객관적 · 도덕적 · 규범적 기준이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요구 자격'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권리를 지켜 줄 상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국제인권기준들이 바로 그 근거가 되면, 어떤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인권의 특성

OHCHR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s for Human Rights이 2006년 발간한 《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FAQ)》에서는 인권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2][3]

첫 번째 특성은 '인권의 보편성普遍性, universality'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이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도 "모든 사람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속한 나라 또는 영토가 독립국이든, 신탁 통치 지역이든, 비자치 지역이든, 그 외 어떤 주권상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곳의 정치적 지위, 사법관할권상 지위, 국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어느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높고, 다른 곳에 사는 주민은 지위가 낮다는 식의 구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특성은 '양도불가능성讓渡不可能性, inalienable'으로, 인권을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주거나 타인이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성은 '평등平等, equality'이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권의 핵심 가치이자 원칙으로서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거나 대우받는 상태'를 뜻하며, 여기에는 ① 기회의 평등 ② 조건의 평등 ③ 결과나 산출에서의 평등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네 번째 특성은 인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indivisibility'으로, 인권 자체를 더 작은 단위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인권도 다른 인권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므로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존중 · 보호 ·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특성은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 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연관성相互聯關性, interrelatedness'이다. 인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의존하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인권만 따로 분리해서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받은 아동은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어렵다. 다시 말해 아동의 보호권 침해는 발달권과 참여권은 물론, 나아가 생명권과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특성은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왔고,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특성은 '개인과 집단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에 취약한 개인을 포함하여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 민족 등 인권에 취약한 집단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국제인권기준과 인권 목록

UN은 UN헌장(1945년) 전문을 통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제1조 3항)을 규정함으로써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논의할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국제사회 내 인권 논의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의 자유 · 정의 · 평화를 위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고, 인권이 법에 따른 지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및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한 국제인권기준이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인권 항목들은 다음의 9개 국제협약들을 통해 구

체화되었다.

- 인종차별철폐협약(1965년)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1984년)
- 아동권리협약(1989년)
-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년)
- 장애인권리협약(2006년)
- 강제실종방지협약(2006년)

세계인권선언은 시민 · 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사회권)를 담고 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 1966년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으로 분리되었다. 사회권과 자유권 규약이 포함하고 있는 권리의 목록을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분류	인권의 내용(관련 조항)
시민적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자유권 규약 16조) •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 규약 26조) • 고문 금지(자유권 규약 7조)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 추정의 원칙 (자유권 규약 14조)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자유권 규약 19조)
정치적 권리	•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자유권 규약 21조) • 결사의 자유(자유권 규약 22조) • 정치에 참여할 권리(자유권 규약 25조)
경제적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사회권 규약 11조 2항) •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사회권 규약 11조 1항) • 노동권(사회권 규약 6조)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사회권 규약 7조) •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사회권 규약 8조)
사회적 권리	•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사회권 규약 9조) • 가족, 임산부, 아동의 권리(사회권 규약 10조) •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보호(자유권 규약 23조) • 아동의 권리(자유권 규약 24조)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사회권 규약 12조)
문화적 권리	• 교육권(사회권 규약 13조) • 기초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규약 14조) •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사회권 규약 15조) • 소수자의 권리(자유권 규약 27조)

출처: KOICA ODA 교육원(2016),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시공미디어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의 목록은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발전권이나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1986년 이래 환경권이 중요한 인권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은 발전하는 개념이다.

UN은 위와 같이 인권 목록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인권 의무를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l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행 의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규정되며, 이 세 가지 인권 의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인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4]

: 인권 기반 국제개발협력

인권은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이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이다. OHCHR은 "규범적으로는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두고, 실행 차원에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인간 개발 과정에 대한 개념적 체계 또는 틀framework"[5]로 'HRBA인권기반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설명하고 있다. HRBA는 개발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는 불평등을 분석하며, 개발의 진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권력 분배를 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6]

HRBA는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 관습법과 국제인권기준에 근거를 둔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단체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2003년 HRBA를 실행하던 UN기관은 HRBA에 대한 개념, 원칙, 적용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쳤으며, 2003년 미국 스탬포드Stamford에서 3개의 원칙과 13개의 특성으로 구성된 'HRBA에 대한 공통의 이해Common Understanding'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기제에 명시된 인권 실현을 증진시켜야 하고,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인권기준과 원칙들을 적용해야 하며,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확인했다.

스탬포드 공통이해 Common Understanding

① 개발협력, 정책, 기술 지원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장치들에 명시된 인권 실현을 증진시켜야 한다.

② 세계인권선언 및 다른 국제 인권 문서에 담긴 기준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은 모든 분야와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래밍 과정 속에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래밍을 이끌어야 한다.

③ 개발협력은 '의무부담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스탬포드 공통이해는 아래 13가지 특성을 합의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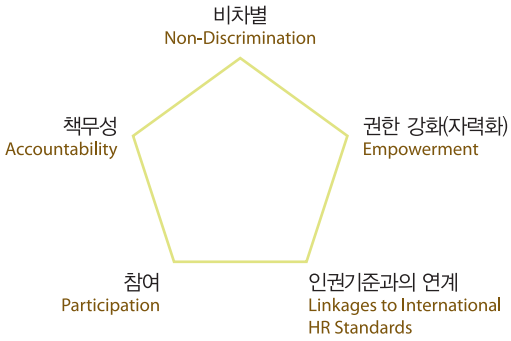
- 참여하는 주민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주요 행위자로 인식해야 한다.
- 참여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 전략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disempowering이 아니라 역량을 강화empowering하는 것이다.
- 결과와 과정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분석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춘다.
- 현지 지역사회와 주민이 개발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진다.
- 프로그램은 불균형 및 불평등disparity 감소를 목표로 한다.
-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향식 및 상향식 접근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 빈곤 퇴치 및 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상황 분석을 통해 즉각적, 근본

적, 기본적 원인들을 규명한다.

- 프로그래밍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 목표를 중요하게 다룬다.
-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지원한다.

이후 국제 NGO인 옥스팜은 위에서 제시한 특성을 발전시켜 'PANEL 원칙'으로 정리했다. PANEL은 다섯 가지 원칙을 의미하는 단어의 첫 문자를 조합한 용어로, 각 원칙은 아래와 같다.

PANEL의 다섯 가지 원칙



- P : Participation 참여
- A : Accountability 책무성
- N : Non-Discrimination 비차별(차별 없음)
- E : Empowerment 권한 강화(자력화)
- L :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 연계

출처: 한국인권재단(2012b), 《RBA(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중급 과정》 54쪽 재구성

P: 참여Participation

'참여'는 일반적으로 포용 혹은 포함inclusion과 같이 사용된다. 여기서 포용이란 배제 또는 소외의 반대말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과정에 동참해야 함'을 의미한다.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인 참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형성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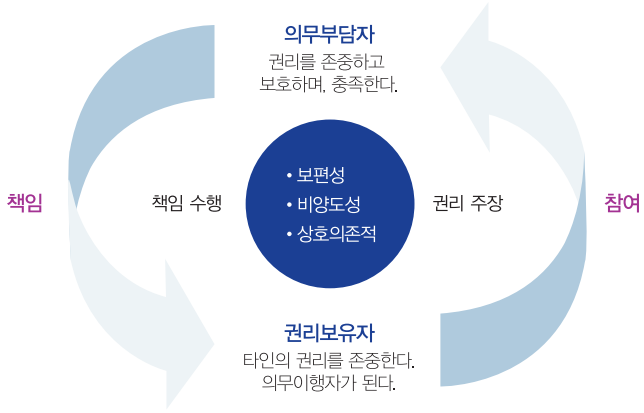
정에 참여하여 함께 선택 ·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참여는 능동적인 시민권의 근간으로, 비판적 의식과 의사 결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참여는 인권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표이다.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려면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역량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참여가 가능하려면 각 개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침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며, 누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 줄 수 있는지 알아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참여할 수 있는 힘power은 그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부당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역량을 의미한다.

A: 책무성Accountability

'책무성'은 책임과 의무의 복합어로, 측정할 수 있거나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책무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권리보유자와 의무부담자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권리보유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 의무부담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의무부담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무부담자는 권리보유자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



출처: Joachim Theis(2004),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Save the Children Sweden

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모든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의무부담자는 법으로서 마땅히 책무성을 부여받지만, 법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인 의무부담자라는 인식이 가질 때 보다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의무부담자는 권리보유자에 대한 책무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의무부담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감시 시스템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아동의 권리를 지켜 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제18조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를 지켜 줄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UN 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서는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안 양

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아동 보호 시설을 통해 부모 대신 아동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지속적으로 지도 · 감독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N: 비차별Non-Discrimination

'비차별'은 인권의 핵심적 가치이며 일반 원칙이다. 반면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7]이다. 다시 말해 생각이나 특징(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 침해의 시작은 차별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큼 현실에서 차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E: 권한 강화(자력화)Empowerment

'권한 강화(자력화)'는 개인 또는 집단의 역량을 증진함으로써 그들과 관련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자신들이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를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하면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빈곤으로 인한 자포자기 등 무력감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신의 힘과 의지로 빈곤을 퇴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려면 권리주체자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알고, 권리를 주장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한편,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거나 다양한 기회에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권한 강화(자력화)는 참여의 조건이자 결과이다.

주민들에게 권한이 주어지려면(자력화가 향상되려면) 우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아울러 권리를 배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회도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권한 강화(자력화)는 의무부담자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의무부담자들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L: 인권기준과의 연계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8)]

'인권기준과의 연계'란 개발 목표를 국내 및 국제적으로 승인 · 실행 중인 인권기준과 연계해야 함을 말한다.

HRBA가 국제인권의 주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외 인권 체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기준은 인권규범과 제도를 포함하여 국내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기준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인권 관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판례와 결정례를 말한다. 또한 국제적 기준은 앞서 설명한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 국제관습법 및 관련 제도를 말한다.

HRBA는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배제 및 소외된 사람이나 집단에게 초점을 두고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게 한다.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 · 평등과 연대 등의 가치를 적용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에 기여한다. 아울러 평화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인권 증진 방안

개발도상국의 인권 침해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논리적 차원들과 각각의 상황을 돌아보고,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인권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9)]

1) 국가, 사회 혹은 일반 대중이 개인이나 집단의 절실한 기본 욕구를 정당한 요구로 인정하지 않고, 그 요구를 법제화하지 않는 경우이다. UN이 인권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 향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개발과 인권을 연계할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의 법 · 정책 · 제도 등을 파악해 그것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개발 · 이행된다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환경에서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주장함에도 의무부담자가 그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UN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무부담자가 왜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지, 혹은 못하는 것인지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과 건설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와야 한다.

3)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권리보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 있고 그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런 때에는 주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권리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인권을 향유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들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사회마다 정치 · 문화 ·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하며, 그 장벽들은 권리를 차단하려는 권력에 의해 유지된다.

법치와 같이 인권을 촉진하는 조건들이 활성화되면 권리보유자가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들과 그들의 인권을 촉진하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에 있어 인권은 목적 그 자체이다. 개발 현장에서 인권에 기반을 두고 접근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이다. 그들의 권리를 존중 · 보호 ·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행 방법 역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이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의 수립이 중요하지만, 보다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권리를 향유하려면 인권 친화적인 사회적 · 국제

적 질서가 갖춰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발전권선언[10] · MDGs · SDGs 등 국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추천 사이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www.ohchr.org

옥스팜(Oxfam) www.oxfam.org

액션에이드(Actionaid) www.actionaid.org

UN 개발계획(UNDP) www.undp.org

앰네스티(Amnesty) www.amnesty.org

• 추천 도서

인권의 지평(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조효제 지음 | 후마니타스 | 2016년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하는 책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다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묻는다)

조효제 지음 | 교양인 | 2015년

인간의 존엄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권에 대해 소개하는 책

인권을 찾아서(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16년

세계인권선언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한 책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르티아 센 지음 | 갈라파고스 | 2013년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저자가 개인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역설하며 역사적 사례, 실증적 증거, 엄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목표를 설명하는 책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

보르안드레아센, 스티븐 마크스 지음 | 후마니타스 | 2010년

'개발의 권리'와 이와 관련된 '인권에 기초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는 여러 편의 논문을 엮은 책

들리지 않는 진실(빈곤과 인권)

아이린 칸 지음 | 바오밥 | 2009년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었던 저자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빈곤과 인권 유린의 악순환을 고발하고, 빈곤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제시한 책

개발협력

교육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교육은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조건으로서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 기조연설을 통해 "교육은 특권이 아닌 기본적인 권리Education is Not a Privilege; It is a Birthright"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교육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국제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 보고서는 학교 교육을 받은 연한이 1년 연장될 때 국가 전체 GDP 성장률이 0.37% 증가하고, 교육 불평등률이 0.1% 감소될 때 1인당 소득이 23%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1)]

우리는 이미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이 국가와 개인의 경제 성장 및 빈곤 감소뿐만 아니라 건강, 영양, 성 평등, 소득, 취업, 환경 등 개발의 전 영역과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효과성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UNESCO가 발간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EFA GMR》에 의하면 여성의 취학률이 증가하면 유아사망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증진, 여성의 취업 여건 향상 등 사회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초등학교 등록률이 10% 향상되면 유아사망률이 0.1명 감소하고, 중등학교 등록률이 10% 향상되면 유아사망률이 0.2명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교육 연한이 증가할수록 유아사망률 감소 효과도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다.[2)]

이처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커지면서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각국 교육 관계자, 국제기구, 비정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향후 15년간 국제사회의 이정표가 될 SDGs가 공식 발표되면서 글로벌 교육의제의 목표 및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 SDGs에서의 교육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이라는 SDGs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교육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위한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s 교육 목표는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앞선 MDGs와 차별성을 가진다. MDGs가 보편적 초등교육에 집중하였다면, SDGs 교육 목표는 영유아 교육부터 성인 학습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시켜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SDGs에서 교육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이행 수단이 추가되었지만, 교육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교육의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SDGs 4번 및 세부 목표

SDGs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SDGs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SDGs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양질의 영유아 발달과 보호, 취학 전 교육으로의 접근을 보장한다
SDGs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양질의 지불 가능한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SDGs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SDGs 4.5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 선주민 ·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사람들이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SDGs 4.6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SDGs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SDGs 4.a	모두를 위해 아동, 장애, 성별을 배려한 교육시설을 건축하고 개선하며,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SDGs 4.b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 · 공학 · 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 아프리카 국가에 전달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SDGs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의 교원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으로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처: KoFID, KOICA(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국제개발협력 분야 교육 성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는 교육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지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 지난 15년(2000~2015년)간 국제사회의 합의 아래 국제개발규범으로 채택되었던 MDGs의 8가지 개발 목표 중 교육과 관련한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과 '목표 3.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을 비롯하여, UNESCO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의제로 채택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은 국제사회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목표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양질의 기초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서, 국제기구 · 각국 정부 · 시민사회단체 등은 약속 이행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2000년과 비교하여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비율, 초등학교 등록률 및 초등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특히 2015년 UNESCO에서 발간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EFA GMR》에 따르면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 수가 2000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학교에 등록한 아동 수도 약 3,400만 명 증가하였다.

: 초등학교 등록률 향상

초등교육은 기본적인 문해력 향상 및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초등교육 접근성에 대한 불평등이 만연해 왔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초등교육 기회 불평등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각국 교육 관

계자 · 국제기구 ·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이행 방안을 통하여 초등교육 기회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초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행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학비 제도를 폐지하고, 무상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학비 제도 폐지를 위해 많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한 결과 2000년 이후 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15개 국가에서 초등교육 학비 제도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3)]

두 번째로 급식 제공 및 현금 지원 등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간접비용(교복 구입 비용, 교통비, 시험 응시료, 급식비 등)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사회보호 프로그램 중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급식 지원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169개 국가에서 3억 6,800만 명의 아동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방법은 아동의 중퇴율 및 결석률을 낮추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또한 급식 제공은 아동의 건강을 지키는 한편, 등록률과 출석률 증대 및 향후 유지 가능성을 높여 준다.[4)]

마지막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과 같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초등교육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2000년 이후 학교 및 교실 건축은 앞서 언급한 학비 제도 폐지 및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함께 초등학교 등록률을 향상시키는 우선적인 실행 방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학교 건물의 유무는 학령기 아동의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실제로 모잠비크에서는 1992년부터 2010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초 · 중등학교 수를 3배로 늘림으로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아동 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5]

이러한 성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양질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고 그저 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아동들의 등록률 향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회의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6]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 건축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가시적 시설 지원이 교육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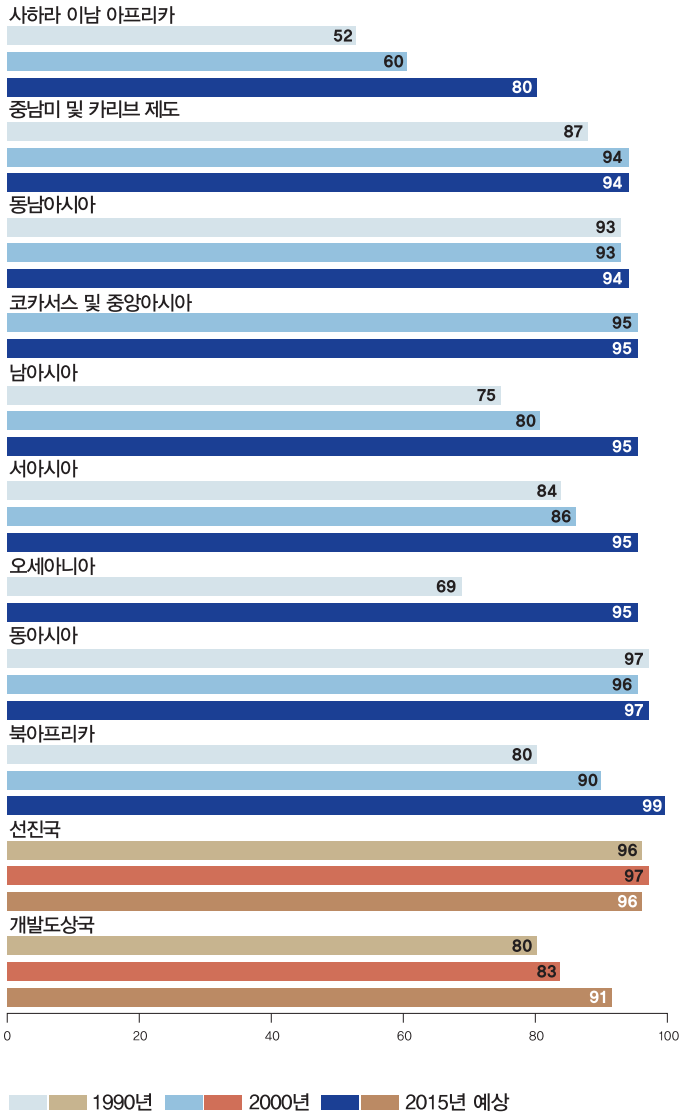
국제사회가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전 세계 초등학교 순 취학률이 2000년 83%에서 2015년 91%까지 높아졌고, 초등학교 중퇴 학생 수도 2000년 1억 명에서 2015년 5,700만 명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초등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초등학교 순 취학률[8]은 2000년 60%에서 2015년 80%로 20%나 높아졌다. 이는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상승률이 8%에 그쳤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단히 두드러지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9]

: 초등교육 양성 평등 촉진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여성의 교육 연한과 수준이 여성 개인은 물론 국가 · 사회 · 경제적 발전, 그리고 자녀의 생존과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국제교육파트너십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 연한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여성의 소득 수준이 10~20% 상승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개인의 소득 수준 및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10] 하지만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아

초등교육 순 취학률(1990/2000/2015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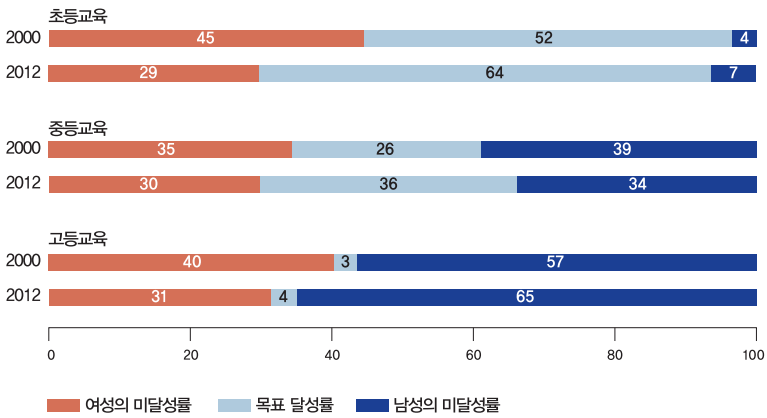
출처: UN(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의 교육 기회 및 교육 접근성 측면에서 성별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양성 불평등은 부유층 아동보다 빈곤층 아동들에게서, 초등교육보다 중등교육에서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양성 불평등 문제는 경제 · 사회 ·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 국가일수록 여아가 남아보다 가사노동 등 아동 노동에 투입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사회 · 문화적으로 조혼 및 청소년기 임신 문제는 여아가 교육을 받고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UNESCO《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현황 보고서EFA GMR》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41개국 20~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30% 이상이 18세 또는 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혼이 만연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혼 관습 근

개발도상국의 초 · 중 · 고등교육 성 평등 지수 현황(2000/2012년)

단위: %



* 위 자료는 초등교육 164개국, 중등교육 148개국, 고등교육 12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출처: UN(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저자 재구성

절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지지 운동, 지역사회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에서는 만연했던 조혼 비율이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20% 이상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학교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학교 및 학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외 지역 학교 건축을 통해 통학 거리를 단축시키고, 여아를 위한 안전하고 분리된 위생 시설을 제공하며, 여아의 출석률 향상과 남녀 차별 없는 학교 환경을 촉진시켰다. 아울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양적 · 질적 개선, 교육 과정과 교과서 내 성별 편견 퇴치 및 개혁, 성인지性認知적 학급 문화 조성, 성별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 근절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초등교육 분야의 성 평등 지수Gender Parity Index, GPI[12]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012년 당시 64%의 국가가 남 · 여학생들에게 공평한 초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1999년 조사에서 성 평등 지수 0.74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던 남아시아가 2015년에는 1.03으로 가장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중 · 고등교육에서는 성 평등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 교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2000년 이후 15년간 국제사회는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교육 기회 및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1억 2,100만 명의 아동들이 초 ·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 · 고등교육에서 성별 간 진학률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 접근성 향상에 집중한 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교육 접근성 향상이 등록률을 높이는 직접적 요소가 된다면, 양질의 교육은 중도 탈락률 및 학교 밖 아동들의 비율을 낮춤으로써 교육의 효과성 및 지속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최근 교육 접근성 및 교육의 질 향상이 강조됨에 따라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이전보다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목표 대상의 범위가 아동에서 성인 및 취약 계층으로까지 넓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 범위도 넓어졌으며,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및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활용 교육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질의 교육 보장

교육의 질은 아동들의 출석률 및 학업 성취도와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교육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 기회 확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질의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는 모든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학습 환경 제공과 더불어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시설 건축 및 관련 기자재 제공 등 기존의 투자와 더불어 방과 후 프로그램과 같은 정규 교육 과정 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 역시 높아졌다.

또한 새로운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에 적절한 교육 연수 및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우수 교원 수급이 포함되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교원 수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이 양질의 교육과 교사의 질적 제고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 왔음에도 불구하고[13], 학생 1인당 교사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2012년 UNESCO가 16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개국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1:40을 넘었고, 이 중 24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원 수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교원 충원 ·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14]

SDGs 세부 목표 4.7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 또는 '국제개발협력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교육 분야이다. 이는 교육과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임을 증명하며 한 개인의 교육 수준이 한 국가의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12년 9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출범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의 3가지 우선 과제(① 모든 어린이의 취학 ② 교육의 질 제고 ③ 글로벌시민의식 함양) 중 하나로 세계시민교육이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NGO인 지구촌나눔운동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YMCA,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굿네이버스 등 많은 기관에서 '전 지구적 관점을 가진 세계시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 및 경제 · 사회개발원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시작된 세계시민교육은 자선 관점에서 기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1990년대로 접어들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고, 이에 영국을 선두로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습과 이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에 MDGs가 채택된 이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관련 교육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학교 현장에 파견되어 교육하는 '학교 파견 교육'이다. 유치원 및 초 · 중 · 고등학교의 정규 교과 시간에 세계화, 빈곤 현상, 인권, 다양성, 환경,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한다. 두 번째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원 연수'이다. 학교 파견 교육의 연장선으로, 교사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시작되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및 청년들의 자주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 및 청년 조직' 활동이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교실에서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지구촌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행동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활용 교육

ICT는 특정 분야가 아닌 한 국가의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ICT의 발달은 교육 분야에서 기존의 전통적 교육 방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교육 체계의 개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ICT 활용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5]

교육 분야에서 ICT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원거리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ICT를 활용하여 교육 시설과 양질의 교사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도 공평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수법 전달, 교사 역량 개발, 교육 관리 체제 증진 또한 ICT 활용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이다.[16] 실제로 2003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컴퓨터를 사용한 학생의 수학 및 읽기 과목 성취도가 사용하지 않은 학생보다 평균적으로 각각 12점과 11점 높게 나타났다.[17]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ICT 활용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CT 활용 교육의 기반시설 개발 및 기술 보급, 교사 역량 개발, 기기 및 시설 유지 · 보수 등을 위한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 마무리하며

2015년 9월, 국제사회의 합의를 통해 국제규범격인 SDGs가 공식 발표됨으로써 향후 15년간 국제교육개발협력의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새롭게 설정된 공동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각국 정상들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다양한 이행 방안과 교육 사업을 개발 · 추진하고 있다. 이에 MDGs 및 EFA 시대를 통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에 실행해 온 교육 접근성 향상 방안들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 이행 방안들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추천 사이트

유네스코 www.unesco.org

SDGs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Beyond 2015 www.beyond2015.org

유네스코 통계연구회 www.uis.unesco.or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KoFid(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www.kofid.org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www.unescoapceiu.org/kor

활동 사례

아프리카 교육에 희망을, 탄자니아 술리 희망학교

탄자니아 참위노 지역의 술리초등학교에는 교실이 2개밖에 없어 한 교실에 150명이나 되는 학생이, 그마저도 지붕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했다. 이러한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의 출석률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6%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2014년에 술리초등학교를 신축하고 급식 및 학생 물품을 추가 지원하는 등 '희망학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출석률 향상과 평등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6칸 및 교사용 화장실 2칸 등 안전하고 분리된 위생 시설을 제공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화장실 1칸당 115명의 학생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했지만, 화장실 건축 후에는 1칸당 40명이 남녀로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선된 위생 환경 덕분에 콜레라 · 설사병 등 수인성 질환의 발병과 전염이 줄었으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학생 수도 줄어 출석률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수준이 되는 등 한층 개선된 환경에서 교육받게 되었고, 평균 출석률도 99%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굿네이버스는 기초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기반시설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희망학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총 10개국에서 희망학교 50곳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 전 학교 모습



사업 후 학교 모습

사진 제공: 굿네이버스

활동 사례

방글라데시 아동에게 꿈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Dream Project'

방글라데시는 사회 · 문화적인 이유로 많은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아동 노동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여아의 수가 전체 여아의 절반 이상(62.8%)을 차지했다. 조혼 및 아동 노동으로 인해 초등학생 중 45%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굿네이버스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및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Dream Project'를 실시하고 있다. 드림 프로젝트는 아동의 리더십을 기르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위원회 활동, 아동 권리 보호 및 중도 탈락률 감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의 및 캠프를 진행하는 청소년위원회 활동, 그리고 자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문해 교육 및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부모 대상 아동 권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회 · 문화적 이유로 공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충 학습을 제공하는 드림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방글라데시 아동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굿네이버스

방글라데시 아동위원회(Child Council) 활동



방글라데시 청소년위원회(Youth Council) 활동

개발협력



아동

: 세계의 빈곤과 아동

전 세계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약 22억 명으로, 이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UNICEF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10억 명이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교육, 보건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5,900만 명이 만 5세가 되기 전에 치료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학교 밖 아동들은 약 1억 5,000만 명이며, 전체 아동의 30%는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1)]

이처럼 아동은 빈곤과 차별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인구 집단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동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47%를 차지한다.[2)] 빈곤은 아동을 보호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 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빈곤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협받거나 폭력, 학대, 착취 등에 방치되기 쉽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아동기의 취약성과 특이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국제개발협력의 최우선 수혜자로 바라본다.

한편 아동은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가진 발전의 주체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들도 성인들과 동일하게 시민의 권리와 정치 · 사회적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을 다져 왔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보편적 인권을 규정했는데, 특히 제25조에서 아동기에 갖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열악해진 아동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어 1989년 UN총회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여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보다 확고하게 마련했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와 보호자에게 종속된 수동적 존재나 자선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넘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UN아동권리협약은 2000년에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와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추가로 채택했으며, 2015년 현재까지 195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정부는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이행 사항을 매 5년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며 ODA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실행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실행의 많은 과정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보장은 여전히 선언에 머물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수혜자로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개

발협력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실천적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에 비친 아동

아동은 전 지구적 빈곤의 현실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미디어 보도에 가장 자주 등장한다. 아동이 분쟁과 빈곤으로 생명을 위협당하거나 굶주림을 겪는 모습, 위험한 노동에 내몰린 모습 등은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아동이 처한 상황을 보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재현방식과 수용자 인식 조사》에서 미디어가 개발도상국 아동과 아동이 처한 빈곤을 바라보는 방식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을 알리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을 주로 등장시키고, 자극적인 이미지를 활용하며, 아동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기 어렵고, 실제로 자신이 처한 전쟁 · 기아 · 재난 등의 상황을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시선으로부터 커다란 혼란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국제개발협력 보도를 위한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권리 침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2014년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KCOC 등이 함께 마련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그 첫 걸음이 되었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3]》에는 언론 종사자 및 NGO 실무자, 기



업의 대외 홍보 담당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과 취재 및 촬영 시 준수 사항, 보도 사진 및 영상의 적합 · 부적합 사례, 취재 전 작성하는 서약서 등이 담겼다. 또한 사진 및 영상 취재, 홍보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급적 촬영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찍을 것',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보도 방향을 명확히 밝힐 것',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을 하고, 그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말 것', '아동과 보호자를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존재로 묘사할 것'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 아동이 겪는 빈곤과 차별

아동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향후 아동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국제사회는 성인기와 다른 아동기의 특이성을 고려해 아동이 처한 빈곤 상황과 이에 대한 대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UNICEF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를 들어 SDGs에서 아동이 처한 빈곤을 우선 해결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한다.[4)]

첫째, 하루 1.25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전 세계 빈곤 인구의 47%가 아동이다. 이는 아동이 겪는 빈곤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전 지구적 빈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아

동기는 인지 발달이 이뤄지고 사회성과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다.

셋째, 아동기에 겪는 질병과 영양실조는 즉각적 사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전 세계에서 하루 1만 7,000명의 5세 미만 아동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

넷째, 아동기의 빈곤은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과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개발도상국 하위 20% 소득 계층에서 나타나는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상위 20% 소득 계층의 2배에 달한다.

다섯째, 전 세계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5,800만 명에 이른다.

여섯째,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한 공공 정책 중에서도 비용 대비 효과성이 특히 높다.

이외에도 아동이 겪는 빈곤을 소득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아동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사회에서 빈곤, 장애, 소속 민족, 성별, 종교, 분쟁 지역에 속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여겨지기 쉽다. 아동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어렵다. 전 세계 아동의 3분의 1은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UNICEF는 매년 5,100만 명에 달하는 신생아들의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5] 이 아이들은 교육이나 기초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보호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성별, 장애, 소수 민족에 속한 아동일수록 출생 등록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아동이 처한 빈곤을 파악할 때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요컨대 아동이 겪는 빈곤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집합적으로 보는 대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더욱 세분화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빈곤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약 42%나 낮아졌고, 영양실조로 인해 발육 지체를 겪는 아동도 3분의 1 이상 줄었다. 그러나 소수 민족 집단에서의 유아사망률 감소는 더디다. 예를 들어 페루 소수 민족인 께추아quechua족의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은 지배 집단인 스페인계 백인 아동보다 1.6배 이상 높고,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 지체도 2배나 많다.[6]

아울러 분쟁 상황에 처한 아동과 난민 아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 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이 분쟁 영향 국가에서 살아간다. UNHCR《세계 연례 난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무장 충돌, 일상화된 폭력, 인권 침해 등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과 이들과 비슷한 사유로 피난을 택했지만 자국 내에 머물러 있는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s을 포함한 전체 난민 수는 매년 3,800만 명 안팎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6,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난민은 2,100만 명 정도였다. 18세 미만 난민 아동의 비중도 함께 늘어 2011년 전체 중 46%에서 2015년 51%로 늘었다.[7] 특히 최근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의 경우처럼 난민으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난민 아동이 겪는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난민 아동은 신체적 ·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기초보건의료 등 공공 서비스에도 접근하기 어렵다. 아동기에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른바 '잃

어버린 세대'로 전락하기 쉽고,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난민 아동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아동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구 집단인 반면 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성별, 소수 민족, 종교, 장애 등으로 사회적 배제를 겪는 아동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기 쉽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이 속한 사회의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정작 그 정부에 의해 차별당한다는 점에서 문제 대처가 쉽지 않다.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동 빈곤과 사회적 배제, 차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앞서 살펴보았듯 국제사회는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때 아동 권리에 대한 선언적 목표를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려면 이를 적절하게 이끌 정책, 실행 구조, 프로그램, 그리고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을 국제개발협력의 수혜자 혹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에 아동인지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아동인지적 관점'이란 개발협력의 정책 수립 · 사업 기획 · 조사 · 실행 ·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생애 주기를 고려하며, 아동기 특유의 취약성과 필요 needs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보건 등 아동을 주요 수혜자로 하는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면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캐나다의 정부원조기관인 CIDA는 아동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사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관점의 변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아동인지적 관점의 필요와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

아동과 함께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얻은 교훈

캐나다의 정부원조기관인 CIDA는 국제개발협력 기관들이 수십 년 동안 시행해 온 아동 관련 사업의 교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아동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 강화를 권고했다.[8]

- 아동을 단순히 수혜자 혹은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낮아진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아동이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아동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아동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오히려 아동들은 자신들을 눈에 덜 띄게 만드는 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해고를 두려워하는 미성년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거나 야학 등 교육 기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 많은 개발 사업이 역경을 이겨내는 아동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은 특유의 회복력을 갖고 이를 이겨낸다.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아동이야말로 가장 탄력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는 재난을 당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
-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혜택은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소외시킬 수 있다. 1990년대에 펼친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인해 전체 대상 아동의 80%가 혜택을 받았지만, 나머지 20%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 민족, 젠더gender, 장애 여부, 빈곤 등 아동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 교육, 보건, 영양, 주거 환경 개선, 소득 개선과 같은 특정 분야의 사업만으로는 아동의 필요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기초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동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부족하다. 아동을 학대, 착취, 차별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이 모든 분야의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파트너 국가의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정책 대화를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현지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범죄에 연루된 아동이나 성적 착취로 피해 입은 아동들에 대한 현지의 부정적 시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UN아동권리협약은 범죄에 연루된 아동이 제 나이와 성숙도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 이런 경우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이 정부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
- 성인을 주요 수혜자로 한 개발 사업이 아동에게도 당연히 이로울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분쟁 영향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아동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될 경우에 아동들은 놀이 공간을 빼앗긴다. 오랜 분쟁 기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좁은 장소에 갇혀 지낸 아동들에게 동네에서의 놀이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아동은 하나의 동질 집단이 아니다. 많은 개발협력 사업이 영유아에게 관심을 집

중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12~17세 아동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기 쉽다. 이 시기는 성인기로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며, 이미 많은 아동이 생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연령대의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성인기를 준비하도록 돕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노력

최근에는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 · 방임 · 착취 · 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주로 분쟁과 재난에 대처하는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 아동이 처할 수 있는 위협을 주목해 왔다. 특히 UN 평화유지군에 의한 아동 성폭행과 성 착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2016년 3월 UN안전보장이사회는 UN 평화유지군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같은 성범죄와는 별도로 국제개발 사업 과정에서도 아동들에게 의도적인 혹은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이뤄지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사회 보호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사건의 예방과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역에 따라 아동 보호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므로 사업 과정 중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아동 권리 침해가 일어나거나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의한 아동 권리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실례로 조혼과 조기 임신이 흔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현지 직원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결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지역개발 활동이 마을 단위에서 주민 및 아동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될 때 이와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계 소득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성들에게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그 결과 소득은 향상되었으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아동들이 예상하지 못한 위협에 노출된 바 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혼자 집에 남겨진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한 단체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포럼에서 아동을 직접 발표자로 세웠다. 이는 아동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좋은 시도였으나, 결국 예기치 않은 사고를 불러왔다. 아동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근 도시에 머무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을 도왔는데,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 아동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가 사업 진행 중 아동 학대 사례를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간혹 활동가를 신뢰한 아동이 비밀을 지켜 줄 것을 부탁하며 자신이 경험한 폭력과 학대를 털어놓을 때가 있다. 이때 활동가는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닐지라도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을 현지 아동 보호 체계에 따라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때에는 지역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인지하여 그 절차를 따르고, 이로 인해 아동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안전한 국제개발협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밝혀내 처벌하는 한편, 부적절하게 기획된 사업과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해 아동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Keeping Children Safe라는 연대를 구성하고, 세이프가드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기준은 아동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Do No Harm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아동과 함께 일하는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여 아동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추천 도서

안나와디의 아이들(성장과 발전의 인간적 대가에 대하여)

캐서린 부 지음 | 반비 | 2013년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저자가 경험한 인도의 뭄바이 빈민촌 이야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과 이행 방법(국문 번역본)

Keeping Children Safe 발행 | KCOC 번역 | 2016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KCOC 발행 | 2014년

• 추천 영화

뷰티풀 라이(원제 The Good Lie)

필리프 팔라르도 감독 | 2014년

1987년 수단 내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동들이 케냐의 난민촌으로 피난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다룬 실화

활동 사례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가족 곁입니다." Family First 프로그램[9]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을 원래의 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뒤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재난과 빈곤으로 인해 고아원이 난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의 아동들이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이들 5명 가운데 4명은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10]이다.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약 3만 5,000명에 달하는 '지진해일tsunami 고아'가 발생하면서 고아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제는 재난 이후였다. 고아원이 성행하면서 '가족이 있는 아이들'이 시설로 보내지는 일이 성행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교육시키기 위해 양육권을 포기했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던 문화도 사라졌다. 시설의 존재 자체가 아이를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국 많은 부모들이 시설 입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해외 입양이나 친권 상실 등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손쉬운 선택지를 택하고 말았다.

세이브더칠드런 Family First 프로그램은 2007년 아체 지역에서 지진해일 이후 급증한 고아원 시설에 대해 최초의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이며 시작됐다. 입소 아동이 직접 연구원으로 참여해 본인의 경험을 폭로한 보고서가 공개되자 정부가 공식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201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아원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는 대신, 가족 양육과 대안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 보호 정책의 큰 틀을 바꾸었다.

최초의 성과를 거둔 이후,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바뀐 법과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활동 사례

는 널리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실행 모델이 필요했다. 시설을 일시에 폐쇄하면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바로 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컸기 때문에 입소 아동들의 가족 재결합을 돕는 한편, 고아원의 기능도 바꿔 나갔다. 정부를 도와 '아동 보호 시설 운영 기준'을 만드는 한편 시설 종사자들을 교육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모들을 지원했다. 가족을 다시 찾은 아동들은 부모가 일하는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다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아원이 아동 보호 센터 성격을 띠기 시작하면서 현지 사정에 적합한 아동 보호 센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 30여 개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현지 대학과 협력하여 사회복지 교육 과정을 개선했다. 이처럼 인력 양성에 힘을 쏟은 결과, 2015년 기준 200여 개의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직접 교육을 실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UNICEF는 한쪽 부모가 생존한 아이들까지도 '고아' 범주에 포함하여 긴급한 보호 대상으로 파악하는데, 개발도상국에서 2005년 기준 1억 3,200만 명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11] 그렇다면 이 아동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고아 범주에 포함된 아동들은 생존한 한쪽 부모와 지내거나 마을 혹은 대가족 안에서 친척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이것이 바로 시설 확산이 아닌 가족과 마을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체계의 확산이 필요한 이유이다.

Family First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의 ODA 지원 사업으로 가능했다. 10년 넘게 진행된 이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에서 성인 23만 명, 아동 19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아동 보호 정책의 큰 틀을 바꾸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인도네시아 정부의 변화는 숫자로 집계할 수 없는 큰 수확이었다.

개발협력

여성과 성 평등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여성과 여아를 위한 평등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의 실현은) 정의 실현과 인권 이슈이기도 하지만, 다른 영역의 발전이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성 평등 달성률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 달성도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여성 리더들이 많은 기업의 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좋습니다. 평화 협상에서 여성의 참여는 협상 결과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여성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보건, 교육, 비차별, 아동 지원 등 주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안 상정률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양성 평등은 모두를 위한 발전을 가능케 합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2014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연설문[1)]

여성, 젠더, 양성 평등 혹은 성 평등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양성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사회 자체가 개발을 통해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정의롭고 이상적인 목표이며, 또한 양성 평등의 실현은 효과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교육, 보건, 경제 활동, 의사 결정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참여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여 여성들이 빈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본 장에서는 개발에 있어 여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과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고통 받는 여성의 현실

여성과 빈곤

개발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빈곤 문제에서 성별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혹은 "빈곤은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Poverty has a Women's Face"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처할 확률이 더 높으며,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양성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가 빈곤에 시달리더라도 경제, 교육, 보건 등 사회 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2] 경제적 측면의 예를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경우 창업이 쉽지 않다. 또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권한이 없거나 제한적이다. 빈곤은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의료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또한 빈곤은 여성이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들게 하

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의 빈곤은 개발에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여성이 빈곤하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여성의 생산성이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빈곤은 곧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3]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늘 마지막에 먹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고,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드는 무급 가사노동에 종사한다.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선택권이 제한된다. 교육의 기회가 적고, 생존을 위해 성적 착취를 강요받기도 한다. 더욱이 이들의 목소리는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도 않는다.[4]

이러한 여성과 여성의 빈곤 문제는 1995년 189개국이 서명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의 첫 번째 목표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문제의 중요도와 시급성이 인정되었다.[5] 또한 2002년 제46차 UN 여성지위위원회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빈곤 근절에 관한 합의 결론Agreed Conclusions에서는 성 평등과 여성권한 강화가 빈곤 근절을 위한 필수적 수단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여성과 경제 참여

여성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가사, 육아, 밭일, 간병 활동과 같은 노동을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 노동 영역에 갇혀 있다.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만일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경우 혹은 이혼 등으로 남편과 헤어질 경우에 혹독한 가난을 겪게 된다. 한편 여성들이 유급 노동을 하더라도 낮은 문해율, 낮

은 수준의 교육, 직무 기술 부족, 사회 · 문화적 장벽 등으로 인해 행상, 식품 가공, 직조織造, 농업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가진 직업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는다.

여성의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는 데에는 문화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구조적 제약도 큰 영향을 끼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이나 전통으로 인해 여성의 토지 소유가 어렵다. 여성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그 규모가 작거나, 토지의 질이 열악하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토지 소유율은 평균 10~2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6] 농사일의 경우에도 여성과 남성은 수확률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여성의 기술 역량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개량된 종자, 비료, 농작 도구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은 이동의 제약 때문에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7]

여성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도 제약이 많다. 전 세계 13억 명의 여성이 공식 금융기관에 계좌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8]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자금의 제약은 여성이 종자, 도구, 비료 등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토지 개선 및 관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 특히 남편이 없는 여성 세대주 Female Headed Households의 경우에는 남성 세대주보다 신용 대출 접근율이 5~1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힘을 갖는 것뿐 아니라 가계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직접적 역할을 한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 내 아동의 영양과 건강 개선 측면에서 여성의 소득을 10달러 증가시키는 것과 남성의 소득을 110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 여성은 수입의 대부분을 아이와 가정

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적은 수입의 증가로도 아동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크다.

여성과 보건

여성의 기대 수명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63.1년, 고소득 국가의 경우 82년으로 나타나 거의 19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1] 개발도상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절반만이 최소 권장 횟수인 4회의 산전 관리를 받는다.[12] 기혼이거나 동거 중인 전 세계 여성 1억 4,000만 명 중 일부는 임신을 원하지 않거나 연기하기를 원하지만 피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13] 2008년 기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2,160만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망한 여성의 수가 4만 7,000명에 이른다. 남미에서는 모성사망의 12%가 낙태로 인한 것이었다.[14] 조혼에 따른 조기 임신도 여성과 여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보건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임산부들은 전문 의료진의 도움 없이 분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2013년에는 약 29만 명의 산모가 임신 및 출산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15] 선진국에서는 출생아 3,700명당 1명의 산모가 사망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출생아 38명당 산모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6]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전문 의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여성의 외부 활동 자체가 차단되어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산악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험난한 산세나 기후(우기 등)로 인해 보건소 등에 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모든 조건이 양호하더라도 가사,

육아, 밭일 등의 이유로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보건 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여성과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크게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과 성적 강요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 여성들은 3명 중 1명꼴로[17] 일생 중 한 번 이상 매를 맞거나 강간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학대를 경험한다. 이런 폭력의 가해자 대다수는 여성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명예살인Honor Killing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권에서 종종 나타나는 악습으로, 여성이 혼외 관계를 맺었거나 혹은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며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것이다.

폭력의 또 다른 종류로는 여성할례가 있다. 여성 성기 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FGM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여성의 성기 일부를 잘라내 성욕의 절제를 강요하는 풍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2억 명의 여성과 여아의 성기 절제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들에서 주로 5세 이하의 여아들에게 행해지고 있는데,[18] 이 지역의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성기 절제의 숫자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19] 여성할례는 주로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되어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소독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여 파상풍 등의 감염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UN에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UN 여성기구UN Women은 조기결혼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부문으로 간주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의 여아들이 18세 이전 아동기에 결혼을 하고,[20] 그중 3분의 1인 약

2억 5,000명은 15세 이전에 결혼한다.[21] 어린 신부Child Brides는 안전한 성관계가 어렵고, 조기 임신과 성병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중 죽음의 공포만큼 여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성폭력에 대한 공포이다.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은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심리적 · 물리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며,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 문화 · 지역사회 전체를 황폐화시킨다. 굴욕감, 불명예, 치욕 등을 안기며 사람들 간 유대를 파괴시킨다.

여성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폭력을 당한 여성을 보호 · 치료하는 등 사후 절차를 강화하는 것,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 가정 폭력 등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되기 위해서는 여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문화와 악습이 변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남녀가 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전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준수 또한 촉구되어야 한다.

여성과 교육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평등 · 발전 ·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22]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되면 가족의 건강 · 영양 ·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도 증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권한 강화가 실현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이러한 교육 기회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전 세계 성인 문맹인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23] 실제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 농촌 여아들 중 23%만이 초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4]

여성의 교육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관습, 빈곤, 지리적 고립, 소수 계층, 장애, 조혼, 임신, 폭력,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학교 시설 부족 등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길이 너무 멀고 으슥하여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크다든지, 가사와 동생의 육아를 책임지게 되면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조혼 풍습과 이에 따른 임신 및 출산으로 여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아가 월경을 시작하면 월경 기간에 결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여아들의 3분의 1이 연간 수업일수 중 20%가량 결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25]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아예 자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교육에서의 성차별은 빈곤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유한 가정의 여아들은 교육 기회를 비교적 수월하게 누리는 반면, 가난한 가정의 여아들은 진학보다 가사 및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여아들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여아가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 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정규 교육 외에 다양한 방법의 비정규 교육을 통해 여성과 여아들이 계속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개발협력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의 변화

여성과 개발을 바라보는 접근법은 크게 복지적 접근Welfare Approach, 개발에서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 젠더와 개발Gender and

Development, GAD 등 세 단계로 변화되어 왔다.[26)]

복지적 접근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복구단체 및 구호단체들이 채택한 방법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서의 전통적 역할, 다시 말해 좋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훈련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가족계획 사업, 아동 보건 증진 사업, 영양 개선 사업 등과 관련된 구호물자와 교육 훈련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여성이 본격적인 관심을 얻게 된 시점은 1970년 이후이다. 1975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1차 UN세계여성대회에서 '개발과 여성'을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WID 접근법이 도입되었는데, 빈곤 퇴치에 있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접근법은 그동안의 개발 담론이 남성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여성이 소외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음에 주목했다. 따라서 여성 또한 개발의 주요 주체로 인식하여 여성의 생산성을 인정하고, 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과 개발 프로그램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이 자본과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조 그룹을 형성하고 여성 인력을 위한 소액 대출,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가정이나 사회 제도적으로 남녀평등이 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가사노동에 새로운 노동 부담을 더하거나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의 저소득 직종에 집중 투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1980년대부터 국제 원조기관들은 GAD 접근법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 접근법은 WID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도전 없이 경제적 수익 창출만 강조한 것을 비판하면서 제기되었다. 어머니와 아내라는 역할에 한정된 WID 정책들은 여성들에게 기존의 성 역할에 충실할 뿐 아니라 새로 부과된 경제적 역할까지 감당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 이에 GAD 접근법에서는 남녀가 생물학적 차이 외에도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 및 성 역할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WID가 여성을 어떻게 개발 영역 안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GAD는 여성과 개발을 수평적 관계에서 어떻게 융합 ·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었다.[27] WID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강화와 수입 증대를 강조했다면, GAD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서 남녀 평등을 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여성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여성 폭력 예방 사업을 예로 들면 WID 접근법이 여성 폭력 예방 교육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GAD 접근법에서는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었다.[28] 또한 GAD 정책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 · 보건 · 농업 자문 지원 등 기존의 개발 정책을 넘어 남녀 불평등 법 체제 정비,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 여성의 정치 참여 강화, 여성단체 육성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베이징여성대회와 성 주류화

1995년에 개최된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에서는 개발에 여성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 세계 여성운동가들의 대대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여성행동강령에서는 양성

평등적 관점이 모든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채택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성 평등이라는 개념이 개발의 전 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성 평등과 개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을 측정하는 방식에서도 성인지性認知적 요소가 포함된 평가 방법이 도입되었다.

성 주류화는 정부의 예산 · 정책 · 통계 산출에 있어서 남녀를 분리하고, 특정한 정책이나 법이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며, 정부의 예산 책정에 있어서도 젠더를 고려해 배분하는 것으로, 성 주류화의 구체적인 도구로는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성인지 통계Gender Statistics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여성을 고려하는 접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접근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첫째, 여성이 수혜자인 사업을 기획해 사업의 혜택이 오직 여성에게만 돌아가게 하는 여성 타깃 접근법Women Targeted Projects으로, 예를 들면 저소득층 마을의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벌이는 소액 대출 사업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영향과 혜택이 여성에게 차별적이지 않도록 기획하는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거나 여성 관련 이슈를 고려한 사업, 또는 성 주류화된 사업이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어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 사업에서 가사와 육아로 인하여 접종을 받으러 오기 힘든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배려하여 접종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이 여성을 고려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제 내에서의 여성과 개발

베이징여성행동강령 채택으로 이후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성이 대대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양성 평등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 직접적 계기는 MDGs에 양성 평등이 독자 목표와 범분야 Cross-Cutting 목표로 채택된 것이었다. MDGs 목표 3번으로 성 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이 설정되었으며, 목표 1 · 2 · 3 · 4번 등의 세부 목표에 성 평등이 포함됨으로써 주류화되었다. 이에 MDGs에서의 성 평등 관련 목표와 세부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 해결에 대한 1번 목표와 관련해서는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모든 지역에서 남녀 고용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9] 특히 여성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로서 48~50%에 그치고 있다.[30]

교육과 관련한 2번 목표에서는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여아의 초등학교 입학률이 79%에서 89%로 증가했고, 중학교 입학률은 67%에서 79%로 증가하였다.[31] 사하라 이남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개선을 보였으나, 초등의무교육 시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의무교육 실시는 아직 요원하다.[32] 여아들이 교육 혜택을 받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빈곤으로 파악되고 있다.[33]

목표 3인 성 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교육은 성 평등 목표에 꾸준히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아시아의 여아들은 교육 수혜에 있어 높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성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34]

목표 4인 유아사망률에 있어서는 큰 개선이 있었다. 하지만 남아시아에서는 여전한 남아 선호로 인해 여아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35] 목표 5인 산모사망률 개선의 경우에는 1990년과 비교해 47% 낮아졌으나,[36] 이 수치는 산모사망률을 4분의 3으로 줄이고자 한 목표에 매우 미달하는 것이다. 목표 6인 HIV/AIDS와 관련해서는 15세부터 24세 미만의 여아들이 같은 연령대의 남아들보다 HIV에 감염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

그간 MDGs에 양성 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다시 말해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이나 여성의 자산 접근권, 여성과 여아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재생산 건강권, 여성의 의사 결정권,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총체적 양성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는 매우 미비한 목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SDGs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목표들이 포함되었다. 총 17개의 SDGs 중 성 평등과 여성권한 강화는 MDGs에서처럼 독자 목표로 설정되었고, 나머지 16개의 목표들에도 양성 평등 요소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독자 목표인 5번에서는 여성 폭력, 조혼, 여성할례가 세부 목표로 채택되어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관련 이슈들이 대대적으로 보완되었다. 또한 토지 소유 및 천연자원으로의 접근도 세부 목표로 설정되어 여성의 자원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추천 도서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시린 에바디, 아자데 모아베니 | 황금나침반 | 2007년

이슬람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이자, 아동과 여성의 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린 에바디의 자서전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

박진경, 이나영, 조영숙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젠더분과 | 2015년

추천 영상

소녀와 여자 (Where am I?: Beyond Girl and Woman)

김효정 감독 | 다큐멘터리 | 2016년 | 한국

아프리카의 여성할례 혹은 여성 성기 절제에 관한 다큐멘터리

말랄라(He Named Me Malala)

데이비스 구겐하임 감독 | 다큐멘터리 | 2015년 | 미국

소녀 교육 활동가 말랄라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

추천 사이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cidc.kwdi.re.kr/kr/index.jsp

UN 여성기구 www.unwomen.org

SDGs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플랜 인터내셔널의 소녀 인권 강화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plan-international.org/because-i-am-a-girl

활동 사례

말랄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37]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파키스탄 출신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997년 파키스탄 북서부 지방인 스와트Swat 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지아유딘 유사프자이Ziauddin Yousafzai는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교장 선생으로,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탈레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말랄라는 아버지를 닮아 배우는 것을 좋아했으며, 학교에 가는 것도 즐거워했다. 2009년 탈레반이 스와트 주의 지배력을 강화하자 말랄라는 BBC 우르두 어 사이트 블로그에 학교가 습격을 당할 위험성과 탈레반 활동에 대해 게재하기 시작했다.

탈레반 점령 아래 이 지역은 음악이 금지되고, 여성들의 쇼핑이 금지되었으며, 말랄라 아버지의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랄라와 그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말랄라는 뉴욕타임즈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BBC 블로그 저자임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말랄라는 교육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의 공로로 2011년 파키스탄 청소년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남아프리카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주교에 의해 국제아동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말랄라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탈레반 지도층은 말랄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2012년 10월 9일, 말랄라와 친구들이 등교하기 위해 탄 스쿨버스에 얼굴을 가린 탈레반 무장대원이 침입해 말랄라에게 총을 쏘았다. 총알은 그녀의 이마에 박혔고, 목과 어깨에도 관통상을 입혔다. 그녀의 친

구 두 명도 부상을 입었다. 당장 생명은 구했지만 심각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말랄라는 영국 버밍햄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였고, 영국으로 날아온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말랄라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탈레반의 만행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파키스탄에서는 여성 교육권 운동이 일어나 200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제출되었고, 파키스탄 국회는 교육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말랄라는 사회적, 경제적, 법적, 정치적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녀들을 위한 국제적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13년 말랄라와 아버지는 말랄라 펀드Malala Fund를 설립하여 소녀들의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말랄라는 아동 억압에 대한 저항 및 교육권 획득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말랄라는 상금 1,100만 달러를 파키스탄 소녀들의 중등교육을 위해 기부하였다. 말랄라는 현재 자신의 NGO를 통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시리아 난민 캠프, 케냐, 시에라리온에서 여아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Malala Fund 사이트



말랄라 유사프자이

개발협력

보건

: 건강Health, 그리고 국제보건Global Health이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건강한 삶이라는 말에 저마다 떠올리는 바가 다를 것이다. 누구는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또한 누군가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몸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감정과 사고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 등을 건강한 삶이라 생각할 것이다. 1948년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정의들을 포괄하여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라고 정의[1] 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2]

이 정의를 개인이 아닌 공공에 적용한 것이 바로 공중보건Public Health이라는 개념이고, 한 사회나 공동체를 넘어 다른 공동체, 크게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것이 국제보건Global Health이다.

국제보건의 시작은 멀리 식민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열대 질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었던 지배자들은 열대 질병에 걸리지 않

고 식민지를 개척 · 통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더불어 식민지 노동자가 건강하게 계속 일하도록 만드는 것도 주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훗날 국제보건의 시초가 된 열대의학Tropical Medicine으로, 열대의학을 통해 말라리아 치료약인 퀴닌quinine을 발견하거나 비타민 C로 괴혈병을 치료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제보건International Health이 대두되었으며, 열대의학에 인류학, 국제개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임이 확립[3]되었고, 1978년 카자흐스탄 알마아타Alma-Ata에서는 인간의 건강권을 실현하고자 'Health for all by 2000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선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를 실현 도구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이후 현재까지도 알마아타선언과 일차보건의료의 실천이 국제보건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화, 도시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변화로 인해 보건 문제들이 국경을 초월하게 되었다. 메르스 · HIV/AIDS · 에볼라와 같은 감염병 등이 그 예로, 모두가 건강한 세계를 이루기 위한 더 많은 협업이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보건을 뛰어넘어 광의의 국제보건Global Health이 대두되었다.

: 공중보건, 모두의 건강을 위한 노력

질병이 없는 상태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건강의 정의를 다시 짚어보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학이나 과학의 발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의 비교

구분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목적	질병의 예방, 수명의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률의 향상
대상	개인, 가족	지역사회 (주민)
내용	질병 예방, 건강 증진	건강하지 못한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인 제거, 집단건강 향상 도모
책임소재	개인, 가족	공공조직
진단방법	임상적 진단	보건 통계 자료 (유아사망률, 사망률, 질병이환율 등)
연구방법	기술적이며 구체적	예방의학적 지식을 집단에 적용
문제해결	진료와 투약	보건교육, 환경 위생, 영양 관리

출처: 이한기 외(2013), 《공중보건학(제3판)》, 현문사

공중보건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만한 사회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공중보건을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윈슬로Winslow라는 학자는 공중보건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자, 또한 예방의학을 "개인 차원이 아닌 인구 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리하자면 공중보건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WHO에 따르면 이렇게 조직된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할 다섯 가지 분야는 ① 환경 위생 ② 전염병(감염병)의 관리 ③ 개인위생 등의 개별 보건교육 ④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조직(의료 및 간호 봉사 조직화) ⑤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삶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발전이다.

공중보건 안에는 환경보건, 산업보건, 보건 교육, 보건 행정, 보건 경제, 감염병 관리, 만성병 관리, 역학, 보건 통계, 모자보건, 영양, 응급 의료, 정신보건, 재활보건, 노인보건 등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국제보건은 이런 개념들을 전 세계에 적용한 것으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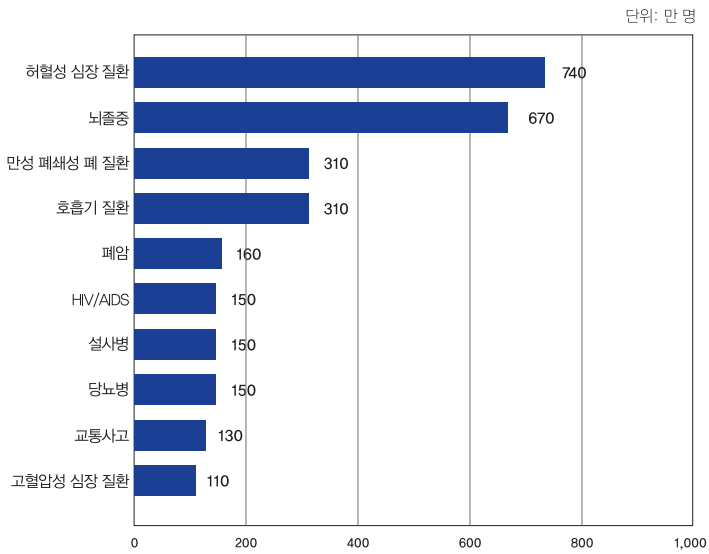
: 오늘날의 국제보건 현황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 혹은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WHO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망 요인은 허혈虛血성 심장 질환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 질환, 호흡기 질환, 폐암, HIV/AIDS, 설사병, 당뇨병, 교통사고, 고혈압성 심장 질환 순이었다.[4]

하지만 개발도상국만 따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호흡기 질환이 가장 큰 사인이며, 뒤를 이어 HIV/AIDS, 설사병, 뇌졸중, 허혈성 심장 질환, 말라리아, 조산 및 출산 합병증, 결핵, 분만 시 질식 혹은 외상, 단백질 결핍에 의한 영양실조 순이었다.[5] 만성 질환보다는 감염성 질환이 만연했으며, 임신과 출산 시 일어나는 문제들이나 영양실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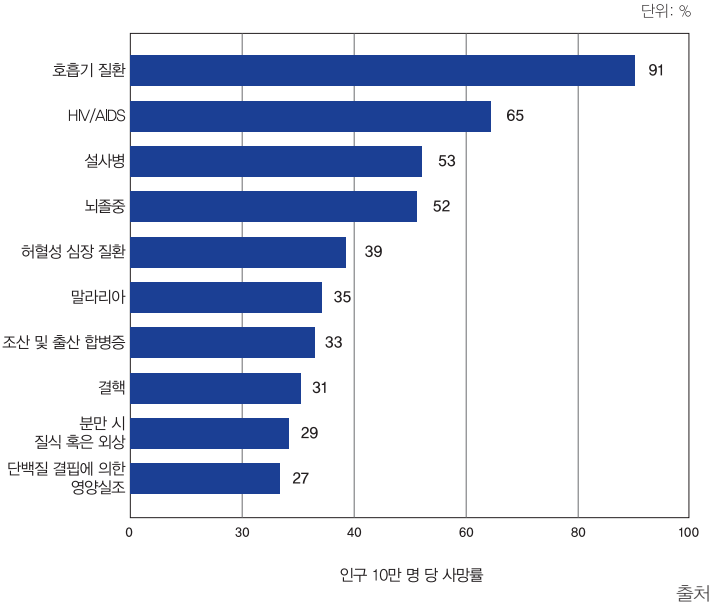
영양실조는 빈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모성보건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 보건 체계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감염성 질환이 만연하는 것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 역량, 생태학적 환경, 빈곤 등이 다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다.

전 세계 10대 사망 요인(2012년)



출처: WHO

저소득 국가 10대 사망 원인(2012년)



출처: WHO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말 그대로 개발 중인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염병 등은 생태학적 특성, 국가 보건 체계의 능력과 재원 부족 등으로 말미암은 현상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 MDGs에서의 보건

MDGs 달성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의 국제개발협력 목표였던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은 교육 분야와 함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보건과 관련한 목표는 전체 8개 목표 중 3개의 주요 목표(목표 4. 유아사망률 감소, 5. 산모 건강의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를 중심으로 목표 1.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영양),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식수 위생),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필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MDGs 전반에 거쳐 설정되었고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과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증진은 그 목표를 달성했다. 아울러 1990년 이래 유아사망률은 49%, 산모사망률은 44%가 감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6)]

반면 개발도상국의 일부 국가들은 건강 및 질병 이슈 해결에만 집중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 시도보다는 단일적 접근시도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점은 전 세계인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아울러 기초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전 세계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전체적인 목표는 달성했으나 이를 대륙별, 국가별 달성도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륙이나 국가 간에 건강 불평등이 여전히 크게 존재함을 보여 준다.

: SDGs에서의 보건

SDGs는 MDGs 이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가 함께 집중해야 할 이슈들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보건과 관련해서는 1개의 주요 목표(목표 3.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가 9개의 세부 목표와 4개의 세부 실행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MDGs에 비해 대상과 주제 면에서 보다 넓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 목표가 나머지 SDGs들과도 직간접적으로 뚜렷한 연계를 가짐으로써 SDGs의 주요 방향성 중 하나인 통합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SDGs 시대에는 MDGs에서 집중하던 5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사망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되, 청소년과 산모 외의 남녀 성인, 다시 말해 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만이 아닌 선진국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로 세부 목표 내에 '보편적 건강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7]'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MDGs에서 두드러졌던 감염성 질병 해결 노력 외에도 심혈관 질병,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병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 NCDs과 트라코마, 주혈흡충증 등 소외 열대 질병Neglected Tropical Disease, NTDs의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세부 목표에서는 생식보건, 정신보건, 흡연, 마약과 알코올 등의 약물 남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 환경오염 등의 유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과 의료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어 보건 분야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요소를 모두 충실히 고려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끝으로 SDGs가 지향하는 권리 기반 접근에 발맞춰 보건 분야 역시 건강권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사람들의 기본 권리로 인식하고, 그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MDGs에서 두드러졌던 국가 및 대륙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 '살아남는 것' 이상의 '건강한 삶'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는 당장 죽음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 · 치료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만성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계 질병 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준다. 1990년,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머레이Christopher Murray는 죽음, 300여 개의 질병, 장애, 상해 등으로 잃어버릴 시간을 연year 단위로 계산한 장애보정수명Disability-Adjusted Life Year, DALY 개념을 도입했다. 각 질병, 장애, 상해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생물학적인 부담burden이 다르기 때문에 인류의 건강에 가장 심각한 부담을 준 요인을 꼽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WHO 등을 필두로 이어져 오고 있다.[9)]

장애보정수명은 보통 사람에 비해 각 질병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충분히 삶을 누리지 못하거나 사망에 이르러 잃어버린 세월들을 말한다. 1990년부터 2013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장애보정수명은 26.7% 감소했으며, 앞서 언급한 사망률과 동일하게 감염성 질환, 모성 관련 질환, 신생아 질환,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인류의 부담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시대별 · 국가별 양상은 사회경제학적 환경의 개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10] 흥미로운 점은 2012년 장애보정수명의 경우에는 가장 큰 사망 원인이기도 했던 심혈관 질환, 하기도 감염 Respiratory Infection, 폐기관지 관련 질환(폐암 포함), 심장 질환, 뇌졸중, 조산, 설사병에 이어 목과 어깨의 통증, 교통사고가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는 점이다.[11]

이처럼 국제보건의 주요 이슈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지금도 그 양상은 사회경제학적, 환경생태학적, 개인적, 의학적, 심지어 정치적 요소들로 인해 변하고 있다.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아동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요인들로 인해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함께 이뤄 간다는 관점 또한 중요하다. 이에 국제기구, 정부, 주민, 보건의료인, NGO, 학계의 협업이 지금까지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긴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MDGs에서 SDGs로의 변화는 국제보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활동 사례

주민의 목소리와 정책 이행의 협력을 통해 건강권을 지키다.
Citizen Voice and Action



사진 제공: 월드비전

튜뷸 보건소 전경

동아프리카 우간다의 소로티Soroti 지역 주민들의 입가에 함박웃음이 피어난다. 정부로부터 마을에 있는 튜뷸Tubur 보건소의 보건 인력을 지금의 2배로 충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약 1년 전쯤 소로티 지역 주민들은 마을의 오랜 파트너인 월드비전과의 워크숍을 통해 건강권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마을 대표들이 모여 건강권 실현을 위한 주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우간다의 보건 정책과 표준 보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튜뷸 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무엇인지, 튜뷸 보건소가 정책에 비해 실제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5명인 튜뷸 보건소의 보건 인력이 최소 17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설문을 실시했는데, 역시나 보건소가 너무 적은 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용해도 제공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월드비전이 소로티에서 개최한 아동보건캠페인Child Health Now 이벤트에 지역 보건부 관계자를 초청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튜뷸 보건소의 보건 인력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지역 보건부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로도 주민위원회는 튜뷸 보건소의 보건 인력 확충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역 보건부 관계자에게 문서를 전달했다. 또한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고 개선된 정책을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보건부는 주민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튜뷸 보건소에 보건 인력 5명을 추가로 배치해 주기로 약속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전달하기 시작한 지 1년 여 만에 맛보게 된 큰 보람이었다.



자녀 영양 교육에 참여한 어머니들

개발협력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지난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1가 열렸다. 전 세계 195개국이 참여하여 2주간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 체제[1]를 대체하는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이 합의문은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몇몇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신기후체제는 전 세계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용하는 새로운 체제이다.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물으면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에 있어 선진국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등의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이행 및 점검 체계 구축을 주장하였다.

또한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가 넘지 않도록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목표 달성에 있어서 국가별 다양한 여건과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도록 했다.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슈이며, 동시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을 통해 각국의 자발적 의무이자 전 세계의 통합적 의무가 되었다. 실제로 2015년 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도달해야 할 새로운 발전 목표로 발표한 SDGs의 17개 목표 중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등 5개 이상의 목표가 기후변화,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절에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관련 문제를 알아보고, 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기후변화와 그 원인

우리는 기상(날씨)과 기후를 때때로 혼동한다. 일반적으로 '기상(날씨)'은 매일 경험하는 일정 시각과 지점에서의 기온 · 비 · 바람 등의 대기 상태를 말하며, '기후'는 장기간(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에 걸친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장기간 동안 자연적 요인과 더불어 인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말한다.

최근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 기후변화의 원인은 크게 자연

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인간 행위에 의한 인위적 요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자연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기후를 변화시키는 자연적 요인으로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화산재나 미세먼지 등이 있다. 화산재나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 있으면서 태양복사를 차단해 기온이 낮아지기도 한다. 또한 기후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기권, 수권, 빙氷권, 지권, 생물권이 상호 작용[2]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인위적 요인으로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원)의 사용량 증대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 등이 대기 중에 머물며 막을 형성하는 에어로졸 효과 등이 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증가와 미세먼지의 에어로졸 효과는 지구가 태양에게서 받은 에너지 중 일부를 대기 밖으로 반사하면서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를 유지하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또한 도시화 · 산업화에 따른 과도한 토지 이용이 토지 피복의 변화, 산림 파괴 등으로 이어지며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지구온난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후변화의 대부분은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어떤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더운 여름이 더 길어지며, 폭우가 내리는 횟수가 증가하고, 산불이 빈번해지는 것도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증가는 급속한 서식지 변화를 초래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연적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하며, 온

난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폭우와 가뭄은 식량 부족을 초래한다.[3)]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극지방, 도서국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대형 삼각주, 아프리카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기후변화의 결과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할 주민의 역량이 부족하여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 일부 지역은 두 가지 문제에 모두 해당되어 한층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온난화의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왔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기준 미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 수준으로, 이는 150개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26억 명의 인구가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4)]이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에 끼친 막대한 영향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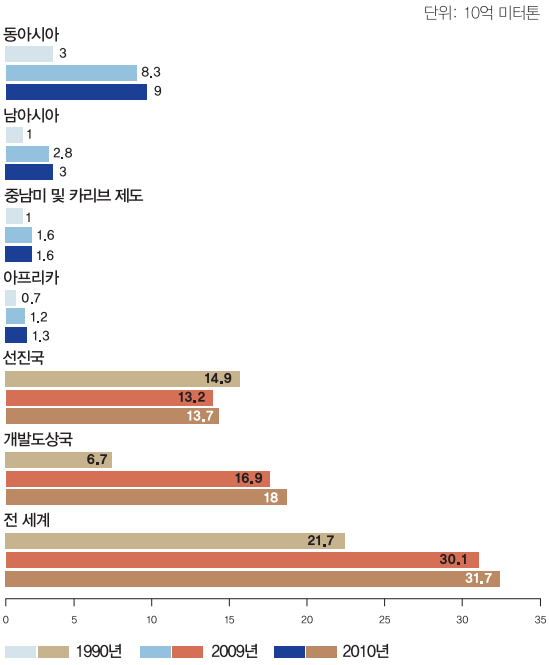
이제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협력적 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0년과 비교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6% 증가했으며, 20년 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0년 사이 10%,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2014년에 발표된 MDGs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의 유력한 요인으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 증가한 것에 반해 개발도상국 배출량은 7% 증가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48%, 2000년에서 2010년까지 81%

증가했는데,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7%,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본다면 여전히 선진국의 수치가 개발도상국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지구온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그동안 선진국 중심의 책임과 노력이 요구되었고, 여전히 선진국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이제는 뒤이어 산업화를 진행하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온난화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09/2010년)



출처: UN MDGs 보고서 한국위원회(2013), 《UN MDGs 보고서 2013~2014 한국어판》

: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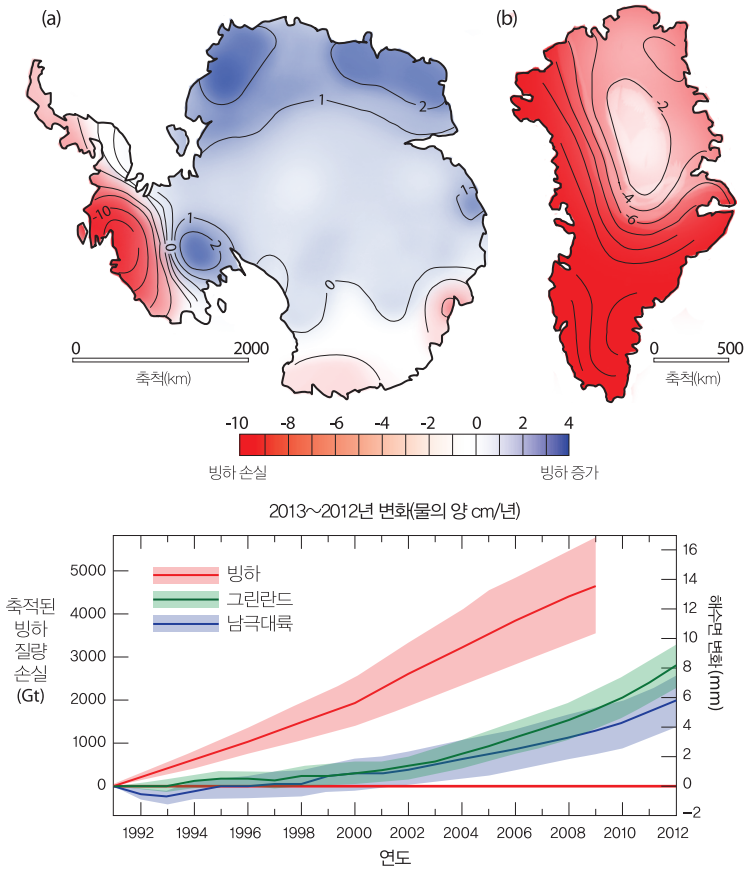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극해에서 얼음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실무그룹은 제5차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1980년부터 2008년 사이 북극해 해빙海氷의 겨울철 평균 두께가 1.3~2.3m 감소[6]했고, 총 부피(질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7년 여름, 북극은 단 일주일 만에 영국의 두 배 면적에 달하는 빙하를 잃었고, 이로 인해 남극대륙 서부와 그린란드에서 발생한 급속한 빙상氷床 붕괴가 세계의 해수면을 높여 바다 연안 지역과 도서들을 위협했다.[7]

빙하의 감소는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도서와 도시 침수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많은 도서국들의 도시와 토지가 물에 잠기게 된다. 이에 해수면 상승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대서양 군소도서 국가들은 군소도서 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을 만들어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소도서 국가연합은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절감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쿠웨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미국 및 호주와 같은 탄소 대량 소비 국가의 반대로 힘을 얻지 못했다.[8] 군소도서 국가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고 빠르게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3~2012년 남극대륙(a)과 그린란드(b)의 빙하 손실 분포



출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2013), 《기후변화 2013 – 과학적 근거》 기상청 번역본

온난화로 사라져 가는 투발루 섬과 기후난민

하와이와 호주 사이에 위치해 있는 투발루Tuvalu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서국가 중 하나이다. 이곳은 26㎢ 면적에 1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 작고 평화로운 섬이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 전체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다. 투발루 섬에서 가장 높은 지대는 해발 5m에 불과하며, 나머지 지역은 그보다 훨씬 낮다.

뉴질랜드는 노동 입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투발루 국민들의 이민 할당량을 매년 75명으로 늘렸다. 또한 오랜 협상 끝에 만일 투발루 섬이 침몰한다면 1만 1,600명의 피난민을 수용할 것에 합의했다.

투발루의 수상인 사우파투 소포앙가는 지난 2005년 "인공적인 온실효과 유발 가스의 대부분은 북미,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큰 국가들에서 배출하고 있다. 그들과 비교하면 투발루의 온실효과 유발 가스 배출량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향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투발루의 아홉 개 섬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바다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투발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출처: Corbis

투발루 섬의 모습

투발루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사람이 거주할 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곳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빙설의 해빙解氷 · 가뭄 · 계절풍 체계 이상으로 인한 극심한 지역적 기후변화, 열대성 저기압(태풍)의 위력 증대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방글라데시 등)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들을 기후난민이라 부른다.

문제는 기후난민들이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이전보다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가이다. 현실적으로 기후난민들은 다른 먼 곳의 안전한 국가로 이주하지 못하

고 유사한 환경 문제에 직면한 인접 국가에 자리를 잡거나 혹은 난민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향후 증가할지도 모를 기후난민에 무관심하거나 도외시하는 국제사회의 모습은 인도주의 결핍과 함께 국경 관련 문제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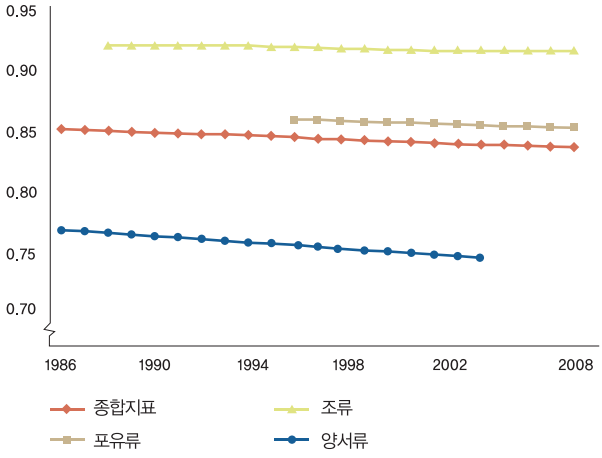
: 생태계 영향

생물의 다양성이 상실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이 있다. 과학자들은 과거 열대우림의 절반을 잃어버림으로써 산림에 깃들어 사는 종의 약 15%를 잃었다고 추정한다. 특별한 동식물 종들을 과도하게 포획하거나 수확하는 것 또한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아울러 유독성 화학물질, 과도한 자외선 방출, 산성비에 의한 산성화 등도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오늘날 생물 종의 상실 속도는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보다 1,000배 정도 빠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9)]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과 협력기관들은 멸종 위기 동물들의 추세를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의 포유류(4,500종), 조류(10,000종), 양서류(5,700종)를 조사해 Red List Index를 만들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각 생물 종들의 개체수와 서식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점차 멸종으로 치닫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시된 표는 세 가지 종의 멸종에 대한 평균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양서류는 개체 수가 위험 수준이고, 더욱이 감소 추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다

멸종 위기종에 대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Red Index



출처: UN MDGs 보고서 한국위원회(2011), 《UN MDGs 보고서 2011 한국어판》

- 추가적 보존 행위 없이 가까운 미래에 잔존할 수 있는 포유류(1996~2008년), 조류(1988~2008년), 양서류(1986~2004년), 종합지표(1986~2008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Red Index가 0인 경우는 해당 종이 멸종했음을 의미하고, 1.0인 경우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멸종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을 의미함.

른 종들도 함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이 지표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종류의 생물 종도 비슷한 추세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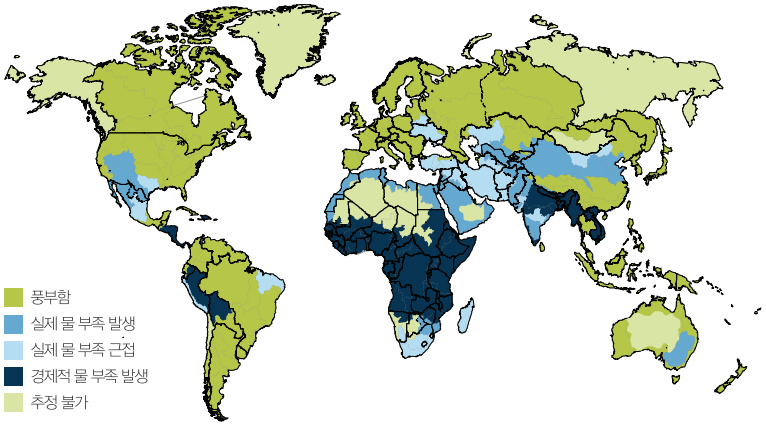
: 물 부족 문제

물 관련 시스템은 어떠한 자연환경보다 인간 활동에 의해 더 많이 파괴되어 왔다. 또한 물 부족은 환경 파괴와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으로 악화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세기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한 반면 물 사용량은 6배나 늘었고 그 증가세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11] 물 부족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처

리되지 않은 생활하수 및 폐수, 농촌과 도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오염 물질까지 자연적인 물길들을 훼손하고 있다.[12] 비록 전 세계가 모두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약 28억 명이 하천 유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2억 명 이상은 유량이 75% 이상 줄어드는 시기에 직접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며, 중국이나 인도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 내에서도 발생한다.

또 다른 16억 명은 경제적 물 부족을 겪는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충분한 환경임에도 사람이나 기관 혹은 재정적인 이유로 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물과 관련한 사회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장단기 가뭄에 취약한 경우, 농어촌 거주자의 지속적인 물

실제 물 부족 및 경제적 물 부족
(Global physical and economic water scarcity)



출처: UNESCO(2012), 《Managing Water under Uncertainty and Risk》

공급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식수의 품질이 열악한 경우 등도 경제적 물 부족 현상에 포함된다.[13]

물 부족과 함께 앞서 거론된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 빙하 감소 및 해수면 상승 ·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이 주요 환경 문제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외에 산림 파괴 · 오존층 파괴 · 산성비 · 사막화 · 유독성 오염 물질 등도 주목해야 할 환경 위협이 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처음 세계적 정책의제로 제기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의 보고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노르웨이의 그로 브른틀란트 수상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이 위원회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경제 발전 방식과 정책 결정 패러다임에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세계 각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1987년 UN총회에 제출되어 UN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승인되었다. 브른틀란트 위원장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 공동 대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환경 문제의 당사자를 오염이 발생한 국가 및 인접 피해 국가로 한정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세계의 모든 국가가 환경 파괴에 책임이 있고, 결국 이로 인해 모두가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자는 비단 현지 벌목 기업, 개발 기업, 브라질 정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국적 기업을 비롯하여 부유한 소비자부터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동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오랫동안 냉매로 사용해 온 것은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이었지만, 정작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것은 호주 · 뉴질랜드 · 칠레 등 남반구의 국가들이었던 것처럼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대응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거나 혹은 파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발전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인류의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은 서구 선진국의 정치적 의제일 뿐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상황에서 생태계 보호를 우선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것이 서구 중산층의 관점이라면, 개발도상국은 생태계가 다소 파괴되더라도 현재의 심각한 가난과 기근으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선진국이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묘한 무역 보호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에서 생산된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겉으로는 환경 보

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개발도상국의 수입품으로부터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삶을 함께 향상시키는 사회 · 경제 발전 논리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 경제적 체제 속에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론이 모두의 공감을 얻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과 생태계 보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처해 있는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는 측면도 있다. 경제 발전을 통해 선진국에 도달한 유럽과 북미의 국가들은 이미 발전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무시한 채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고 단순한 환경 보호만을 주장한다면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국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미국 시민과 에티오피아의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국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라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책임의 불평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이 주는 혜택의 불균형도 지적할 수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1990년대 말에 이르러 많은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시민환경단체 등을 중심으

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 방향 전환의 정점이 된 것은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였다. '요하네스버그 회의'로도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열쇠임을 천명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빈민의 식수와 생활 하수의 위생적 공급 및 처리를 설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경작권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임을 인정했다.[14] 이처럼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히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던 과거의 수준을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관된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미래에 더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인이 협력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 추천 도서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슈테판 람슈토르프, 한스 요아힘 셸른후버 지음 | 도솔 | 2007년

'미쳐 보이는' 기후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예측을 설명한 책

지구와 환경(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제임스 구스티브 스페스, 피터 헤스 지음 | 명인문화사 | 2009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환경법 및 환경조약 등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책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

필리프 스콰르조니 지음 | 다른 | 2015년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읽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수록한 책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지도로 보는 환경문제의 모든 것)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지음 | 한겨레출판사 | 2011년

지구촌 환경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지도'로 나타내 시각적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

• 추천 영상

불편한 진실

데이비스 구겐하임 감독 | 2006년 | 100분 | 미국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앨 고어가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심각한 환경 위기를 알리고자 시작한 강연

북극의 눈물

허태정, 조준묵 감독 | 2009년 | 86분 | 한국

2008년에 방영되어 큰 화제를 몰았던 MBC 다큐멘터리 〈북극의 눈물〉의 극장판.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북극의 자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노 임팩트 맨

로라 가버트, 저스틴 쉐인 | 2010년 | 92분 | 미국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이 가족과 함께 1년간 지구에 무해無害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모래(Sandgrains)

조디 몬테베치, 가브리엘 만리케 감독 | 2013 | 70분 | 영국

거대 기업의 자원 침탈과 환경 파괴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H2O 멕시코

호세 코엔, 로렌조 하게르만 감독 | 2013 | 55분 | 멕시코

여러 계층의 주민 생활에서 멕시코시티의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영화

추천 사이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www.ipcc.ch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실무그룹 기후변화 자료 www.climatechange2013.org

세계기후계획 public.wmo.int/en

UNEP의 기후변화 자료 www.unep.org/themes/climatechange

기상청 기후변화 정보 포털 www.climate.go.kr

환경재단 그린아카이브 greenarchive.kr

숲과 나〈환경 영화 및 교육 자료 제공〉 www.forestandi.org

추천 환경 교육 관련 시설

서울을 포함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NGO 등이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월드컵공원 내)

노원에코센터(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원주기후변화대응 교육센터(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통영 RCE 세자트라숲(경상남도 통영시 용남해안로)

국제기후환경센터 기후변화교육체험관(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낙동강하구에코센터(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자연환경연수원(9개 광역자치단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전, 전남, 전북, 제주, 충북)

개발협력

사회적 경제

제2차 세계 대전 후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성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근대적 개념의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동으로부터 시작된 석유 위기로 인하여 개발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렸던 개발도상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발도상국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IMF의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은 개발도상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으며 심화된 빈부 격차만을 남겼다.

빈곤과 빈부 격차는 가난하다고 알려진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만연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들은 이윤을 향해 무한 질주하는 경제 시스템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유럽에서 태동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개념은 질주하는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으며, 보다 민주적인 경제적 환경과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상생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사회적 경제는 부족한 것을 외부 투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자산을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다. 전통적 개발협력 사업에서 단순 수혜자로 머물렀던 경제적 약자들이 생계지원Livelihood Support 사업을 통해 자산을 늘리고, 경제의 주체로서 소득을 창출Income Generation하는 과정은 사회적 경제 모델의 문제 해결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은 아직 주류는 아니다. 그러나 신뢰 속에 서로를 도와 이익이 되게 하는 호혜互惠적 경제망 위에 비즈니스의 역동성을 얹었을 때, 그 어떤 개발협력 사업보다 높은 효율성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 절에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개발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쳐 보고자 한다.

: 시장을 통한 개발

1960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대다수 개발도상국 정부는 인프라 확장과 산업 발전처럼 '시장market이 견인하는' 근대화 프로젝트를 개발의 전형으로 인식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는 원조성 차관을 포함하여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 원유 가격의 과도한 상승은 비非산유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석유 기반의 산업화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의 외환 보유고는 곧 바닥이 나고 말았다.

급작스러운 산업 환경의 변화는 개발도상국 정부에게 자기 발전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정부는 IMF나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조건으로 자국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사실 장기적으

로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Policies, SAP을 단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시장 만능주의 사고에 기반을 둔다. 이 프로그램의 도입은 국가 산업의 민영화, 농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공공 부문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도록 강요한다. 또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관세를 낮춰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등 개방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시장 자유화 조치는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용역과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1970~1980년대 중남미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강한 타격을 받았으며, 장기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발의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20세기 후반부터 UN, 세계은행,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에 의한 개발 노력은 자연스레 '빈곤 경감'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MDGs는 구체적으로 하루에 1.25달러 미만 소득을 빈곤선 기준으로 제시하며, 2015년까지 이 빈곤선을 탈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언하기에 이른다.

위와 같은 구체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빈곤선 이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 가내수공업, 자영업 등 비공식 경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계지원이야말로 개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1)]

더욱 주목할 것은 생계지원 접근 방법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경제 조직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asset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것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empowerment' 한다는 것이다.

: 사회적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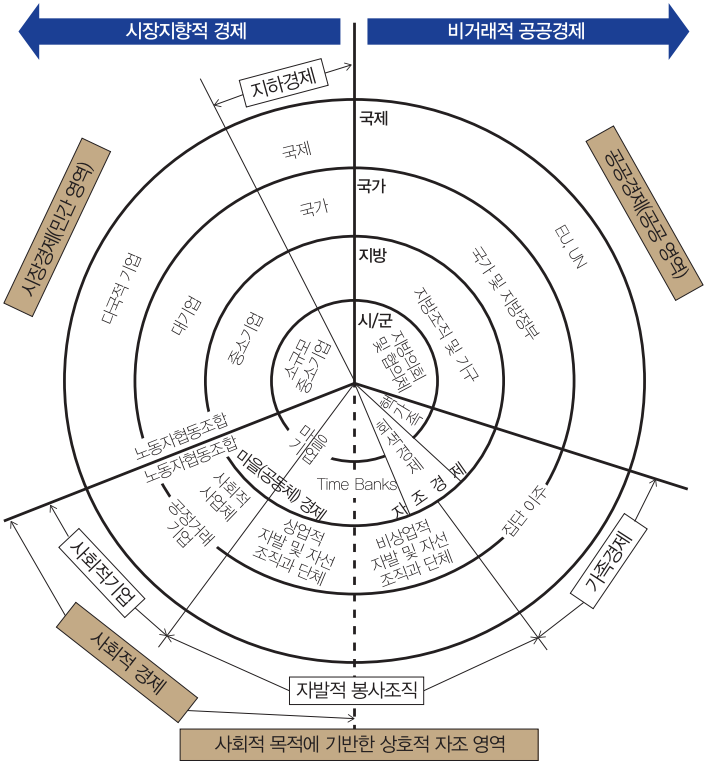
한편 19세기부터 유럽에서 태동된 '사회적 경제' 개념은 1990년대 탈산업화로 인한 고용 위기, 유럽 복지국가의 후퇴로 인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 등의 위기 속에서 다시 주목받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시장경제의 실패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관심을 끌어낸다.

두레, 계, 품앗이 등 한국 전통 농경사회의 상부상조 전통에서도 사회적 경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1980년대에는 농촌 및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신협, 생산자조합, 지역 공동체 설립에 대한 실험들이 이뤄져 자조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후 19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복지'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과 권력을 핵심 차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이라 정의할 수 있다.[2)] 사회적 경제 활동은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1인 1

표의 민주적 경영,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의 우위, 참여의 원칙과 구성원에게 권한 부여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협동조합과 상호 부조 등의 결사체를 포함하며, 주민과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다.[3)]

주요 행위자들로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 기업 · 비영리조직 · 지역개발 협의체 등이 있으며, 이들이 정부 및 기업 등의 활동과 연결망으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사회적 경제라고 지칭할 수 있다.



출처: 장원봉(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 경제의 만남

사회적 경제는 한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친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 과정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장기 실업자, 장애인, 소수 집단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공정무역Fair Trade 등 윤리적 실천을 주도해 기업이 책임 있는 생산에 참여하게 만든다.[4)]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은 사회적 경제의 긍정적 효과에 착안하여 이 영역을 개발협력 사업에 접목하며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지역발전 모형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자산을 확충하는 소액금융 사업, 스스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 조직화 사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자라나는 여러 형태의 사업 방식들을 명료하게 분류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사회적 자본 확충형, 사회적 약자 조직형,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례 1) 사회적 자본 확충형 - 자립의 물적 토대 마련

소액금융 사업은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 및 극빈층이 금융자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이다. 잘 알려진 사례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살펴볼 수 있다. 그라민 은행은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소외된 빈곤층에게 소액의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이를 제공받은 여

성들이 과일 행상이나 봉제 등 작게나마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성공 사례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모델의 효과성이 알려지면서 소액금융 사업은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빈곤 감소를 위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긍정적 성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안타깝게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활용되면서 대자본이 마지막 남은 빈곤층Bottom of Pyramid, BOP 시장을 공략하는 수익모델이 되고 말았다. 시중 제도권 은행들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소액금융 사업의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유사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빈곤층의 은행 접근성을 높이는 '호혜성'은 감안하지 않고 그저 상환율이나 이익률 등을 대출 조건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소액금융 상품에 신용 등급을 매겨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저소득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는 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장 확장적 소액금융 사업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며, 지역사회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 문화 자산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반면, 키바KIVA[5]와 같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개인과 개인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온라인 P2PPerson to Person 시스템 구축 사례도 있다. 이자나 수수료 등 추가적 이익은 필요 없지만, 작은 돈이라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키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저마다 사연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영세



키바 홈페이지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5달러의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현지의 소액금융기관을 거쳐 전액 대출자에게 전달된다. 대출금이 상환되면 투자자는 이자 없이 원금을 회수하고 이후 이 돈을 재투자할지, 키바에 기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이 모델은 제도권 은행이 아닌 선진국 시민들의 사회적 투자로부터 출발하여 개발도상국 빈곤층의 자산을 확충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주체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6년 6월 현재 키바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된 돈은 총 8억 8,000만 달러(한화로 약 1조 500억 원)로, 전 세계 83개국 150만 명의 투자자와 210만 명의 수혜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 경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사례 2) 사회적 약자 조직형 - 경제 활동의 주체화化

개발도상국 취약 및 소외 계층이 가진 자산에 근거하여 취약 계층을 사회적 경제 집단으로 조직하고, 스스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의 커피 소농들은 2010년부터 권역별로 '커피생산자협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합을 결성하면서 생산자들 간 커피 판매 가격을 고정하고, 어떤 상인이 오더라도 이 가격 아래로는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심했지만 커피 수매 시기를 놓치면 중간상인도 판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가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결의 힘을 체험한 커피 농가들은 가격만 협의하는 느슨한 조직에서 생산과 판매를 모두 책

임지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 협동조합은 현재 커피 생산과 판매를 비롯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커피 농업 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등 커피 산업을 둘러 싼 생태계 조성에 있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출처: 아름다운커피

수확한 카카오를 가공 중인 페루 나랑히요 농산업 협동조합원 농가

페루 '나랑히요 농산업 협동조합'의 경우는 생산자조합원을 소비자조합원으로 재조직한 사례이다. 1973년에 결성된 이 조합은 지역에 만연한 코카 재배를 근절하여 공동체에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지역 소농들의 모임에서 출발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초콜릿 경진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뛰어난 생산 및 품질 관리 역량을 확보했지만, 병충해나 시장 가격의 급격한 변동, 농촌공동체의 인구 고령화 등은 여전히 농가의 사정을 어렵게 했다.

품질이 좋은 카카오를 생산하는 곳은 역설적으로 중간매집상의 활동도 활발하다. 나랑히요 농산업 협동조합은 원활한 카카오 매집과 초콜릿 생산을 위해 중간상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이 카카오나 커피를 판매하러 조합 창고를 방문하고 농가로 되돌아가는 길에 식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생필품을 조합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더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조합원 전용의 식품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속 생산자들은 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하고, 조합은 추가 수익을 확보해 조합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었다.

경제 주체로서의 조합원은 생산자로서의 역량도 갖고 있지만, 소비자로서의 필요needs도 갖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을 생산자로만 판단했다면 어떠한 서비스나 추가적 지원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 조합원을 '혜택을 받아야 할 소비자' 혹은 '이익을 나누어야 할 구성원'이라 인식했을 때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효율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보다 포용적인inclusive 비즈니스가 시작될 수 있다.

사례 3)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형 - 빈곤층 복지 증대



출처: 아라빈드 안과병원 홈페이지

인도의 시각장애인 중 약 80%는 백내장이 그 원인으로, 단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에 걸리고 실명에 이른다. 15분 가량의 간단한 수술로도 다시 시력을 찾을 수 있지만, 치료비와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이들이 수술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안과 의사 고빈다파 벤카타스와미Govindappa Venkataswamy는 '피할 수 있는 실명'을 없애는 것을 미션으로, 1976년 아라빈드 안과병원을 창업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은 수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숙련도에 따라 역할을 분업시켜 효율을 높이는 등 비용을 절감했다. 임금이 낮은 의료 인력이 상담 및 검안을 맡고, 숙련된 고임금 의사들이 시간 낭비 없이 반복적으로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한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 개발을 통해 안과 수술의 핵심 재료인 인공수정체를 기존 가격의 10% 내외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술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했다.

내원하는 환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빈민층에게는 무료 수술을, 지불 가능한 사람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등 요금제도 실시했다. 이에 환자 중 25%는 병원의 취지에 동감하여 2배 이상의 진료비를 낸다고 한다.

인도 전체 안과 인력의 1%도 안 되는 아라빈드 안과병원 의사들은 인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5%를 해내고,[6] 7개의 병원 체인을 운영하며 규모화하여 40%에 이르는 영업 이익률을 달성했다.

아라빈드 안과병원 모델은 빈곤 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인력 · 기금 등 지역 내부의 자산을 활용했다는 점, 검진과 수술 과정의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췄다는 점, 규모화를 이루었다는 점 등을 주목할 만하다. 개발도상국 빈곤층 시장에서 소규모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취를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규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점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의 일반적 혁신 모델이 어려운 이유와 유사하다.)

아라빈드는 자신의 고객인 빈곤층을 원조나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공정무역도 개발도상국 농업 생산자들이 가진 문제점을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대표적 모델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공정무역기구 연합체인 FINE은 공정무역을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 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7] 이들은 구체적인 무역 거래 속에서 정당한 가격과 우호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처한 여러 문제–중간상인의 착취 근절, 품질 향상, 판로 개척 등–를 해결하고 있다. 또

한 1970년대부터 커피 협정 붕괴, 국가별 수출위원회 해체 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커피, 카카오, 사탕수수 등의 시장 자유화 무역 관행인 WTO/FTA 무역 체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는데, 옥스팜의 'Make trade Fair'과 'Grow' 캠페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에도 아름다운커피,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한국YMCA 피스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등 다수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발도상국 생산자들과 한국의 윤리적 소비자들을 연결하며 거대한 사회 경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식료품을 비롯하여 수공예, 패션, 생활 제품 등 품목과 양을 점점 늘려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무역 시장은 2014년 기준 약 1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 마무리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시장market과 함께 일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그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투영하려는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사회적 경제를 접목시킬 때 명심할 점은 제 아무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사회적 경제 단체를 창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해 나가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전 사회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재를 공급하고, 이들이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풍토와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굴러가는 토양을 말한다. 따라서 창업과 동시에 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이 고민을 실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 채널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있어서 총체적인wholistic 시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도,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사업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도 총체적인 시야 속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빈곤층 아동들을 돕기 위해 아동들의 그림을 디자인으로 사용한 의류를 만들어 선진국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의류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제조 공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공장 노동자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더 많은 공정무역 바나나를 생산하기 위해 협동조합 생산자들이 지역 수자원을 독점하여 주곡主穀을 기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례에 대해 특정한 답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수백 년간 누적된 모순이며, 복잡한 역동dynamics 속에서 엉켜 있는 실타래와 같다.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자르고 풀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명쾌한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누군가 명쾌하게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훼손한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다시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다루는 것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망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군

다나 이것을 개발도상국에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주체에게 더 많은 학습과 준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추천 도서

블루 스웨터(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 다리 놓기)

재클린 노보그라츠 지음 | 이른아침 | 2009년

르완다에서 아프리카 최초의 소액 대출 은행을 설립하고, 비영리 벤처캐피털인 어큐먼펀드를 설립한 재클린 노보그라츠의 이야기

지구촌 아름다운 거래 탐구생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착한 사회를 위한 공정무역 이야기)

한수정 지음 | 파란자전거 | 2016년

공정무역의 의미와 효과성,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정무역 입문서. 생산지에서 협동조합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조직으로 재조직한 생생한 사례 소개하는 책

진흙, 물, 벽돌((세상을 바꾼 착한 금융 키바 이야기)

제시카 재클리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기부에서 투자로 희망의 패러다임을 바꾼 착한 금융 키바KIVA의 이야기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시대의 경제학 원론)

정태인, 이수연 지음 | 레디앙 | 2013년

시장경제를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 공공 경제 · 생태 경제를 새로운 사회의 운영원리로 보며, 이 원리들의 조화 속에 이타적 경제의 출현을 조망해 보는 책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의 배경과 역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거보다 자연재해, 분쟁, 테러 등의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4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 문제로 확대된 시리아 내전, 방사능 누출이라는 광범위한 환경 재난을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필리핀을 뒤흔든 지구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하이엔, 기후변화로 인해 아프리카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식량 위기까지 대형 재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으로 많은 지구촌 이웃들이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란 재난 발생 시 재해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전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후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용어를 긴급구호의 좁은 의미로만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재난 예방과 대비, 재건/복구, 장기 개발로의 연결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인도적 지원 분야의 폭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정의 및 원칙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도적 지원 분야는 타 학문과 달리 학계의 연구뿐 아니라 실제 인도적 지원을 집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왔으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 인도적 지원의 정의 및 원칙들

인도적 지원의 정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돕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OECD DAC는 인도적 지원을 "긴급 상황emergencies과 그 이후에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한다.[1)]

구체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재난 예방과 대비, 긴급 상황 속에서 피난처 · 식량 · 식수 · 위생 · 보건 서비스 지원 및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삶과 생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을 말한다. 또한 긴급 상황 속에서 민간인들과 더 이상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전 · 복지 · 존엄성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재건과 복구, 개발도상국 내 난민 지원 등도 포함한다.[2)]

장기 국제개발협력 사업과의 관계

인도적 지원은 위급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직간접적인 활동이다.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경제 개발을 돕는 국제개발협력과는 구분되지만, 아이티 대지진이나 시리아 난민 지원 사업과 같이 위급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

다. 따라서 개발 사업 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라는 큰 위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도 재건/복구 후 어떻게 장기 개발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인도적 지원의 원칙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네 가지 원칙Humanitarian Principles이 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인류애humanity, 중립neutrality, 공평impartiality, 독립independence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3)]

대표적 인도적 지원 기관인 국제적십자운동은 이 네가지 원칙에 입각해 인도적 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1993년에 '재난 구호 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를 위한 행동강령'을 수립했다. 현재 이 행동강령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

인류애 (humanity)	중립 (neutrality)	공평 (impartiality)	독립 (independence)
생명 및 존엄성 보호	일방적인 호의 배제	인종, 종교의 차별이 없는 지원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과 독립 지원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함.	인도적 지원은 적대 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 인종적 · 종교적 ·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 안 함.	인도적 지원은 오직 필요(needs)에 따라 이루어짐.	인도적 지원은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이나 이득과 관계없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짐.

재난 구호 시 국제적십자운동과 비정부기구NGO를 위한 행동강령

① 인도적 임무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② 인종,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부터 돕는다.
③ 인도적 지원이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④ 인도적 지원이 정부 대외 정책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⑤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⑥ 지역의 역량으로 재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⑦ 긴급구호 사업 진행 과정에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⑧ 미래에 또 다시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줄이는 데 힘쓴다.
⑨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⑩ 홍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재난 피해자들을 희망이 없는 대상이 아닌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보호해야 한다.



출처: Good Humanitarian Donorship
GHD 가입 국가

공여국 정부 차원에서도 인도적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주요 공여국 17개국이 스톡홀름에서 채택한 23개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Good Humanitarian Donorship, GHD이 대표적인 예이다. GHD는 인도적 지원 자금 지원 · 조정coordination · 후속 조치와 평가에 있어서 공여국들이 일관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수혜자들과 집행기관들 및 자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총 40개국이 이 원칙 이행을 위한 협의체에 가입했다. 가입국은 ① 수요조사Need Assessment에 기반을 둔 지원 ② 피해 당사국 역량 강화 ③ 인도적 지원과 개발 간 연계 강화[4] 등을 준수해야 한다. 재난 현장에서는 기본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칫 더 큰 사고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을 잘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도적 지원의 역사[5]

인도적 지원의 시작 – 앙리 뒤낭과 국제적십자운동

"만일 솔페리노 전투 시 국제구호단체가 존재하였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카스틸료네에 자원봉사 간호사들이 있었다면, 또 같은 기간에 브레시아와 만토바, 베로나에도 그러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솔페리노의 회상》 중

근대 인도적 지원의 시작은 1864년 국제적십자운동이었다. 국제적십자사의 창시자인 스위스인 장 앙리 뒤낭Jean-Henry Dunant은 1859년 이탈리아 솔페리노Solferino를 지나가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간 치열한 전투 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 가는 수만 명의 부상병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건 아래 부상자를 치료하는 동안 양국의 보호를 약속받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여 국적에 상관없이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훗날 그는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저서를 통해 자원봉사 구호단체 설치를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12개국가 대표들이 1864년 '제네바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십자운동이 시작되었다.

출처: 대한적십자사





장 앙리 뒤낭(왼쪽)은 1859년 6월 24일, 솔페리노 전투(오른쪽)의 참상을 목격하고 인도적 지원 단체 설립을 꿈꾸게 된다.

인도적 지원의 발전

국제 인도적 지원이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제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였다. 과학의 발달로 총, 폭탄, 탱크 등의 전쟁 도구가 개발되면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위대한 인도주의자'라고 칭송받은 미국의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가 이끄는 긴급구호위원회가 1914년 러시아와 전후 유럽에서 대규모 식량 분배 및 구호 활동을 펼쳤고, 1919년에는 대표적인 국제 NGO 중 하나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전신이 창립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1942년에는 옥스팜의 전신인 옥스퍼드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가, 1943년에는 천주교봉사단Catholic Relief Service, 1946년에는 UNICEF, 1947년에는 케어CARE, 그리고 1950년에는 UN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6], 월드비전 등 UN기구와 국제 NGO들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현대적 인도적 지원의 확립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현대적 국제 인도적 지원 체계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동아프리카 대기근, 과테말라 지진,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UN · 국제 NGO ·

공여국 및 개발도상국 등에 구호 혹은 재난 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UN과 산하 기구 간 자원 확보 및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조정을 전담하는 UNDRO(UN 재난구호조정관 사무국)(UNOCHA(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전신)가 설립되었다. 또한 UNICEF, UNHCR, WFP, FAO, UNHCR, WHO 등 각 산하 기구 내에도 인도적 지원 혹은 긴급구호를 전담하는 부서들이 생겨났다. 스웨덴 · 서독 · 영국 등의 정부원조기관이 별도의 재난 관리 부서를 만들었고, EU(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는 별도의 재난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국제적십자운동과 국제 NGO들도 1970~1980년대 긴급구호 전담 부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탈냉전 시대 및 현대의 인도적 지원의 발전

현대 사회에 들어와 자연재해의 피해를 넘어서는 대규모 인적 사고가 종종 발생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개념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91년 제46차 UN총회에서는 'UN 인도적 지원 조정강화(46/182)' 결의안이 채택되며 UNDRO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로써 자연재해 대응에 집중하던 기존의 역할에서 전쟁과 같은 인적 재난 혹은 정부 기능을 상실한 분쟁 등 복합적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추가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인도지원국(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시 1997년에 UNOCHA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1년에 발생한 9 · 11 테러는 국제사회가 테러리즘, 대량 난민이 발생한 분쟁, 취약 국가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후 재건/복구 활동에 군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등 기존의 인도적 지원의 정치화 · 군사화가 이슈화되면서,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안전이 급격히 위협받기 시작했다.[7]

현대의 재난은 과거와 달리 국지적 테러와 분쟁, 방사능 유출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환경 재난, 에볼라 · 지카 바이러스 등 국경을 초월하는 전염병, 기후변화와 관련 깊은 만성적 식량 위기 등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인도적 지원 활동 시 스마트폰, 무인 항공기 등 새롭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등 그 대응도 더 전문화되고 있다.

한국의 인도적 지원 역사

한국의 민간이 지원한 첫 해외 인도적 지원은 1994년 종족 간 갈등이 극심한 유혈 분쟁으로 번진 르완다 사태였다. 이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이뤄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 민간이 본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모금과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서남아시아 지진해일tsunami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는 NGO 수가 급증했다. 이어 2008년 중국 쓰촨 성 지진,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4년 필리핀 슈퍼 태풍 하이엔, 2015년 네팔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을 거치면서 한국 NGO들의 모금과 인도적 지원 활동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피해 감소 · 복구 · 인명 구조를 담당하는 구조대와 의료 구호 활동을 하는 의료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조직하여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중국 쓰촨 성 지진부터 2015년 네팔 대지진까지 주로 태풍과 지진 피해를 입은 재난 현장에 구호대를 파견해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했고,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긴급구호를 기점으로 더 폭넓은 구호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추천 도서

솔페리노의 회상

앙리 뒤낭 지음 | 대한적십자사 | 2009년

국제적십자사 창립의 배경이 된 솔페리노에서 저자가 겪은 일들에 대한 회고록

추천 사이트

KOICA www.koica.go.kr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www.humanitarian.koica.go.kr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www.odi.org

인도적 지원의 분야

: 인도적 지원 대응 재난 분류

인도적 지원이 대응하는 재난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형태 간 중첩이 많을 뿐 아니라 재난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기관별로 재난의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구분하기도 한다.

원인에 따른 분류

- 자연 재난Natural Disasters: 태풍, 허리케인, 지진,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적인 재난을 말한다.[1)]
- 인적 재난Man-Made Disasters: 주로 사회적 갈등, 전쟁, 군사 공격, 테러와 같이 사람들 간 권력 투쟁을 의미한다. 사회적 재난, 환경오염 등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기도 한다.
- 복합적 비상 상황Complex Emergencies: 내부 혹은 외부의 갈등으로 초래되어, 국가 · 지역 · 사회에서 기존의 권위가 심각하게 무너짐에 따라 개별 기관이나 그 지역의 역량을 넘어선 재난 상황을 말한다.

복합적 비상 상황의 주요 특징은 높은 수준의 폭력과 사망자 발생, 대규모의 난민과 실향민IPDs 발생, 사회와 경제의 심각한 피해, 대규모 · 다면적 인도적 지원 필요성, 정치적 · 군사적인 이유로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안전 위협 등이다.[2)]

속도에 따른 분류

- 빠르게 진행되는 재난Rapid-Onset Disaster: 지진, 홍수와 같이 위급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느리게 진행되는 재난Slow-Onset Disaster: 가뭄, 식량 위기와 같이 천천히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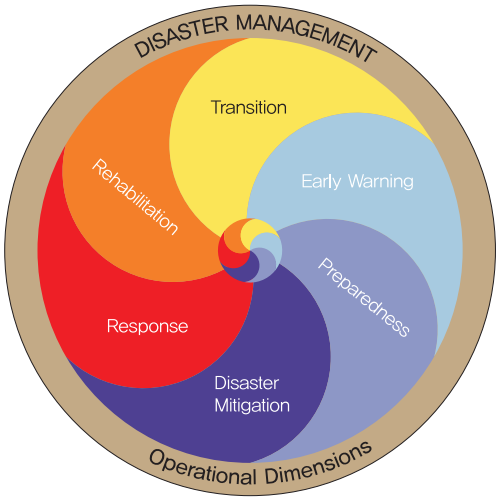
노출과 대응 정도에 따른 분류

-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재난Highly Publicized Disaster: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적 관심 속에 인도적 지원을 받은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아이티 지진,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 등이 이에 속한다.
- 감춰졌거나 잊힌 재난Hidden or Forgotten Disaster: 전체 재난 중 50% 이상의 재난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잊히고 있다.[3)]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재난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히기도 하는데,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 동부 지역 분쟁 등이 이에 속한다.

: 인도적 지원 대응 단계

인도적 지원 사업의 순서와 단계는 기관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으나, 전통적으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시간순으로 재난 관리를 표현하는

재난 관리의 여섯 단계



출처: 월드비전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인도적 지원의 단계를 재난이 발생하기 전 단계인 조기 경보Early Warning, 재난 대비Disaster Preparedness, 재난 경감Disaster Mitigation, 재난이 발생한 당시와 직후 단계인 긴급구호Emergency Response, 그리고 재난 발생 후인 재건/복구Rehabilitation/Transition 등 총 여섯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실제의 재난 상황에서는 각 단계들이 중첩되거나 생략되기도 하고, 각 단계의 기간 또한 재난마다 다를 수 있다.

조기 경보Early Warning

조기 경보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재난의 규모, 종류, 위치 등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전 관측이 가능한 태풍, 해일, 홍수 등의 재난에 더 효과적이다.

활동 사례>> 경보 사이렌 설치 및 대피 훈련 사업

2004년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인도양 지진해일은 재난이 발생한 후의 대응보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의 대응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아래 사진은 지진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태국 푸껫 섬 반나이라이 마을에 설치된 재난 경보 사이렌이다.

이 장비는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큰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에게 알린다. 경보음을 들은 주민들은 사전에 훈련한 대로 높은 곳에 위치한 안전한 대피소로 빠르게 이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 같은 시설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서는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징 같은 타악기,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알리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 알림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출처: 월드비전

태국 푸껫 섬 반나이라이 마을에 설치된 재난 경보 사이렌

재난 대비Disaster Preparedness

재난 대비는 재난 전에 미리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사례>> 맹그로브mangrove 숲 조성 사업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당시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마을은 숲이 없었던 마을에 비해 피해가 현저히 적었다. 맹그로브가 해안의 갯벌을 하나로 묶어 연안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맹그

출처: 월드비전



맹그로브 숲

로브 뿌리는 파도의 에너지 중 70~80%를 흡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행하게도 지진해일 당시 해안가에 조성된 휴양 시설과 새우 양식장으로 인해 맹그로브 숲의 50% 이상이 파괴된 상황이어서 예상보다 피해가 더 컸다. 지진해일 이후 많은 국제 NGO들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는 재난 예방 · 대비 사업을 실시했다.

이외의 재난 대비 활동으로는 가뭄 발생 시 가축을 위한 인공 물웅덩이를 조성하거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응 캠페인 등이 있다.

재난 경감Disaster Mitigation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의 대지진은 약 22만 명이 사망한 인류 최악의 재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비슷한 강도의 다른 지진에 비해 유독 피해 정도가 더 컸던 것은 아이티의 취약한 건축물과 이를 승인한 건축법 때문이었다. 만약 아이티의 건물들이 내진 설계 혹은 보다 더 엄격한 건축법을 적용해 지어졌다면 그 피해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이렇듯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지역의 역량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 재난의 피해 정도는 피해 지역의 취약성에 비례하고, 재난 경감 역량에 반비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 예방 사업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건물 및 기반시설의 내구성과 토지 이용의 적정성
-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 복구 시 향후 발생할 재난에 대한 대비

•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및 변화를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 애드보커시 advocacy 활동과 연계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기반시설 관련 법안 및 건축법 도입 · 적용

긴급구호Emergency Response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긴급구호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Pre-Positioning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력, 물자, 자금 등 세 가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다. 사전에 재난 시나리오에 따라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보유한 인력, 현장에 빠르게 공수할 수 있는 식량 및 비식량 물자,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뉴시스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네팔 대지진 당시 한국 NGO(더프라미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메디피스)의 협력 아래 헬기를 동원하여 긴급구호 물자를 배분하는 모습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파견 해외긴급구호대가 피해자를 수색하는 모습

활동 사례>> 네팔 아동친화공간Child Friendly Space, CFS 운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계층은 아동일 것이다. 가옥이 무너지는 상황은 눈에 보이지만, 아동이 재난으로 인해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과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간과되기도 한다.

출처: 굿네이버스



2015년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 당시 굿네이버스에서 설치 · 운영한 아동친화공간

긴급구호 시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 · 정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동을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인도적 지원 활동 단체들은 재난 피해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공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재건/복구Rehabilitation

긴급구호 단계를 지나 위급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활동 사례>> 아이티 몬트포트 학교 재건/복구 사업

몬트포트 학교는 아이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농아인 학교 중 하나로, 2010년 1월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이티 농아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준 소중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도 지진 피해를 벗어날 수 없었고, 지진으로 인해 학교 건물 및 기자재 등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지진 이후 학교 재건이 쉽지 않았다. 건축 자재나 장비 조달부터 정부 승인을 얻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정부,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하여 마침내 2012년 6월 몬트포트 학교를 재건/복구할 수 있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조기

경보 체계도 갖추었다. 또한 재난 대피 훈련, 아동 심리 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인 개발 사업과 연결시켰다.




출처: 월드비전

월드비전의 학교 재건/복구: 아이티 대지진으로 무너져 버린(좌) 아이티 최대 규모의 농아인 학교 몬트포트 학교가 완전히 재건/복구된 모습(우)

향후 인도적 지원 분야 전망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인도적 지원 분야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25년 전에는 그 누구도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가장 효과적인 조기 경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지진 현장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진 이후를 반영한 현장 지도가 실시간 업데이트 및 공유될지도 몰랐다. 에볼라와 같은 전염병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향후 더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국제적 추세가 있다.

- 도시화urbanization: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도시 슬럼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아이티 대지진을 통하여 도시에서 발생한 재난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경험하였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 기술 발전: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당시 드론drone을 활용해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물자를 배분하고,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지도를 제작 · 공유했다. 이밖에도 무인 항공기, 빅데이터, 스마트폰 지진 감지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기술이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그 강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위치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가뭄과 식량 위기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력한 엘니뇨El Niño 현상에 의한 것이다. 이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 철저한 예방과 대비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 분쟁 및 테러 지속화: 취약국Fragile State의 분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취약국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인프라 부족이나 정치 불안 등으로 인도적 지원 활동 자체가 쉽지 않다. 때문에 '필요에 따른 지원'이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추천 도서

All in Diary,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조은희 번역 | KCOC | 2014년

추천 사이트

People in Aid www.peopleinaid.org

Disaster Ready Institute www.disasterready.org

Thomson Reuters Foundation News www.alertnet.org

Reliefweb www.reliefweb.org

인도적 지원 분야 교육

Master of Humanitarian Assistance: 호주 Deakin 대학

MAHA(Master of Arts in Humanitarian Assistance): 미국 Tufts 대학

MIHA(Master'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tion): 미국 Fordham 대학

NOHA(Network on Humanitarian Assistance):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대학 간 연계된 석사 학위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조정 체계

인도적 지원의 주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주체가 재난 피해 당사자들이다. 이들을 하나의 핵심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길이다. 피해 당사자들을 돕는 최우선 책임은 피해국 정부에 있다. 해당 정부는 현지 NGO, 지역주민단체, 군대, 언론 등과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조정 체계를 구성하여 일차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재난의 규모가 상당하여 해당 국가의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피해 정부는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UNOCHA를 중심으로 UN기구 · 국제 NGO · 국제적십자운동 등의 주체들이 조정 체계를 갖추고 피해자를 돕게 된다. 아울러 공여국 국민, 정부원조기관, 기업 및 재단 등이 인도적 지원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인도적 지원 활동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속한 공동 대응 등을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 대응 노력 간 조율과 각각의 주체들 간 조정 및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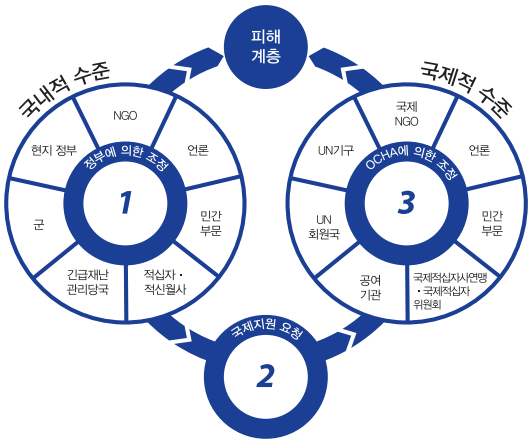
: 인도적 지원 주체 분류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주체들은 성격에 따라 다음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정부원조기관Individual Country's Aid Structure: KOICA, USAID 등
-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s: UN 및 산하 기구, 국제이주기구IOM
- 국제적십자운동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적십자연맹, 186개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1]
- 민간: NGO와 주민단체

이 외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주체들로는 각국의 군대와 다국적군, 영리 기업들, 과학자들, 학계, 언론, 디아스포라[2] 등이 있다.

국제 인도적 지원 체계



출처: UNOCHA, 〈How are disaster relief efforts organised?〉

: 인도적 지원의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

다수 · 다양한 주체가 함께 일하는 인도적 지원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조정coordination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과 협력은 수많은 국제기구, 국제 및 현지 NGO, 정부기구, 주민단

조정과 협력 실패를 통한 배움



출처: abcnews.go.com

아이티 지진 당시 피해 모습

지난 2010년 1월 12일 서반구 최빈국인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은 여전히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25만여 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즉시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초기 3년간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모였다.[3] 당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NGO가 1만 2,000~2만 개 정도였는데, 정확한 수는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막대한 물적 ·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9개월 뒤 콜레라가 발생해 47만여 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7,000여 명이 사망하는 또 다른 재앙이 일어났다. 콜레라 발생 당시 UN 보건 클러스터cluster에는 420개 단체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가입한 단체들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콜레라 발생 초기에 주체들 간 정보 공유와 감염 경로 차단에 실패했고, 대부분의 원조 자금이 1차 피해 지역인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집중됨으로써 2차 피해 지역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에서 조정과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의 인도적 목표를 향해 사업을 조사 · 계획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인도적 지원 체계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인도적 지원에서의 조정과 협력은 크게 상시 네트워크와 현장 네트워크로 이뤄진다. 상시 네트워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인도적 지원의 주체들이 기준과 지침서 등을 합의 · 배포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력이다.

한편 현장 네트워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 주체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들을 합의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사업 계획 및 전략을 조율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는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클러스터cluster 시스템의 도입과 의미

2004년 서남아시아 지진해일의 경우처럼 그동안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임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수혜자의 중복, 자원 낭비, 주체 간 가이드라인 차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는 분야별로 조정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클러스터 접근법을 도입했다.

'무리', '모임'이라는 뜻의 클러스터cluster는 단어 자체의 의미처럼 재난 대응 분야별로 나누어 모이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를 주도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으며, 긴급구호 현장과 본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클러스터 시스템의 목적은 인도적 지원 수

클러스터 분야 및 주도기관

클러스터	주도기관들
식량	WFP, FAO
주거지 및 비식량 물자	UNHCR(분쟁으로 인한 국내 실향민의 경우) IFRC(재난의 경우) – 클러스터 의장(소집자)이 클러스터 운영의 주체가 됨
식수와 위생	UNICEF
영양	UNICEF
보건	WHO
교육	UNICEF, Save the Children
캠프 조정 및 관리(CCCM)	UNHCR (분쟁 지역 재난 시) IOM (자연 재난)
조기복구	UNDP
보호	UNHCR
긴급 재난 시 커뮤니케이션	WFP
물류 관리	WFP
범분야 이슈	**주도기관들**
환경	UNEP
성(性)	ICVA, UNHCR, UN Women and WRC
노인	Help Age International
피해 계층에 대한 책무성	WFP, World Vision International

출처: UNOCHA

행기관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재난 대응 격차를 파악하고,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4] 재난 발생 국가 내에서 어떤 분야의 클러스터가 필요한지, 어떤 기관이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는 재난의 형태나 피해 국가의 특징 등에 따라 결정된다. 효과적인 재난 대응

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난 이후 장기 개발 사업 연계 과정에서 클러스터가 운영되기도 한다.

상시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통한 조정 외에도 상시 네트워크 성격의 다국적 기구, 정부원조기관, NGO 간 조정이 전 세계적 · 지역적 ·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1992년부터 운영되어 온 UN 및 산하 기구, NGO, 적십자사가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NGO들을 위주로 구성된 국제자원봉사기구위원회ICVA가 있다.

아울러 각 공여국 내 NGO들 간 협의체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정부원조기관인 DFID의 지원 아래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15개 NGO들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긴급구호 비축 자금을 마련한다. 또한 리더십 역량 및 긴급구호 파견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수혜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협력 방식을 가지고 있다.[5)]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네트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외교부와 KOICA의 지원으로 해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민관공조 체계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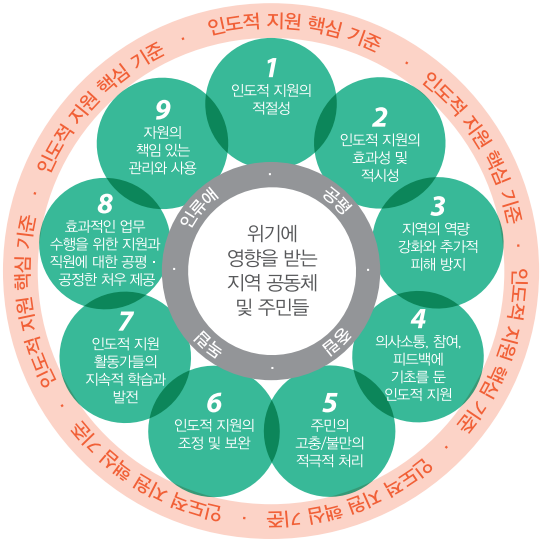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지침서

조정과 협력의 결과물로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과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대한 핵심 기준CHS》을 들 수 있다.

스피어 프로젝트는 인도적 대응에 있어 활동의 질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7년 국제적십자운동과 인도주의 NGO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핸드북으로 정리한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은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이재민들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재난 · 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두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대한 핵심 기준CHS》은 인도적 지

CHS의 아홉 가지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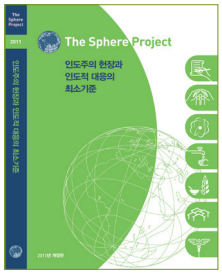


출처: www.corehumanitarianstandard.org

원의 기준을 활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책무성 파트너십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 스피어 프로젝트 · People in Aid가 힘을 모아 2014년에 출간한 것으로, 인도적 지원 기관들과 개인이 제공하는 지원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아홉 가지의 서약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 주민을 도울 때 다양한 주체가 서로 합의된 기준 없이 각자의 기준에 맞춰 활동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The Sphere Project 핸드북



스피어 프로젝트 핸드북

예를 들어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 인도주의 헌장과 인도적 대응의 최소기준》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1인당 기본 용수량을 하루 7.5~15ℓ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원의 유량이 분당 7.5ℓ인 경우 수도꼭지 1개당 최대 이용 가능한 이재민 수를 250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기본 용수량이 지키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부족한 용수량을 채우기 위하여 안전하지 않은 수원의 물을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고 손 씻기 등과 같은 위생 활동을 중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도꼭지를 너무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혹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한 지침서 두 가지를 숙지 ·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지침서 모두 전 세

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전 세계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조정과 협력에 대한 국제적 추세

최근 국제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정과 협력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주체들이 전통적 주체인 국제기구 · 정부기관 · NGO 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영리기업 · 군대 등 새로운 주체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협의체들과 네트워크는 더 확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지역단체, 영리기업, 과학자, 학계, 디아스포라 등 더 많은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6)]

- **추천 사이트**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 홈페이지 www.sphereproject.org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 핸드북(한글) www.ngokcoc.or.kr

  인도적 지원의 핵심 기준 www.corehumanitarianstandard.org

  인도적 지원 정보(UNOCHA 지원) www.humanitarianresponse.info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 www.interagencystandingcommittee.org

  UN 국제 자연재해 경감 전략기구 www.unisdr.org

  UNOCHA www.ochaonline.un.org

활동 사례

재난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

KCOC는 재난 발생 시 재난 관련 정보 및 단체 활동 현황 등을 공유하고 민간단체 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4월, 네팔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KCOC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네팔에서 활동하는 한국 인도적 지원 민간단체 그룹을 연결하고 다양한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UN 자료, 피해 지역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많은 단체들이 효과적 활동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일부 단체들은 현지 주민들의 필요needs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서로의 전문성을 결합한 공동 피해 조사나 공동 물자 배분 등 실제 협력 사업을 함께 수행했으며, 현장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정보 공유 및 다양한 협력을 진행했다.

민간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민관협력에서도 역할을 다했다. 2013년 11월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KOICA, NGO가 함께하는 민관협력 간담회를 마련해 활동 현황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고,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진 제공: KCOC

2015년 네팔 지진 당시 네팔 현지에서 진행된 인도적 지원 활동 단체 조정 회의

3장

세계시민의 실천



이 장은 지구촌 문제에 인류 공통의 책임감을 느끼는 세계시민을 위한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성과 국제개발협력교육, 다양한 주체들, 개개인이 직접 실천해 볼 수 있는 참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개인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국가와 지역 차원의 협력,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교육과 세계시민성

: 국제개발협력교육의 배경과 중요성

국제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을 줄여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이 '국제개발협력'이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려 공감과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것이 '국제개발협력교육'(이하 개발교육)이다. 서구 국가들의 정부와 NGO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레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온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구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례들이 많다.

지난 60년간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빈곤과 맞서 왔다. 그 결과 오늘날 절대 빈곤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고, 많은 아동들은 건강하게 5살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아들을 포함한 많은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인류는 전례 없는 풍요와 발전을 누리게 되었으나, 동시에 풍요의 그늘에 가려진 극심한 불평등을 직면하고 있다.

또한 평화와 안보 측면으로는 지속적인 위기가 반복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곳곳에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 인류를 포함한 많은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는 지구 반대편의 먼 이야기가 아닌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되었다. '지구촌'이라는 표현은 어느새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한 절대 빈곤과 불평등, 식량 위기, 기후변화, 평화, 인권, 질병 등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쟁점들은 더 이상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일어나는 이슈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교육의 목표는 '가난한 이웃을 돕자'는 차원을 넘어선다. 개발교육은 세계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적 이슈의 원인 · 영향 · 대안 등을 학습하고 고민하며, 개인 혹은 연대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질과 정체성을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이라고 하며, 세계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국제개발협력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라고 한다.

2015년 9월, 제70차 UN총회에서는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SDGs는 3년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한 사람의of the People, 사람에 의한by the People, 사람을 위한for the People 목표이다.[1] 앞으로 남은 15년 동안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사회 및 경제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

경 보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국제기구, 전문가들뿐 아니라 지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교육과 세계시민성[2)]

개발교육의 의미와 목적은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역사와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 · 발전해 왔다. 또한 개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와 기관마다 강조점도 조금씩 다른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국제개발협력교육, 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개발교육의 발전 과정을 토대로 그 정의와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외 현황과 최근 동향을 알아보겠다.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역사와 발전 과정

개발교육은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관심이 개발도상국에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설립되고,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독립하게 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위한 원조로 이어졌다. 특히 유럽 등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적원조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개발교육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국을 위해서가 아닌 지구 반대편 나라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NGO들의 활동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들의 활동은 개인 기부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개발교육의 내용은 주로 기부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해외자원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활동가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예산을 배정하고, NGO를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개발교육을 실시했다. 일부 개발협력 활동가들이 개발교육이 원조 및 기부의 필요성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선적 관점이 아닌 사회 정의와 형평성의 관점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비판적 접근이 대두되었다.[3]

개발교육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확장과 축소를 거듭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개발교육은 NGO를 중심의 비정규 과정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영국에서 개발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모든 학생들이 개발교육을 받는 토대가 마련되었다.[4] 또한 1993년에는 지역 기반으로 활동해 왔던 개발교육센터들과 국제 NGO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DEA를 출범시킴으로써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개발교육이 확산되는 동력이 되었다.[5]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개발장관위원회Committee of Development Ministers에서는 개발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다. 특히 2005년 EU 다자간 포럼에서는 개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 등에서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교육의 주요 주제와 내용은 국제 개발협력에 대한 학습과 이해로 구성되었다.



출처: 우스맵 홈페이지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용어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원조 중심이었던 기존의 개발교육을 세계화globalization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함께 반영된 것이다. 2008년 영국의 개발교육협회에서는 개발교육 대신 '글로벌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과 정의를 재정립했다. 개발교육협회에서는 글로벌학습을 "글로벌 환경에서 글로벌 이슈를 이해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더 나은 세계를 기대하고 만들어 나가는 교육"으로 정의했다.[6]

2000년대에 들어서 개발교육이 활발해진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이유가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2000년 189개 UN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MDGs가 결정적 계기였다. MDGs는 전 지구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초의 목표로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했다. 공여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 교육, 보건 등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원조 자금을 확보하고 늘려야 할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이런 정치적 배경 속에서 원조 공여국들은 개발교육을 위한 지원을 크게 늘리게 된 것이다.

한편 개발 NGO들은 정부가 MDGs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달성하도록 촉구하는 애드보커시advocacy[7]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는데, 전 지구적 빈곤 퇴치 운동인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GCAP'가 애드보커시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GCAP는 2003년 9월 모잠비크에서 열린 NGO 회의에서 세계시민단체연합인 CIVICUS 사무총장의 제안이 계기가 되어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에서 공식 출범했다. GCAP 운동은 MDGs의 1번 목표인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달성을 미션으로 각 정부가 공정한 무역 구조를 만들고, 고채무 빈곤국의 부채를 탕감하며, 더 많고 더 나은 원조More and Better Aid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해 7월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GCAP 운동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Make Poverty History빈곤을 역사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된 캠페인으로 8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졌고, 특히 시민들이 영국 수상에게 보낸 44만여 통의 이메일 청원서가 G8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의에서 정상들은 MDGs 1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를 단계적으로 탕감하고, 더 많은 원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GCAP 운동은 지구촌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NGO들과 세계시민들이 연대한 결과였다. 특히 영국과 유럽의 수많은 시민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배경은 개발교육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발전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개발교육도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받으며 NGO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 증가하였고, 시민들에 대한 기부 관련 교육으로 개발교육을 시작하였다. 2000년대는 개발 NGO들이 급속도로 늘어난 성장기였다. 일부 기관들은 그간의 지역개발 사업들을 숙고하는 성숙기를 맞기도 했다.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의 활동만으로는 근원적 빈곤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보다 근본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끼쳐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일부 기관에서는 애드보커시팀이 꾸려지기도 했다.

NGO의 애드보커시 활동 목표는 개발협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변화됨으로써 개인 혹은 시민 연대 차원의 행동이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관습 · 제도 · 정책 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발교육도 애드보커시 활동, 시민 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KOICA를 중심으로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10년 ODA 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체계적 개발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점진적으로 ODA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DAC 국가들의 평균 수준, 나아가 UN의 권고 수준까지 ODA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ODA 예산 중 일부를 ODA 홍보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집행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교육부 및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정책 연구와 확산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정의와 목표

앞서 개발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교육의 정의는 국제개발협력의 담론과 동향에 따라 바뀌고 발전되어 왔다. 개발교육의 발생지인 유럽의 NGO들이 2004년에 정의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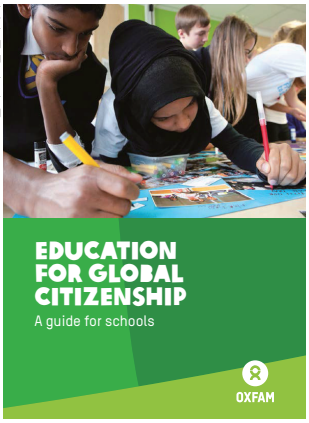
"개발교육은 연대, 평등, 포용,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능동적 학습 과정이다. 개발교육은 국제개발의 우선순위 및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관련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적 이슈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참여와 행동을 이끌어 낸다.

특히 개발교육은 세계적인 빈곤 퇴치, 배제, 차별에 맞서기 위한 모든 시민들의 전적인 참여를 육성한다. 또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인권에 기반을 둔 국가 및 국제 정책을 추구한다."[8]

영국에 본부를 두고 개발교육을 가장 오랫동안 활발하게 실행해 온 국제 NGO 옥스팜은 개발교육을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이라고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세계시민을 정의하고 있다.

-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
-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 세계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
- 사회적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
- 지역 수준에서 글로벌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
-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출처: 옥스팜 홈페이지



세계시민교육 가이드북

한편 국내 NGO로서 개발교육을 국제개발협력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는 월드비전은 개발교육을 '세계시민교육'이라 지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지식과 가치 함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

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역할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유한 권리와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인식한다.
-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세계화로 인한 상호연계성,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해한다.
- 빈곤, 불평등, 인권, 평화, 기후변화 등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안을 고민한다.
-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인의 참여뿐 아니라 상호 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한다.
-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까지 살펴본 개발교육의 핵심 단어는 '능동성'이다. 개발교육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대안을 '발견'하며, 개인적 차원의 '참여'와 타인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최근 국내외 동향 및 이슈

최근에는 UN에서도 세계시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9월,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며,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을 출범시켰다. GEFI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세 가지 우선순위에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는 범지구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범지구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 상호 연결된 지구적 도전 과제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교육은 더 이상 읽고, 쓰고, 셈하는 사람을 키워 내는 일이 아니다. …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은 사람들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과 포용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9]

이를 계기로 UNESCO에서는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을 전략적 분야로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10] UNESCO의 세계시민교육은 1974년 채택된 '국제이해교육,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자유에 관련된 교육 권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권, 사회 정의, 다양성, 성 평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존중하는 가치와 지식 · 기술을 함양하여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세계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11]

위 내용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개발교육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현재 지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간의 개발교육이 개발 NGO 및 정부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UNESCO를 중심으로는 1970년대 이래 국제이해교육이 발전되어 왔다. 한국 역시 2000년 UNESCO와 한국 정부 간 협정을 통해 한국에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을 설립하여 연구와 정책

개발, 학습 자료 개발 및 국제 교사 교류 사업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교육부와 UNESCO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주축이 되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큰 계기가 되었다. UN 회원국들은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 모여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달성하기 위한 여섯 가지 목표를 2015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인천 세계교육포럼은 이 목표들이 잘 이행되었는지 평가하고, 동시에 2030년까지의 전 세계 교육의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한국 정부는 여러 교육의제들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약속했다.

개발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은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고 있다. 더 큰 틀에서는 SDGs에서 만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대로 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UN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된 목표로, 사회 발전 · 경제 발전 · 환경 보존이라는 의제를 17개 목표에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 목표는 4번,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다. 교육 목표는 다시 7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모두를 위한 공평한 양질의 초등 · 중등교육과 직업훈련, 고등교육 및 취학 전 교육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부 목표 7번(SDGs 4.7)이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목표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NGO를 비롯한 국제 시민사회는 그동안 개발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UN과 각국 정부들에 제안해 왔다. 이를 위해 조직된 시민 중심의 네트워크가 'Bridge 4.7'이다. Bridge 4.7은 국제개발협력 NGO들의 협의체를 비롯하여 Education International,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등 국제적인 교육단체 및 협의체들이 협력하여 구성한 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COC를 중심으로 개발교육을 위한 NGO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개발 및 교육 정책에서 SDGs 4.7번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 시대와 세계시민

세계시민교육은 SDGs 4.7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소수의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세상에 선보인 MDGs와 다르게 SDGs는 3년에 걸쳐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자 노력하였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누구든지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세상에 대하여 의견을 냈다. SDGs는 의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모두에게 세계시민의식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SDGs는 단순히 빈곤을 완화하자고 제안하지 않는다. 절대 빈곤을 종식시키고 더 나아가 발전의 혜택을 고루 나눌 수 있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고 한다. 또한 인권과 정의가 실현되고,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보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한다.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이 4.7번에만 머무를 수 없는 이유이다. 15년 남짓 남겨 둔 2030년에 지구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일지는 세계시민,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다.

• 추천 도서

당신은 세계 시민인가

(국가와 대륙의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네 가지 단계)

마크 게이어존 지음 | 에이지21 | 2010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기들의 맥락을 짚고, 세계시민이 되어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주는 책

개발교육 이슈 리포트

KOICA ODA 교육원 지음 | 2015년

개발교육의 필요성, 배경과 역사 등에 대해서 쉽게 소개하고 있는 안내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앞서 국제개발협력 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개발협력은 어느 한 국가나 한 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으로 이뤄진다. 이 절에서는 전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해 오고 있는 주체부터 새롭게 등장한 이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정부기관

각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당시 재무부(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치하여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발전 기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1991년에는 당시 외무부(현재 외교부) 산하에 KOICA를 설립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현금, 물자, 서비스 등을 상환 조건 없이 제공하는 무상원조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 국무총리실에 설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결

정한다. KOICA나 EDCF 외에도 30여 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ODA 추진 체계

구분			시행기관	소관부처	조정기관
ODA	양자 원조[1]	무상원조	KOICA, 관련 부처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유상원조	한국수출입은행 (EDCF)	기획재정부	
	다자 원조[2]	국제기구 분담금		외교부	
		국제개발금융 기구출자금		기획재정부	

KOICA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나라의 공여기관은 노르웨이–NORAD, 덴마크–DANIDA, 미국–USAID, 스웨덴–SIDA, 영국–DFID, 일본–JICA, 캐나다–CIDA, 프랑스–AFD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해당 국가의 ODA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적 맥락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들은 OECD 산하에 선진 공여국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DAC를 두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0년 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 시민사회단체CSO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기관처럼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인권,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기구NGO · 비영리기구NPO · 지역단체CBO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되며, 특히 전문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현장 사업을 하는 NGO를 '개발 NGO'라고 한다.

개발 NGO는 19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시작되어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보다 효과적인 원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2008년 가나 아크라 OECD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의 공식 결과 문서에 '시민사회가 개발협력의 주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개발 NGO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 서비스, 지역개발, 지역사회 조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교육이나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수행한다. 개발 NGO는 국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다. 현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쟁, 지진, 홍수 등 긴급사태 구호 활동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개발사업에는 보건, 교육, 지역개발, 소득 증대, 모성 보호, 아동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개발 NGO가 국제적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발 NGO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관련성과 개발협력에 관한 이론 및 현실의 이해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시행한다. 국제개발협

력교육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합한 소양 · 지식 ·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지구적 문제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타 국가 국민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비롯해 국제 경제 관계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포괄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은 대중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도 전달되는데, 개발도상국에 관한 지식 전달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 NGO의 중요한 역할로 정책 애드보커시가 있다. 애드보커시advocacy라는 단어는 생각, 행동 노선, 신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옹호(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와 개발협력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생각이 변화되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통하여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다.

한국은 OECD DAC 가입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ODA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NGO는 한국의 ODA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사업에 대한 자문 · 감시 · 로비 활동을 통해 정책과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다른 NGO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연구 · 조사하며, 주요 개발협력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 시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참여 NGO들의 미디어 스턴트



출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CFD)

2011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참여 NGO 단체 사진

민사회단체와 네트워킹 활동도 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11년에 열린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앞두고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을 만들고,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을 주최하기도 했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더욱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CSO 개발효과성을 위한 오픈포럼'이라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70여 개국 2,000여 개 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2010년 9월 다음의 원칙을 도출하였다.

시민사회 개발효과성을 위한 이스탄불 원칙

1. 인권과 사회 정의를 존중하고 증진한다.
2.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 평등과 성 형평성을 구현한다.
3. 주민의 역량 강화, 민주적 주인의식,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4.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5. 투명성과 책무성을 실천한다.
6. 공평한 파트너십과 연대를 추구한다.
7. 지식 창출 및 공유와 상호 학습을 추구한다.
8.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와 실현을 약속한다.



출처: 《알기 쉬운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 KCOC

국제 시민사회는 Beyond 2015, Action 2015 등의 연대를 만들고, SDGs 채택을 위한 협상 과정에 참여하며 캠페인을 벌여 왔다. 또한 SDGs 채택 이후에도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A4SD, Together 2030 등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 UN 및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주권을 가진 2개 이상 국가의 합의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국제협력체로서 국제법에 따라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 지역과 멤버십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UN처럼 국가가 회원국인 경우도 있지만 EU유럽연합, OPEC석유수출국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과 같이 지역별 협력을 위한 기구들도 존재한다.

UN과 그 산하의 여러 국제기구 역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관들이다. UN기구들은 각각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예를 들어 UNICEFUN 아동기금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며, 긴급구호 · 영양 보건 · 예방접종 · 식수 및 환경 개선 · 기초 교육 · 모유 수유 권장 등의 분야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UN의 원조 계획을 조정 · 통일하는 기구인 UNDPUN 개발계획를 비롯해 WFPUN 세계식량계획, FAOUN 식량농업기구, UNESCOUN 교육과학문화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향상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제금융기구도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국제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다.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 5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이 각 지역의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대 지역개발은행[3]에 모두 가입했으며 각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기업

기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 외에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에도 기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회사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기업이 이윤 추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 지속가능경영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UNGCUN 세계기업협약기구는 UN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권고하기 위해 4대 부문에 대한 10대 원칙을 설정하기도 했다. 또한 ISO국제표준화기구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세계적 표준인 ISO 26000[4]을 개발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구체적 항목에 따라 수치화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활동은 아시아 지역의 교육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이 외형과 비용 측면에만 국한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다시 말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윤을 함께 창출하여 현지 사회의 경제적 · 사회적 환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많은 부분은 민관협력 형태로 이뤄진다. '민관협력'이란 현장 전문성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 정부 · 기업들 간의 파트너십을 말한다. 또한 전통적 형태의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단체에서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공유가치 창출CSV 사업 사례>>

KOICA-CJ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 사업

미국의 경제지 포춘Fortune이 매년 선정하는 '세상을 바꾸는 주목할 만한 혁신 기업'에 선정되어 주목을 받은 공유가치 창출 사례가 있다. KOICA는 기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CJ제일제당과 함께 베트남 남동부 닌투언 성 닌썬 현 땀응마을 농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새마을 CSV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이 주목받게 된 것은 한국의 지원이 현지에 적합한 고추 종자를 선별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재배 기술을 전수하고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농가에서 생산된 고추를 CJ제일제당이 다시 구매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KOICA는 해당 마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을 지도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농촌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 기회를 동시에 열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발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민간 재단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재단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부부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이다. 게이츠 재단은 회장 부부의 고액 기부를 통해 2000년에 설립된 기부 재단으로, 국제적 보건의료 확대, 빈곤 퇴치, 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다. 민간 재단은 국제기구에 기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워런 버핏과 같은 자산가의 고액 기부를 유치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사회 다수의 합의로 다뤄져야 할 사회 문제 해결책이 돈 많은 일부 자산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지만, 반면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공재에 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일례로 게이츠 재단은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 등 국제 보건 사업에 WHO보다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고, 록펠러 재단도 황열병 연구에 자금을 제공해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도록 도왔다. 그밖에 잘 알려진 민간 재단으로는 금융 자산가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위한 슈왑 재단, 포드 재단 등이 있다.

: 대학 및 연구기관

최근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개발협력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교육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세계 고등교육기관 연합

체로는 UNAIUN 고등교육연합가 있다. UNAI는 UN과 세계 대학들이 협력하여 교육으로 빈곤 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 아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UNAI는 UN헌장의 이행, 인권, 모두를 위한 교육, 개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부여, 고등교육 시스템의 역량 개발, 세계시민의식, 평화와 분쟁 해소, 빈곤 해결, 지속가능성 등을 이행 목표로 표방한다. 현재 전 세계 120개 국가에서 약 1,000개 고등교육기관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68개 대학 및 교육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학회를 통해 대학 등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연구 · 조사 활동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이 모여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컨설팅기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컨설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 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기술과 자문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사회 · 경제 ·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와 같은 서비스는 정책 자문 사업, 기술협력 사업 등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특화된 민간 컨설팅기관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관련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 의회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는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위한 입법, 국제적 공약 이행을 위

한 예산 확보, 정부 정책 모니터링, 집행된 결산 내역에 대한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6개 정당이 각각 정치 재단을 설립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민주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시민사회단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제적으로는 IPU의회연맹를 들 수 있는데, SDGs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등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다양한 참여 방법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현대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이다. 과거와 달리 세계적 공동체에서 나 홀로 동떨어져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상 인류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정치, 언론, 통신 등 다양하고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에 앞의 절에서는 지구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문제들, 그리고 이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들을 알아보았다.

'시민'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에게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세상을 향유할 권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계의 문제와 해결 노력에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실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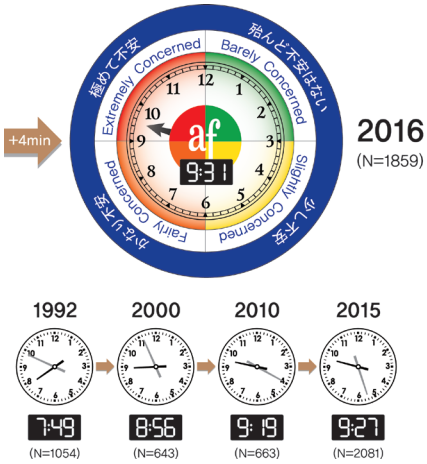
국제 캠페인처럼 거창하고 거대한 조직에 참여해 정책을 움직이거나 큰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은 이미 세계의 한 부분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나'부

터 내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세계 이슈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내 주변의 문제부터 인지하고 일상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더욱 관심이 생긴다면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참여도 가능하다.

국제개발협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된다. SDGs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환경 문제, 적절한 일자리, 양질의 교육, 파트너십 등 일상에서부터 적용 · 개선할 수 있는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의 변화와 실천을 모색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부나 개발 NGO 등 다양한 기관의 활동 및 연대에 함께 동참하는 것,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 등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가기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WCED는 UN에 제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음 세대로부터 환경 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원을 빌려 쓰고 있다고 여기면 당연히 지구환경을 보호 ·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을 남겨 둘 수 있는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출처: 아사히글라스 재단 홈페이지

일본의 환경단체 아사히글라스 재단The Asahi Glass Foundation은 매년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류 생존 위기감 정도를 설문하고 그 통계를 시간으로 표시해 발표하는데, 이를 환경멸망시계The Environmental Doomsday Clock[1]라고 부른다. 이 시계는 지구환경을 4단계로 구분(0~3시: 염려되지 않음, 3~6시: 조금 염려됨, 6~9시: 꽤 염려됨, 9~12시: 매우 염려됨 · 지구 멸망)하는데, 지난 20여 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2년에 7시 49분을 가리켜 꽤 염려되었던 지구환경이 2015년에는 9시 27분으로 조사되어 매우 염려되는 상태임을 경고하고 있다.

환경멸망시계가 남긴 기록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은 이대로라면 지구 멸망까지 3시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결과가 '현재 시간의 흐름대로 간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지구 멸망을 초래하는 많은 행위를 멈춘다면, 또한 지구촌 모두가 이러한 세계시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환경멸망시계의 바늘을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구환경이 이토록 급

속도로 악화된 것은 기업이나 몇몇 선진국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지구의 자원이 무한정 제공되는 양 인류 모두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소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지나친 에너지 소비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치보다 1.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해수면 상승이 해안가의 범람과 침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대로라면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27.1%의 인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 생태계까지도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2015년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195개 당사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는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3]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적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발자국을 제로zero로 만들기로 약속했다.[4] 여기서 '탄소발자국'이란 인간이 땅 위를 걸어 다니면서 생기는 발자국처럼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의 생산 · 소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로 변환하여 그 총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EU는 비닐봉지가 바다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2014년에 1인당 평균 191장인 연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

을 2019년까지 90장으로, 2025년까지 40장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5)]

우리 또한 습관처럼 사용하는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할 수 있는 장바구니, 텀블러 등을 활용함으로써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또한 건축물을 지을 때 열 소비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더 나아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거나 수소 · 합성 연료 · 천연가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 풍력발전소 위주의 발전 체계를 구축하거나 태양열 전지판 에너지 연료 등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6)]

활동 사례>> 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 캠페인

매년 7월 3일은 'International Plastic Bag Free Day일회용 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다. 스페인의 환경단체 가이아GAIA가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일회용 비닐봉지는 190억여 장으로, 이와 관련하여 1년 동안 약 24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는 1인당 매년 370여 장의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꼴로, 2010년에 1인당 198장을 기록했던 EU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하루만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약 5,200만 장의 일회용 비닐봉지와 이에 필요한 원유 약 95만ℓ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약 6,700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에서도 매년 7월 3일에 '일회용 비닐봉지 안 쓰는 날'을 기념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7)]



출처: www.plasticbagfreeday.org

Plastic Bag Free day 캠페인 시그니쳐

: 일상 속 지속가능한 소비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들리야르는 1970년 《소비의 사회La Societe de Consommation》에서 "현대인들의 소비가 개인의 성향을 넘어 개인의 위상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당신이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봐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주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현대인들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느냐에 따라 개인의 위상과 행복까지도 연결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과 언론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권장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소비, 대량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 생산 및 유통 시 발생하는 노동권의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 노력은 미미하다.

한편 SDGs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기본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되, 서비스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자연 자원과 유해 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요구 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 국가 정부 및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등 모든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소비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비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 비교적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 회전율로 승부하는 패션 또는 패션 사업을 뜻한다. 저렴하게 예쁜 옷을 입을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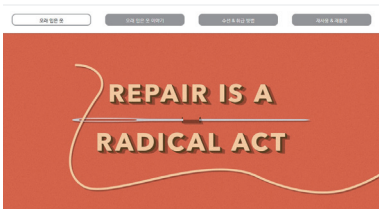
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신 유행의 옷을 자주 구입하는 만큼 버려지는 옷도 많고, 옷을 대량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무조건 소비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다만 우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소비나 보다 공정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을 소비 등 대안적이고 윤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활동 사례>>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인 파타고니아Patagonia는 1973년부터 '최고의 제품을 만들되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지 않고,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격려하는 사업을 한다'는 사명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등 실천적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무역 제품과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든(기능과 품질을 유지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Repair is a Radical Act망가진 옷을 고쳐 입는 것은 자연을 지키기 위한 급진적인 행동입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해 바늘과 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도모하여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로 재사용 · 나눔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변에서 자원 재순환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내 16개 도시에 위치한 120여 개의 아름다운가게는 시민들의 자원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사용 물품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친환경단체, 공정무역 단체 등에서 만든 공익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나



출처: 파타고니아 홈페이지



출처: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

눔 교육, 나눔 장터, 리사이클링업체인 에코파티메아리, 사회혁신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동 사례>> 리사이클recycle을 넘어 업사이클upcycle로

한국은 국가별 재활용 1위 국가이지만 분리 배출을 잘할 뿐 재활용 선진국은 아니다. 현재 재활용 제품은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수작업과 운송비가 추가됨에도 단지 재활용품이라는 이유로 저가에 판매되곤 한다. 이에 요즘은 재활용을 의미하는 '리사이클'을 넘어서는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업사이클은 upgrade와 recycle의 합성어로 '저품질, 저수요'라는 재활용의 선입견과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8] 다시 말해 버려지는 소재를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과 달리 버려진 물건에 디자인을 접목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9]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디자이너 그룹을 중심으로 업사이클링이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현재에는 100여 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버려진 옷, 양말, 우산 등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디자인의 옷, 가방, 소품 등을 만들어 판매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업사이클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authenticsimplicity.net

헌 양말로 만든 컵 홀더

: 공정무역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해 구조적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및 노동 기준에 맞는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무역 형태이다. 공정무역운동은 이익의 대부분이 중간 단계의 기업에 집중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생산자에게 제값을 돌려주자는 운동이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커피, 카카오 등을 선진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구입하더라도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의 유통, 마케팅 비용으로 소요된다. 실제 개발도상국 농가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의 6% 내외에 불과하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 비율이 약 16%였지만,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졌다.[10]

인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해 과도한 소비를 낳는 생활 방식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화는 자연 자원의 급속한 고갈과 환경 파괴를 가져온다. 더욱이 자연 자원 및 환경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 피해를 입는 곳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 구조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민들이 빈곤과 환경 파괴로 인한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된다.

공정무역운동은 자유시장경제 구조 밖으로 밀려나 있던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 · 관리하고, 그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로조건 및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든다.

공정무역의 혜택

대개 개발도상국은 커피와 같은 1차 상품 수출산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가격 변동 때문에 농가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와 더불어 부채 탕감의 조건으로 내걸린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하여 준비 없이 세계시장에 노출된 농가들은 최저 가격에 대한 보장이나 보조금 혜택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 폭락을 초래했다. 결국 농가의 부채는 늘어났고, 개발도상국의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공정무역은 시장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도 상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 발전 기금Social Premium을 추가로 지급하여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 아울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조직을 독려하고, 조합 운영에 있어 민주적 의사 결정을 장려한다.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로 약속해야 하며, 생산자 측은 공정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동체의 생활 조건 개선(보건, 주거, 교육 등)에 재투자하기도 한다.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 외에도 생산자, 소비자, 지구환경, 여성과 아동 등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 먼저 생산자에게는 경제적 자립과 안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과 자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에게는 원칙과 가치에 따른 윤리적인 소비로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계 무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토록 한다. 지구환경 측면에서는 비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방법

1. **공정무역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본다.** 공정무역 관련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에 공정무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 또한 공정무역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인터넷 카페 혹은 홈페이지에 공정무역 정보를 모아 두고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공정무역 관련 서적도 도움이 된다.
2.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 한국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단체와 가게가 많다. 본인의 필요를 위해 구매해도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하면서 공정무역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좋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로는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두레생협 에이피넷APNet, 페어트레이드코리아, iCOOP생협 등이 있다.
3. **상점, 식당, 커피숍 등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찾고 판매를 요청한다.** 영국의 경우 공정무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압력으로 많은 상점, 식당, 커피숍들이 공정무역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소비자의 요청보다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없다. 자주 가는 상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지 물어보고 아니라면 판매를 요청하자.
4. **공정무역과 관련된 단체를 후원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공정무역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공정무역 관련 단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바른 무역 구조를 세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도 공정무역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출처 : 아름다운가게, 두레생협 에이피넷 홈페이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들

료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 재배를 권장함으로써 생태계를 보호하고,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의 친환경적 생산으로 환경 부담을 최소화한다. 여성의 고용 · 임금 · 발언권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착취를 금하게 하는 기능도 한다.

: 공정여행

공정여행Fair Travel은 여행지의 삶과 문화를 파괴하는 기존 여행의 일부 관행들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여행객의 휴식을 위해 현지인들이 환경 파괴에 시달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공정여행운동은 1988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됐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와 원주민 공동체 파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출발점이었다. 이 개념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공정여행의 계획과 실행이 한창이다.

한국에서는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에서 의미를 가져와 이런 형태의 여행을 '공정여행'으로 부르고 있다. 처음 '공정여행'을 시작했던 영국과 미국의 시민단체에서는 도덕적 여행Ethical Travel, 책임여행Responsible Travel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착한 여행, 대안여행, 생태관광Eco Tourism,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도 넓은 의미에서 공정여행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이다.

공정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돈만 쓰는 여흥에서 벗어나 여행하는 곳의 문화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현지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공정여행이라고 부른다.

: 공정여행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기존 여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크게 환경 문제와 여행 산업의 현지인 착취 구조로 나눌 수 있다.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여행으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문제이다. 여행객들을 위한 호텔과 휴양 시설을 짓기 위해 현지 주민들의 마을은 붕괴되었고, 다수의 여행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현지 생태계는 심각한 훼손을 겪고 있다. 현지 동물들을 관광 산업에 이용하는 것 역시 환경 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잠깐 동안 코끼리 쇼를 즐기고 갈 관광객들을 위해 코끼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받아야 하는 훈련은 너무나 가혹하다. 현지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냥하여 만드는 각종 음식과 기념품들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리핀 보라카이 섬은 해마다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최고의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휴양지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원주민인 아에타족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1980년부터 시작된 휴양지 개발 바람 때문에 아에타족이 경작하던 밭에 호텔이 지어졌고, 고기를 잡던 해안에는 리조트가 세워졌다. 필리핀 정부가 내륙에 아에타족 정착촌을 세웠지만, 밭과 바다를 빼앗긴 아에타족은 먹고살 수단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었다. 결국 남은 수백 명의 아에타족은 정착촌을 빠져 나와 다시 보라카이 해안으로 돌아갔다. 그마저도 2000년에는 아에타족의 마지막 정착촌에 대규모 해양 스포츠센터를 갖춘 호텔을 짓는다며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영국의 공정여행 단체인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안가에 위치한 5개 여행 지역(감비아, 인도네시아 발리, 탄자니아 연안의 잔지바르 섬, 인도의 케랄라 및 고아)의 물 사용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잔지바르의 휴양지 키웬그와와 등에서는 관광객이 현지인보다 물을 최대 16배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인은 하루 평균 93.2ℓ의 물을 사용하는 반면 5성급 호텔의 객실 하나당 물 사용량은 평균 3,195ℓ였다. 고급스러운 호텔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686ℓ로 줄어들었다.[10]

수많은 등산객이 다녀가는 네팔의 안나푸르나는 등산객들이 버린 플라스틱 생수병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 지속적인 일회용품, 샴푸, 비누의 사용도 현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다. 여행 과정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비행기로 인해 생기는 양이 가장 많다. 물론 해외로 나갈 때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지만,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는 항공편 대신 도보 · 자전거 · 현지 교통수단 등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도 있다. 항공사들은 비행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를 없앨 수 있도록 탄소저감운동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탄소 상쇄offset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여행 산업과 현지인 착취 구조

여행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여행이 현지인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행객이 사

용하는 여행비의 대부분은 현지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여행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지만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에게 돌아간다. 경제적 이익이 관광지에 남지 않고 다시 빠져 나가는 누손율은 네팔 70%, 태국과 코스타리카가 각각 60%, 45%로 관광 수익의 절반 이상이 나라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11]

또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고용된 현지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적절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공정여행 단체인 리스판서블 트래블Responsible Travel은 트레킹 여행객들이 고용하는 포터(짐꾼)와 셰르파sherpa, 가이드들이 낮은 임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한다. 네팔의 포터들은 트레킹 여행객들보다 여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아플 확률이 4배나 높다. 그들은 최대 적정 무게인 30kg을 훨씬 넘는 40kg의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오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 단체는 포터들도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트레킹 여행객들이 보다 윤리적인 여행을 선택할 때 한층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더욱 공정하게 포터를 대우하고 있는 여행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12]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던 현지인들은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생존 수단을 잃고 저임금 일용직,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케냐의 마사이족 중 일부는 호텔과 사파리에 땅을 빼앗긴 후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리조트와 호텔에서 흘러나온


출처: Nikkiesletteland

네팔의 포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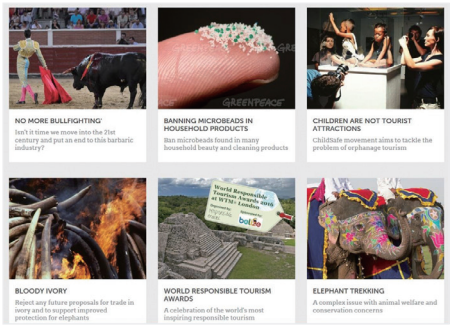
폐수나 온수로 갑자기 수온이 바뀌는 바람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 생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급자족하며 살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리조트나 호텔에서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용직은 그들이 살던 이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더욱 절망적인 상태로 그들을 내몰았다.

현지에서 이뤄지는 여성 및 여아에 대한 성적 착취도 커다란 문제이다. UNICE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성매매 관광의 피해 아동은 200만 명에 달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만 10만 명의 아동이 성매매 관광으로 착취당하고 있다.[13] 성매매 관광으로 유명한 태국 방콕과 파타야는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군들에게 유흥을 제공하던 곳이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매년 미군 70만 명이 방문했던 군사 성매매 인프라는 전후 관광 성매매 인프라가 되었다. 이와 같은 성매매 문화는 푸껫과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휴양지로 확산되었다.

: 공정한 여행을 위해서

공정여행 단체인 리스판서블 트래블은 2001년도에 책임여행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졌다. 2016년 초에는 100만 번째 고객 예약 행사를 진행했고, 총 200종의 공정여행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였다. 리스판서블 트래블이 진행하고 있는 공정여행을 살펴보면 앙코르와트 청소 여행, 베트남 요리 배우기 여행 등 일반 여행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상품이 많다. 스페인 알리칸테 걷기 여행, 프랑스 남부 자전거 여행, 스코틀랜드 카약 여행 등 비행기를 타지 않는 여행도 눈길을 끈다. 한편으로는 일반 관광 여행과 같으면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곁들인 상품도 있다.

터키 안탈리아 해안 여행은 여느 여행 상품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불한 여행 수수료 중 일정 금액이 해당 지역의 바다거북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 이 여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의 상품이 현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출처: www.responsibletravel.com
리스판서블 트래블 닷컴에서 진행하는 공정여행 캠페인들

또한 공정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걸 및 상품 판매에 현지 아동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아동 노동 상품을 보이콧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여러 가지 공정여행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이후로는 돌고래 쇼 금지 캠페인을 여행 상품 내역에 포함시키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14]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노력에 더하여 국제기구 차원의 노력도 시작되었다. UN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03년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 재단ST-EP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7 지속가능한 관광의 해'를 준비하면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사회포용성 · 고용 · 빈곤 감소, 자원 효율성 · 환경 보호 · 기후변화, 문화적 가치 · 다양성 · 유산, 상호 이해 · 평화 · 안보 등 5개 주요 분야에 기여하고자 했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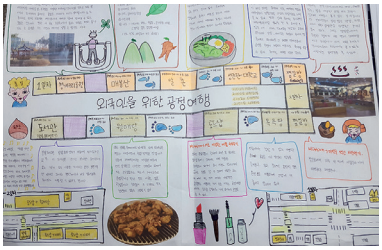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트래블러스맵, 착한여행, 이매진피스, 국제민주연대 등 여러 공정여행 단체들이 공정여행 · 착한 여행을 시도 및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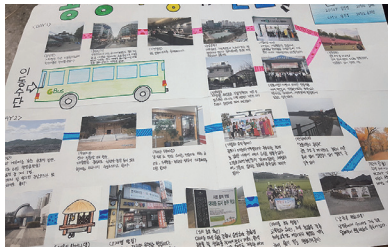
공정여행을 위한 10가지 충고

1.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한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식당, 여행사 등을 이용한다.
2. **아동에게 사탕이나 선물, 돈을 주지 않는다.** 정말 돕고 싶다면 현지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를 통하자.
3. **간단한 현지어를 미리 배워 둔다.** 서툰 현지어로 말하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마디가 큰 차이를 가져 온다.
4. **현지 물가를 존중한다.** 그들보다 100배 많이 버는 당신이 좀 더 비싼 외국인용 입장료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5. **흥정은 적당히 한다.** 바가지를 씌우는 물건은 깎되 정당한 비용은 지불하자.
6. **인물 사진은 물어보고 찍는다.**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포기하자.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면 지킨다.
7. **멸종 위험에 처한 생물 종으로 만든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거북이 알 수프, 악어 핸드백 등은 사지 말자.
8. **문화적 차이와 금기를 미리 배우고 존중한다.** 태국에서는 아무리 귀여워도 아동들의 머리를 두드리면 안 된다. 네팔 가정집 안에서는 우산을 펴면 안 된다.
9. **현지 드레스 코드에 맞춘다.** 사원에 갈 때에는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한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입는지 살펴보자.
10. **현지의 정치 · 사회 현황을 미리 알아 둔다.** 가이드북의 역사 · 정치란을 미리 읽고 출발하자. 백과사전에서 여행할 국가 항목을 찾아 읽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활동 사례>> 우리 지역부터 공정하게 여행하기

2016년 6월, 수원 영생고등학교는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우리 지역을 공정하게 여행하는 것부터 공정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 공정여행 프로그램 공모전'을 열었다. 국제개발협력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배운 학생들은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마을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모전에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이동 방법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은 공정여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고, 지역사회를 살펴보는 계기도 되었다.





제공 영생고등학교 학생 + 교원

공모전에 참가한 작품들

: 캠페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캠페인 활동은 1980년대 국제 NGO들이 개발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전개한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는데, 애드보커시advocacy · 로비lobbying · 인식 제고awareness · 캠페인campaigning 등으로 나타난다. 2000년도 초반에는 국제사회의 무역 문제와 MDGs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 ODA 증액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 집중한 반면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캠페인은 SDGs의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진

행될 것이다. 최근에는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캠페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캠페인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개개인의 인식 변화와 참여가 모여 결과적으로 제도 및 정책이 변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부채 탕감 캠페인

NGO들이 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주빌리Jubilee 2000' 캠페인과 2005년에 실시한 'Make Poverty History빈곤을 역사 속으로' 캠페인이다. 1990년대에 시작된 주빌리 2000 캠페인은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청원했다. 부채 탕감 캠페인의 핵심은 1998년 5월 16일 영국 버밍엄에서 G8 정상회가 열렸을 당시 벌어진 운동일 것이다. 당시 G8 정상들에게 전달된 청원서에는 총 60개국 2,200만 명이 서명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록그룹 U2의 리드 싱어 보노, 무하마드 알리 등 유명인이 대거 참여한 것도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16] 이와 함께 G8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버밍엄에서는 7만여 명이 참가해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17]

주빌리 2000 캠페인의 결과로 세계은행과 IMF는 고채무 빈곤국HIPC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정책인 HIPC－Initiative를 실시했고, G8 정상들은 1999년 독일 쾰른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 42개국을 대상으로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하기로 약속했다.[18] 이 캠페인이 다른 어떠한 캠페인보다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캠페인이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확실하게 승격시켰고, 다음으로는 한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단일 연대의 지구적 사회 운동을 탄생시켰으

며, 끝으로 이전까지 저자세를 보이던 개발도상국 정부가 사회 운동의 영향으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9] 2005년 UN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주빌리 2000 캠페인은 Jubilee USA Network 혹은 Jubilee Debt Coalition 등의 기관으로 계승되었으며, 부채 탕감 운동은 채권국 및 다국적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채 탕감을 위해 계속되고 있다.

전 지구적 빈곤 퇴치 운동 – GCAP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의 시작은 2003년 9월 모잠비크 마푸토Maputo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NGO들의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CIVICUS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GCAP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듬해 9월 GCAP가 결성되었고, 2005년 1월 27일 브라질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에서 GCAP의 공식 창립식이 열렸다.

CIVICUS에 본부를 둔 GCAP는 지구촌 빈곤 퇴치의 메시지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각국 정부의 지구촌 빈곤 퇴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CAP는 지구촌의 크고 작은 다양한 NGO가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낸 사상 초유의 연합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GCAP는 MDGs의 첫 번째 목표인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한 무역 정의, 고채무 빈곤국의 부채 탕감, 원조의 양적 · 질적 증대 등을 주요 미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GCAP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캠페인 중 하나가 바로 '화이트 밴드 빈곤 퇴치' 캠페인이다. 이는 2000년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MDGs를 각국 정상들이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으로, UN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 10월 17일에 진행되고 있다. 화이트 밴드는 'End Poverty빈곤을 종식시키자'라는 구호가 적힌 흰색 팔찌로, GCAP의 제안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화이트 밴드의 대표적 상징이 된 2005년 'Make Poverty History빈곤을 역사 속으로' 캠페인에서는 전 세계에서 영국으로 모인 800만 명이 팔찌를 착용했다. 특히 흰색 팔찌를 착용하거나 흰색 옷을 입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스탠드 업Stand Up' 캠페인이 대표적이었다. 이외에도 온라인 서명 운동, 길거리 캠페인,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대규모 콘서트,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항의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2005년에는 전 세계에서 1억 5,000만 명이, 2007년에는 4억 3,700만 명이 스탠드 업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5년도에는 뉴욕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Leave No One Behind"를 캐치프레이즈로 한 불평등 줄이기 캠페인이 열렸다.



출처 : Nikkassiefeland

Make Poverty History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한국도 2006년부터 화이트 밴드 빈곤 퇴치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006년 10월 15일에는 스탠드 업 캠페인이 열렸고, 2007년에는 '일어나 외치자. 지구촌 빈곤 퇴치!'라는 주제로 화이트 밴드 캠페인이 열렸다. 2007년 10월 17일 여의도공원에서는 여러 가수와 연예인이 동참한 빈

곤 퇴치 콘서트 '화이트 밴드 캠페인 – 천사의 손'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2008년에는 '지구촌 빈곤 퇴치, 이제는 행동으로!'라는 주제로 덕수궁 돌담길에 빈곤 체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2009년에는 남산공원에서 걷기 대회를 진행했다. 2015년도에는 '지구촌 빈곤 퇴치, 나눔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Give Talk To You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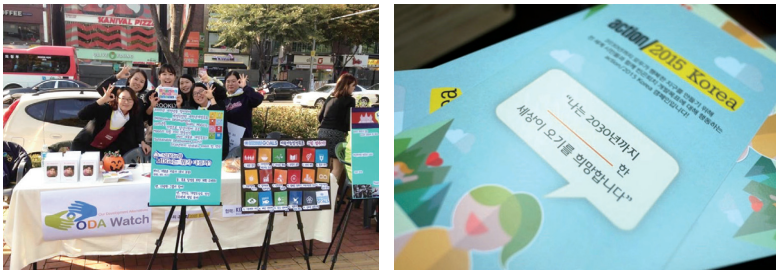
SDGs 관련 캠페인 – action/2015와 Free 캠페인

국제 NGO들은 연대와 다양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를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ction/2015 캠페인 로고

MDGs의 종료 시점인 2015년을 앞두고 2014년 8월에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목표 수립 과정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action/2015'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action/2015 Asia에 소속된 국가별 시민사회에서는 '나는 행동합니다iMOVE Campaign'라는 주제로 불평등, 부정의, 사회 불안정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목표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국에서는 action/2015 Korea라는 이름으로 온 · 오프라인 캠페인이 펼쳐졌다. KCOC, KoFID, GCAP-Korea 등 3개의 NGO 협의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여 25개 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불평등, 기후변화, 성 평등 등 다양한 주제로 새로운 목표인 SDGs의 내용과 의의를 알렸고, SDGs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만들어야 할 세상의 모습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를 약속받는 한편, 한



출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action/2015 Korea 캠페인 사진

국 정부의 책임 있는 목표 이행을 촉구했다. 이후 2015년에도 GCAP-Korea 주도로 action/2015 캠페인이 이어져 다양한 체험 행사를 통해 SDGs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5년 9월 SDGs가 채택된 뒤에는 기존에 MDGs 캠페인을 담당했던 UN 밀레니엄 캠페인UN Millenium Campaign에 이어 UN SDGs 액션 캠페인UN SDGs Action Campaign이 SDGs에 대해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다.

'Free 캠페인Free from Violence and Exploitation'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Childfund Alliance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한 글로벌 아동 보호 캠페인이다. 기존 MDGs에 빈곤, 교육, 위생 등의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 보호Child Protection 문제가 빠져 있었기에, 2015년에 새롭게 선정되는 SDGs에 아동 보호를 포함시켜 국제사회가 폭력과 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7개국이 참여하여 온 · 오프라인 서명 운동, 성명서 및 보고서 발표, 아동 참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아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아동 보호가 SDGs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명을 이끌어 냈다. 전 세계 68만 명이 온 · 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도 약 13만 3,000명이

참여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 보호가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UN Post-2015 사무총장 특별 자문관에게 전달하였다.

Free 캠페인을 포함한 아동 관련 국제 NGO들의 노력으로 제70차 UN총회 및 정상회의에서 UN 2030 의제에 아동 보호가 최종 채택될 수 있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8월 19일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UN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World Humanitarian Day로, UN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다채로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공: KCOC

디지털 사진전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하나 되는 인류애One Humanity'라는 주제로 정부 · 민간 · 국제기구 등 총 20개 단체가 함께 온 · 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8월 19일 당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인도주의 여정Road to Humanity'을 주제로 인도적 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디지털 사진전, 인도주의 활동 단체들의 인도적 위기 체험 부스,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보드, 포토 존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됨으로써 대중들이 인도주의의 위기를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사례>>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캠페인


제공 : 코피온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한 학생들

2015년 10월 여의도에서 진행되었던 '제6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에서는 시민들과 개발 NGO가 함께 기획한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2015 청소년 나눔 캠프 드림하이에 참가했던 대학생 멘토 및 중 · 고등학생 그룹은 캠프 기간 중에 자신들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지구촌 빈곤 아동을 위한 나눔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개발 NGO 코피온과의 협력 아래 '지구촌 모두를 위한 행복한 식탁Table for World'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들은 캠페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지구촌 빈곤 현황과 실태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국제개발협력교육

국제개발협력교육(이하 개발교육)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왜 국제개발협력을 해야 하며, 또 그 내용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는 교육이다. 개발교육은 지구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발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KOICA ODA 교육원에서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한 미래 세대 ODA 리더 개발교육, 개



개발교육 교원 직무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



출처: KCOC

개발교육 수업 모습

발교육 특강, 초 · 중 · 고교 교사들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구촌 체험관을 운영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 개발 NGO들의 협의체인 KCOC에서도 시민들이 지구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강사 양성 훈련, 개발교육 수업, 교원 직무 연수, 주제별 심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개발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개발하는 등 개발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아름다운가게, 기아대책, 코피온, HoE 등 여러 개발 NGO들이 개발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름과 내용은 각 기관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다양하다.

개발교육 시행 단체 현황

단체명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고앤두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4~15차시)
		강사 양성	지구시민교육 강사 양성 과정(3일 교육)
국경없는 교육가회	국제개발협력교육	교원	초 · 중 · 고교 교원 직무 연수(15시간, 1학점)
굿네이버스	나눔교육	청소년	'One Heart!'(초등), 'ME TO WE'(중등),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캠프(고등)
기아대책	글로벌시민교육	아동	아동 인형극(재난 안전, 건강 나눔,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13차시), 한톨나눔축제(참여형 빈곤 캠페인)
메디피스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포럼	청소년, 성인	다양한 글로벌 이슈 및 국제개발협력의 주제를 다룬 강연 및 멘토십 프로그램
서비스포피스 재단	청소년 글로벌 시민학교	청소년	글로벌 이슈 학습 및 자원봉사 활동(4차시), 1일 과정 Issue & Action
아름다운가게	나눔교육	아동, 청소년	맞춤형 출강 및 방문 수업(2차시 연강), 공정무역 교육, 세계시민 교육(빈곤 & 기후변화)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성인	퍼실리테이터 양성 과정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 기아 체험 24시(참여형 빈곤 캠페인)
		교원	교원 직무 연수(15시간, 1학점)
월드투게더	세계시민교육	청소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4~17차시)
		성인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교육
위드	드림백 캠페인	아동, 청소년, 성인	드림백 캠페인(참여형 빈곤 캠페인, 3~5차시)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시민학교	아동, 청소년, 대학생, 성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구촌대학생캠프	대학생	강의와 토론, 참여형 팀플 활동
코피온	지구시민교육	아동, 청소년	아동 ·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5차시), 지구촌 캠프(여름방학)
		학부모, 성인	학부모,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출강(30인 이상)
	지구시민교육 강사 양성	성인	지구시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팀앤팀	Youth Global Action	청소년	초 ·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4~20차시)
프렌드아시아	글로벌리더교육	유아	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청소년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12차시)
한국국제봉사기구	클린테이블 캠페인	아동, 청소년	클린 테이블 캠페인(지구촌 식량 문제)
한국카리타스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성인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지구시민교육	청소년, 대학생	중 ·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출강(1~4차시), 독서 토론, 영화 시청, 기관 탐방, 캠페인

출처: 각 단체 홈페이지, 저자 재구성

: 해외자원봉사 활동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방학이나 휴가를 활용해 해외자원봉사에 나서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다. 한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정 덕분에 해외자원봉사 활동 규모는 점점 늘어 가는 추세이다. 해외자원봉사를 주로 시행하는 기관은 KOICA나 지자체 등의 정부 기관과 개발 NGO나 시민사회단체들이며, 최근에는 기업에서도 장 · 단기 봉사 활동을 지원 및 진행하고 있다.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이하 WFK)는 한국 정부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을 통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KOICA 봉사단뿐 아니라 NGO 봉사단, KOICA 자문단, 새마을 리더 봉사단, KOICA UNV 대학생 봉사단, IT 봉사단, 청년 봉사단(KUCSS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PAS태평양아시아협회), 과학기술 지원단,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문단, 태권도 평화 봉사단 등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여러 국가로 파견하고 있다.

봉사단원은 단기 혹은 장기 파견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봉사 활동을

제공: KOICA 세이브더칠드런





하게 된다. 컴퓨터 교육 · 한국어 교육 · 간호 · 유아 교육 등 100여 직종이 있으며, 현재 아시아(베트남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등), 중남미(페루 · 파라과이 · 에콰도르 · 도미니카공화국 · 파나마 등),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등), 중동(요르단 등), 아프리카(에티오피아 · 탄자니아 · 이집트 등) 등으로 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WFK 봉사단의 경우에는 직종 및 봉사단별로 파견 모집을 공지하고 선발 과정을 거친 후 파견되는데, 연평균 5,800여 명의 단원들이 세계 각지로 파견되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KCOC에서도 KOICA와 개발 NGO들 간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월드

WFK 봉사단 소개

구분	지원 조건	파견기간	프로그램 소개
공통 (일반 봉사단)	• 봉사 정신이 투철한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해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심신이 건강한 자 •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1년 (연장 가능)	봉사단원의 전문성 혹은 관심 분야에 따라 개발 NGO에 파견되어 관련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기여하며 단원의 성장을 통한 한국 사회로의 환원을 목적으로 파견
프로그램 매니저	• 국제개발협력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자로 국제개발협력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중소 규모 한국 개발 NGO의 현지 활동 효과 증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파견
코디 네이터			한국 개발 NGO 협의체의 체계적인 활동과 NGO 간의 정보 공유, 효과적 사업 수행 및 단원 관리 지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파견
꿈꾸는 청년 봉사단	• 대학 재학 미만의 학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 (만 16세~23세)	6개월	청소년에게 새로운 경험의 장과 타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에 대한 성찰, 진로 탐색이 가능하게 하여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세계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봉사단원과 멘토로 팀을 구성하여 파견

프렌즈 NGO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04년 33명의 민간단체 해외봉사단이 파견된 이래 현재까지 2,600여 명의 단원이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활동해 왔으며, 2016년 현재에는 79개의 단체를 통해 32개국에서 327명이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은 일반 봉사단,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꿈꾸는 청년 봉사단의 형태가 있다. 파견 분야는 교육, 의료 및 보건, 여성, 행정 제도, 산업 및 지역개발, 환경 등이다.[20]

NGO 파견 봉사단

개발 NGO들은 상당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각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때에는 해당 NGO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짧게는 몇 주간의 단기 해외봉사 활동부터 길게는 연 단위의 봉사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선발 방식이나 모집 시기 및 지원 자격 등은 각 개발 NGO마다 다르다.

한국의 개발 NGO가 운영하고 있는 봉사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NGO 봉사단 파견 현황

순번	단체명 (가나다순)	프로그램명	내용	활동기간
1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해외자원봉사단 (GNVol)	사회복지, 일반 행정, 교육(분야별 교육), 지역개발, 농림 수산, 마케팅, 보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봉사 활동	1년
2	굿피플 인터내셔널	아동결연봉사단	매년 상 · 하반기에 봉사단을 선발 · 파견하며, 해외 지부에서 아동 결연 업무를 진행	1년 이상
3	그린티처스	화성시 청소년 글로벌 자원봉사단	화성시에 거주(재학)하는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봉사 활동과 타 문화 경험 기회 제공	15일

4	글로벌케어	매딕 청소년봉사단	중 ·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의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나눔봉사단	1년 이상
5	글로벌호프	글로벌호프 해외파견봉사단	해외 빈곤 지역의 아동 ·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	1~2년
6	비에프월드	B.F.W	의료 봉사, 아동, 문화, 지역개발 봉사	7일
7	생명누리	그린나래봉사단	교육 봉사, 예체능, 뮤지컬, 영어 지도	10일
8	서비스포피스	SFP	드림캐처 해외 지원 사업	1년
9	서울국제 친선협회	꿈바라기봉사단	빈곤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	10~15일
10	우림복지재단	U-LOVE	빈곤 · 취약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 연계 및 의료, 교육,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
11	월드투게더	해피무브	월드투게더 해외 지부 및 사업장에서 활동	1년 이상
12	위드	국제위드봉사단	구제 및 보건 · 영양 구호 활동, 구제품 전달 등 단기 봉사단	1~2주
13	지구촌 나눔운동	GCS청소년 해외봉사단	국제 자원 활동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8일
14	프렌즈	의료봉사단	매년 6~12월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	1주
15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	한톨청소년 봉사단	나눔과 봉사에 열정 있는 중 · 고등학교 청소년을 미래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10개월
16	한국국제 봉사기구	KVO 해외봉사단	아프리카 해외봉사 활동 프로그램	장기 1년/ 단기 3주
17	한국해비타트	Global Village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지구촌 이웃을 위한 집 짓기, 집 고치기 자원봉사에 참여	1주
18	한끼의 식사기금	Happy GYV	교육 봉사, 문화 교류, 노력 봉사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행	1주

출처: 각 단체 홈페이지, 저자 재구성

기타 봉사단 프로그램

이외에도 기업과 각 대학교에서도 해외봉사단을 모집 · 파견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기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 봉사단, KB국민은행-YMCA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현대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단 등 기업의 사회공헌 및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개별 대학에서는 학점과 연계한 프로그램 및 연수를 지원하며, 개발 NGO와 연계하거나 학교 간 파견으로 몇 주부터 최대 6개월간의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이 있다면 UN봉사단UNV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후원 활동

개발 NGO의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는 방법 중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후원이다. 개발 NGO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KCOC에서 발간한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개발 NGO의 재원 조달 방법은 개인(단체) 후원이 총 수입의 절반 정도인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수입 중에서 31.8%가량을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활동에 사용하였다. 후원 활동은 가장 쉽게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적다. 또한 알고 있어도 마크 주커버그나 워런 버핏,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부자가 몇 백억 달러씩 기부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오히려 기부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후원을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후원이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후원하려는 개발 NGO가 자신의 신념과 방식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주저 없이 후원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각 단체를 통해 아동 결연이나 정기 후원을 할 수도 있고, 단체의 특정 프로젝트나 활동을 후원할 수도 있다.

: 국제개발협력 기관 연계 활동

국제개발협력교육, 캠페인, 후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기관들과 연계하여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많은 개발 NGO에서는 동아리, 서포터즈, 시민 감시단 등 기관 활동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교육 동아리 참여, 개발교육 강사 활동, 개발협력 분야 네트워크 참여, 기관 활동 홍보 및 여러 분야에서의 자원봉사, 정책 조사 및 감시 등 나의 재능 · 시간 · 관심에 따라 원하는 분야와 형태의 연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연락하여 협력 및 가능한 형태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추천 자료

(공정무역)

- **추천 사이트**

국제 공정무역상표 인증기구 www.fairtrade.net

한국공정무역협의회 kfto.org

공정무역가게 울림 www.ullimft.com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www.asiafairtrade.net

아름다운가게 www.beautifulstore.org

아름다운커피 www.beautifulcoffee.com

두레생협 에이피넷(APNet) apnet.or.kr

페어트레이드코리아 www.fairtradegru.com

iCOOP생협 www.icoop.or.kr

- **추천 도서**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코너 우드먼 지음 | 갤리온 | 2012년

회사를 박차고 나온 억대 연봉 애널리스트 코너 우드먼의 공정무역 과정을 역추적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자바 트레커(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커피 순례자)

딘 사이컨 지음 | 황소걸음 | 2009년

대안무역 원칙을 준수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커피 한 잔에 담긴 정치, 사회, 경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노프, 존 메딜레이 지음 | 모티브북 | 2007년

공정무역 제품을 사야 하는 이유, 공정무역 고유의 장점 등을 소개하는 책

(공정여행)

추천 사이트

트레블러스맵 www.travelersmap.co.kr

착한여행 www.goodtravel.kr

이매진피스 www.imaginepeace.kr

국제민주연대 www.khis.or.kr

공정여행카페 cafe.naver.com/fairtravel

글로벌 익스체인지 www.globalexchange.org

투어리즘 컨선 www.tourismconcern.org.uk

리스판서블 트래블 www.responsibletravel.com

추천 도서

희망을 여행하라(공정여행 가이드북)

임영신 · 이혜영 지음 | 소나무 | 2009년

여행과 인권, 경제, 환경, 정치, 문화, 배움 등의 관계를 경험담과 생생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공정여행 가이드북

(캠페인)

추천 사이트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KoFID(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www.kofid.org

세이브더칠드런 www.sc.or.kr

월드비전 www.worldvision.or.kr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www.endpoverty.or.kr

(국제개발협력교육)

추천 사이트

KOICA ODA 교육원 oda.koica.go.kr

추천 도서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실전시리즈(초등편/고등편)

KOICA, KCOC 지음 | 2012년

국제개발협력교육용 교사 지침서 및 학생용 교재 세트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리는 세계시민

KOICA ODA 교육원, KCOC 지음 | 2013년

국제개발협력교육을 위한 초 · 중고용 교사 지침서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이상백, 박수연 지음 | KOICA ODA 교육원 | 2013년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교육의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개발교육의 필요성과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책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 2016년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현장 이야기를 엮은 책

(자원봉사 활동)

추천 사이트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www.worldfriendskorea.or.kr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www.ngokcoc.or.kr

굿네이버스 www.goodneighbors.kr

KB-YMCA 라온아띠 대학생 해외봉사단 www.raonatti.org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happymove.hyundaimotorgroup.com

UNV(UN봉사단) www.unv.org

추천 도서

해외봉사 바로 알고 가기(KOICA가 알려주는 해외봉사 완벽 가이드)

KOICA 지음 | 파이카 | 2012년

해외봉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제안하는 안내서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국제자원활동 매뉴얼)

이선재 지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9년

해외자원봉사, 자원 활동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시각을 제안하는 책

되살린 미래((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생활혁명가들의 유쾌한 반란)

아름다운가게, 이승은 지음 | 생각정원 | 2013년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생활 혁명가들의 유쾌한 반란을 담은 책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실천, 해외봉사활동

김병관 지음 | 시나리오 친구들 | 2011년

해외봉사를 앞둔 사람들에게 현지에 처음 파견될 때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책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생각이 자라는 똑똑한 자원봉사)

다나카 유 지음 | 돌베개 | 2013년

자원봉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주는 책

(후원 활동)

추천 사이트

각 단체 홈페이지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www.ngokcoc.or.kr

(회원 단체 섹션에서 각 단체 홈페이지 연동)

추천 도서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가난으로부터 구할 것인가)

피터 싱어 지음 | 산책자 | 2009년

절대 빈곤층을 돕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라는 전제 아래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피는 한편, 기부를 해야 하는 윤리적 이유와 실천 방식을 제시하는 책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개발협력 활동가 이야기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질문 1) 자기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질문 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또는 활동하면서 어떠한 경험과 준비 과정을 거치셨나요?

질문 3) 진로를 고민하며,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조희경_해외 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 해외전략팀 대리



❶ 저는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하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본부에서 해외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이고,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곳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지 등 어린이재단 해외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해외 사업장 설치를 위해 새로운 국가를 조사하고 환경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많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배웠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일하는 국가, 지역,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힘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며 어린이재단의 해외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❷ 제가 대학교 진학을 고민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소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 NGO가 국내 사업 즉, 사회복지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실무자들이 사회복지사 출신이었습니다. 저 역시 사회복지학과로 진학했는데 대학교에서 배운 것들

중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 큰 시각에서 좋은 토양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하게 NGO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기 보다 NGO의 실제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나 업무가 같은지 알고 싶어 다양한 NGO에서 봉사활동, 실습 및 인턴십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모습, 생각과는 다른 부분 등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데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은 휴학 후 해외봉사 선교로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 지냈던 1년이었습니다. 그전에 해외에서 단기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고, 현지의 아이들과 여러 사람들을 오랫동안 알게 되면서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문화는 아름다웠으나 빈곤과 질병 등으로 받는 고통이 너무도 슬펐고, 이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제 꿈을 더욱 굳혔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제개발협력 실무자가 되고 나서 제 지식과 견문의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특히 우간다에서 현지 사업 관리 담당자로 소아 HIV/AIDS 예방 및 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엮은이 주. 여러가지 일을 두루두루 잘하는 인재. 특정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와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된다.)의 한계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보건부 관계자, 의료 인력들과 만나고 함께 일

하면서 제 보건의료 분야 지식이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업이 아무리 효과적이고 좋아도 우간다의 보건의료 정책과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과 자괴감이 들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한 지 만 9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이 분야가 새롭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에 대한 갈증이 저를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이것이 이 분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❸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한 아이라도 그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는 나름 당차고 순진무구한 생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려는 분들께 마음 자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림'을 주장하는 모습,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한국에, 그것도 이미 많이 발전된 시기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관점에서도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아직 체중 감량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분야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이 품은 열정만큼 기대하는 것도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만큼 쉽게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멋진 조끼를 입고, 전 세계를 누비며 '가슴이 뛰는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찮고 작은 일로 보여도, 내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니어도 그러한 일들이 다 조화롭게 이뤄져야 '국제개발협력의 완성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특정의 어떤 일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일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 오히려 나의 적성에 맞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이 나의 진로를 바꿔 주기도 한답니다.

(입사할 무렵 교육과 인권 쪽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보건 사업을 맡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대학원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 꼭 일하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김동주_인도적 지원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 팀장

❶ 저는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 팀장 김동주입니다. 2010년 10월에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사업 담당자Program Officer로 입사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구호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했었고, 현재는 3명의 팀원과 함께 한국월드비전에서 지원하는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동 · 남미 등에서의 구호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의 활동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난 · 분쟁 · 내전 등으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난민 및 이재민 등 취약 주민들을 위한 취약국Fragile Context 지원 사업, 두 번째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난 경감 및 재건/복구를 포함하는 긴급구호 사업, 마지막으로 WFPUN 세계식량계획 협력 사업과 영양 사업을 포함한 식량 안보 지원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활동으로는 현지 국가 월드비전 사무소와의 논의를 통한 사업 제안서 개발, 사업 이슈 논의를 통한 사업 관리,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전달, 대내외 사업 정보 요청 시 정보 제공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현지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❷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인도적 지

원 분야가 지금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관련 전공을 살리고자 1년간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으나 낙방하고 1년간 무직으로 지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사이 여러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다양한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발협력 활동가의 강연을 통해서 이러한 분야를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어떤 기관들이 활동하는지 확인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기관을 찾던 중에 월드비전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2년여가 지난 터라 입사 준비를 위해 국제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와 다양한 자원봉사를 경험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와 함께 호주 그린피스, 워크 캠프, 노숙자 시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공부한 대학원에 일본 대학원과 공동 학위 프로그램Dual Degree Program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대학원에서 Human Security & Communication이라는 관련 전공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던 중에는 한국월드비전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학기 중 주 1회, 방학 중 주 5회) 제가 근무하고 싶은 기관의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 · 태도 · 고충 등을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은 입사 결정 및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❸ 국제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고 아주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고 기대하는 만큼 늘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회사 못지않게 행정 및 사무 업무가 많아 야간 근무도 잦고, 급여나 복지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조직에 따라 조직 문화 및 업무 환경 등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참 매력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안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구호 사업, 애드보커시 사업 등 큰 사업 분야를 주축으로 교육, 보건, 식수 위생 등 다양한 섹터와 함께 아동 보호, 성 평등, 환경, 인권 등 사업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 이슈도 많습니다. 개발협력의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업, 분야, 이슈별 전문가들이 부족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본인의 전공, 적성, 관심 분야에 따라 한 가지 분야 및 주제를 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큰 계획 아래 관련 활동과 준비를 통해 전문성을 쌓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성입니다. 특히 개발 및 구호 활동에 관심이 있다면 장 · 단기로 현장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해외봉사단이나 청년 인턴으로 해외 장 · 단기 파견을 다녀오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구호 업무의 경우에는 재난 및 분쟁 피해로 더욱 열악한 지역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파견 경험은 각 지역별 다양한 상황 contexts을 이해하고, 다른 위치 · 배경 · 사고방식 ·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에 맞는 유연성과 대응력 · 포용력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한 지역에서 발견하고 알게 된 사실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approach과 사고를 가져야 하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탁월성입니다. 개발 및 구호 활동이라고 해서 늘 사업 문서만 들여다보거나 현장 출장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행사를 기획 및 실행하고, 프레젠테이션이나 홍보를 해야 하며, 전략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진로 결정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입사 준비를 위해 대학원 진학 등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늦은 나이에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후배 활동가들을 보거나 업무를 진행하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면 제가 이 일을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적합한 사람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민은 계속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분에게 해 드린 조언들을 저에게도 적용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하셔서 꼭 마음에 두고 계획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권유선_현장 활동가

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 센터장



❶ 현재 (재)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유선입니다. 제가 네팔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맡고 있는 업무는 '커피 소농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협력 활동입니다. 아름다운커피는 2006년부터 네팔의 굴미협동조합과 공정무역 원칙에 따른 커피 거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신두팔촉협동조합과도 공정무역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들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농 인증 및 커피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생산 지원과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에 위치한 공정무역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네팔 내 커피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킹과 커피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무역 커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인지 제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❷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외교학이 사회 · 국제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니만큼 국내 문제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빈곤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제개발협력에 대

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으나 방법을 잘 모르던 와중에 지구촌나눔운동이라는 NGO에서 실시했던 개발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그 단체의 자원 활동가와 인턴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인 지구촌대학생연합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개발협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현장 활동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학을 다니는 동안 방학을 이용해 몽골 · 베트남 · 태국 등에서 단기 활동가로 활동했고,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익히기 위해 인도와 몽골에서 중장기 활동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이 생소하던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경험을 한국과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직접 쌓으면서 국제 빈곤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성공한 활동가라는 '현실'을 조금 일찍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❸ 동료들과 NGO 활동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종 종사자"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보이겠지만, 이면에는 지구촌의 빈곤을 야기하는 불평등에 저항하고,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로 적은 보수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감내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시고자 한다면 화려한 외면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맞서려는 의지'가 있는지 먼저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개발협력 활동가로서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주_애드보커시 및 교육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스쿨미유닛 팀장

❶ 저는 2012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인터넷 서점 인문 · 사회과학 분야 MD로 5년 남짓 일했습니다. 좋은 책을 골라 소개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빈곤과 불평등'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고, 다시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지금 일하는 기관에 입사했습니다.

❷ 저에게는 국제개발협력 활동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도 없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가지런한 과정도 없습니다. 저는 직업을 고민했다기보다 제가 품은 질문을 따라 흘러온 것 같습니다.

도서 MD로 일하면서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접했습니다. 제가 MD로 일하던 무렵에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을 주제로 한 책이 많이 출간되면서 자연스레 읽게 되었습니다. 정석대로 공부했다면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배우면서 그 연장선에서 해결 방안도 배웠을 텐데 저는 그때그때 책을 읽다 보니 빈곤 퇴치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먼저 접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의 소액금융처럼요. 그런 책을 한참 읽다 보니 '그런데 대체 왜 빈곤한 거야?'라는 질문에 부딪히더군요. 순서대로 배워 보고 싶었습니다. 스타워즈를 4편부터 보면서 '이 캐릭터는 어디서 나온 거지?'라고 묻

는 식으로요. 빈곤이나 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그저 기술적인 게 아니라 대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철학을 전제로 한 사회과학인데 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니 혼란스러웠고, 1편부터 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왕 공부할 거면 가장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빈곤과 불평등'을 전공으로 택했습니다. 그것이 개발학이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며 말라위에서 현지 조사를 할 때만 해도 NGO에서 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2001년 무렵에도 이 분야에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서른을 훌쩍 넘긴 데다가 현장 경력도 없는 저로서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하는 기관의 권리옹호부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6년 넘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빈곤, 불평등, 개발협력 사업, 캠페인에 대해 꾸준하게 글을 쓰고 관련 활동을 했던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 필기와 면접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권리옹호부에서는 국제개발정책팀이라는 신생 팀을 꾸려서 일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해보세요!"가 당시 상사의 주문이었어요. '해외사업부와 별개의 조직인 만큼 이 점을 누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떠한 정책 환경, 프로그램, 일의 규율, 문화가 있어야 아동의 권리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를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개별 사업의 프로그램 매트릭스를 넘어 좀 더 큰 질문을 품어 볼 기회였습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한국 ODA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하나로 '아동의 인권 향상'을 꼽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실행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공여국의 ODA 아동 정책을 분석하는 연구

를 하고, 한국 ODA의 정책과 실행 체계에 아동 권리 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아동 보호 정책 도입 촉구 활동이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확산 활동이 그 일환입니다.

그 외에는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로 정책 제안을 내고 이를 관철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SDGs가 만들어지는 Post 2015 개발 목표의 협상 과정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중 참여 캠페인의 영역에서는 3년 동안 '5세 미만 영유아 살리기 Hi5하이파이브' 캠페인을 했습니다. 매년 3,000명의 아동과 가족이 참여하는 4㎞ 마라톤 행사도 열었는데, '달리는 것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모토를 갖고 뛰는 일종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스쿨미유닛이라는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아들이 성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 현장의 직원들이 스쿨미 프로그램을 잘 펼쳐 가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2~3개월에 한 번, 보름 정도씩 출장을 가면 주로 트레이닝을 통해 현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현지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실행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을 잘 하려면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니 마을과 학교를 찾아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현장에서 이룬 성과를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성패를 나누어야 이 분야가 풍성해질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ODA 정책 수립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❸ 대학원을 마칠 무렵, 진로를 고민할 때 한 선배가 해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른 중반에 이렇다 할 현장 경험 없이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할지 걱정했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일하다 보면 어디든 현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NGO 직원에게는 한국이 가장 큰 현장이다. 우리가 해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말뜻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의 현지 스쿨미 직원들이 제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들을 대신해 일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들이 일을 잘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면 그게 무엇이든 해내는 것이 저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모금이나 애드보커시, 사업 관리나 연구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정_정책 애드보커시

KCOC 정책센터 과장



❶ 저는 KCOC 정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설립된 KCOC는 2016년 11월 현재 130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CSO들의 협의체이며, 정책센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 대상의 정책 역량 강화 사업과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도 주요 업무입니다.

❷ 학부에서는 정치외교학을, 대학원에서는 국제평화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학부 때는 한일 역사 문제와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후 대학원 재학 중에 동티모르로 단기 봉사활동을 다녀온 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9년 여성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개발협력국의 젠더넷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한국이 DAC에 가입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기구 인턴십 외에도 방학을 활용해 희망제작소와 같은 민간 싱크탱크의 펀드레이징 서포터즈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G20 셰르파 정책 대화, 부산세

계개발원조총회 시민사회 포럼,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의 실무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❸ 진로 고민을 치열하게 하던 당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십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등의 내용이었는데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직장보다는 당시 G20이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 주요한 계기를 앞두고 저를 필요로 하는 NGO 활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개발 NGO의 정책 담당자는 국제개발협력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을 분석하고 영향을 주는 효과적 애드보커시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을 분석하고, 시민사회의 함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김동조_미디어 홍보

한국월드비전 미디어팀 영상 제작 PD

❶ 저는 월드비전 미디어팀 영상 파트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김동조 PD라고 합니다. 월드비전이 필요한 영상 콘텐츠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기획 · 촬영 · 편집 과정을 거쳐 현실화해 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모금 광고 영상을 비롯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마을의 변화를 알리는 변화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어진 영상을 다양한 채널(방송, 온라인)을 통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출장이 많아 아내에게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순간순간 만나는 출연자들의 이야기가 좋아 행복하게 촬영 · 편집하고 있는 영상쟁이입니다.

❷ 사실 제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일하기 전, 방송국 시사 교양 PD로 3년 정도 일하다가 우연히 아프리카 촬영을 가게 되었고, 이 분야에 영상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월드비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영상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영상 제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신문방송학과 출신으로 대학교에서 기본적인 영상 제작 과정을 익혔습니다.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

다. 물론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강단을 얻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방송국 인턴십, 국토 대장정, 학생회, 학내 소모임 등 정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카메라를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서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련되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❸ 영상 제작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엇을 하든 결국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궁금해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주변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결핍이나 아픔이 있는지 궁금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 줄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품을 수 있는 대상과 영역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참신한 감각, 놀라운 아이디어, 뛰어난 편집 실력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먼저 우리가 촬영하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때 영상을 시청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어야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쌓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누군가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꾸준히 궁금해 하고, 그 생각들을 기획 노트로 만들어 기록해 둔다면 분명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영상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순열_연구 조사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연구평가팀 팀장

❶ 저는 국제개발협력 민간 싱크탱크인 글로벌발전연구원에서 연구평가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국제개발 분야, 특히 ODA 수행 체계, 원조효과성, 성과 관리 관련 연구와 ODA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OICA를 비롯하여 국무조정실, 외교부, 국제기구, NGO 등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연구 및 평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OICA 최대 프로그램 중 하나인 KOICA 해외봉사단 종합평가, KOICA 글로벌 연수 사업 종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2016년에는 농어촌공사 에티오피아 관개시설 개보수 사업 사후 평가, UNESCO 교육협력개발협력 전략 및 성과 지표 개발 연구 등을 수행했습니다.

❷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히 난민과 같이 국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변호사가 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법학과의 교과 과정은 국내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원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빠진 저는 사회복지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전문적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적절한 결

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개인 단위 및 지역 단위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수립하는 기술과 접근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강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는 개인 자체보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부적합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많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학원 시절 학교에서 실시했던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 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했던 개발도상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 인도 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 등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국제적 명성이 있는 NGO 및 개발 기구에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세계적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를 수 있게 되었고, 선진 공여기관 사업의 피동적 수혜자가 아닌 현지 기관이 스스로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몸소 체험하는, 그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내 NGO에서 대북 지원 사업과 해외 사업 담당자로 3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 프로젝트 디자인과 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동 노동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저였기에 세계 최대 아동 노동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더 갖출 필요가 있었고, 개발학이 가장 발달했다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개발 프로젝트 매니지

먼트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석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시도 끝에 소원하던 ILO 아프리카 지역 사무소의 Regional Child Labor 프로그램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평생의 멘토와 역할 모델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❸ 국제기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하려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본인이 정말 평생을 바쳐 일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발도상국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하여 깊은 염려와 관심을 가졌고, 이에 대한 개인적 리서치 · 연수 · 논문 작업 등을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에 해당 문제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후에 실무자가 되었을 때 큰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언어입니다. 국제개발협력은 말 그대로 국제적인 주제로 일하는 분야이므로 영어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프랑스어(서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는 프랑스어를 씁니다.), 남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스페인어, 중동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랍어 등 본인의 관심 지역에 맞는 제2 외국어 능력까지 갖춘다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유럽 출신이나 영미권 출신 국제협력 종사자 중에는 2~3개 외국어는 기본이고 5개까지 외국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국어가 UN 공식 언어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분명 언어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을 끊임없는 노력으로 뛰어 넘어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국

제개발협력 분야 활동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분야 전문성과 어학 실력을 초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은 지켜야 할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spirit, 무엇이 지켜야 할 가치인지 분별하는 판단력, 이를 위해 몰입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족한 어학 실력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정말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서른 살이 되어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늦은 나이에 국제개발협력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나이가 제일 많았고, 유일한 '어머니' 인턴이었고,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남편도 공부를 했던지라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고, 더욱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를 일이었지만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으니 이를 알아보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국제개발협력에 꿈이 있고,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그 꿈을 지켜 나가면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속 두드려 보세요.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박수연_정부원조기관 | 국제개발협력교육

KOICA ODA 교육원 과장 | 개발교육 전문관



❶ 저는 KOICA ODA 교육원에서 과장이자 개발교육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ODA 교육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알리고,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해마다 변화는 있지만 현재 이곳에서 저는 주로 세계시민교육 혹은 미래 세대 개발교육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 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파트너십 증진(워크숍 및 세미나 실시,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교원 직무 연수나 강사 양성 교육 과정 개발, 교육 교재 발간, KOICA 전체의 세계시민교육 방향성 수립 등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으로서 ODA 교육원 전략, 연간 계획, 경영 평가 등 ODA 교육원 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❷ 대학에서는 교육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저와 잘 맞지 않아서 저는 제가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졸업 무렵에 우연히 교양 과목으로 '국제사회와 NGOs'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저랑 맞는 재미있는 공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국토연구원에

서 KOICA 연수 사업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분야가 공부뿐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뒤늦게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ODA Watch, 해외원조단체협의회(현 KCOC) 등에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들을 닥치는 대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 평등 이슈 분야에 관심이 생겨 대학원 수료 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년간 근무하며 그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대학원생 해외 탐방 장학금에 신청해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의 국제개발을 공부하러 짧은 2주간의 탐방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과 본격적으로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 본 국가들이 양질의 원조를 할 수 있는 기저에는 바로 '개발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제로 논문을 써서 KOICA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KCOC와 KOICA가 발간한, 바로 이 책의 초판인《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입문》의 집필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두 번째 석사 공부 중에는 경제나 통계 분야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유학 시절에 UN 본부 인턴을 했던 경험도 제 삶에는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던 중 현재 직장의 개발교육 전문관 채용 소식을 듣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글로벌 교육 협력 분야의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SDGs 4번 목표에서 강조하는 것이 평생학습Lifelong Education인데,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만큼 배울 게 끝도 없는 분야는 드물 것 같습니다.

❸ 위의 경험과 준비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학 시절의 저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미래가 늘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일을 만난 후에도 전공과 너무 다른 일이라는,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발걸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방황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한 후 그때그때 눈앞에 다가온 도전들과 하고 싶은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길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 분야의 특징이고, 어쩌면 우리 시대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 ·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하게 사고하고, 열정적으로 부딪치고,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DGs에서 SDGs로의 변화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ODA 분야에 한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KOICA를 가겠다', 'NGOs를 가겠다', '국제기구를 가겠다' 등으로 목표를 한정하지 말고, 관심이 생기는 주제와 분야 자체에 집중하기를, 또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길 권합니다. 그럼 그 일이 또 다른 일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아울러 실패도 많이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패나 좌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좀 더 많이 실패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내적인 근육을 키워 주고, 자신이 정말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거시경제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수학을 잘하지 못해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큰 좌절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수학과 그래프, 통계를 다루는 일보다 글로벌 교육을 다루는

지금 직업이 저에게는 훨씬 더 잘 맞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뭐든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교육을 다루는 사람이기에 더욱 삶 자체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깨달았지만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은 젊을 때부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만큼, 삶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고민해 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돕는다'는 태도보다는 '모두와 함께 살아간다'를 배울 수 있다면 국제개발협력도, 세상도 좀 더 좋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록



부록에 수록된 자료는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와 발간 자료, 각종 문헌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검색 등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약어표

약어	풀이	한글명
AAA	Accra Agenda for Action	아크라 행동 계획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증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군소도서 국가연합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BOP	Bottom Of Pyramid	빈곤층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지역단체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협약
CHS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대한 핵심 기준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COP21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장애보정수명
DANIDA	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덴마크 국제개발기구
DDAGTF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도하개발어젠다 신탁기금
DEA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개발교육협회
DFID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nited Kingdom)	영국 국제개발부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UN경제사회이사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FA	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

약어	풀이	한글명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UN 식량농업기구
FCCC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
FGM	Female Genital Mutilation	여성 성기 절제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D	Gender and Development	젠더와 개발 접근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CAP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전 지구적 빈곤 퇴치 운동
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세계시민교육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소득
GP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국제교육파트너십
GPI	Gender Parity Index	성 평등 지수
G7	Group of 7 (United States, Japan, Germany, United Kingdom, France, Italy and Canada)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선진 7개 국가를 지칭
G8	Group of 8 (G7 plus Russia)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선진 8개 국가를 지칭
HAP	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인도적 지원 책무성 파트너십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고채무 빈곤국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LF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원조효과성고위급포럼
HRBA	Human Rights–based Approach	인권기반접근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ASC	Inter–Agency Standards Committee	인도적 지원 기관 간 상임위원회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
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위원회

약어	풀이	한글명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CVA	Inter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Agencies	국제자원봉사기구위원회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미주개발은행
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국제개발연구소
IDPs	Internationally Displaced Persons	국내 실향민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FI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국제금융기구
IIC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미주투자공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STAW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UN 국제여성연구훈련원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이주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의회연맹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자연보전연맹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VC	Japanese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일본국제자원봉사자센터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약어	풀이	한글명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다자간 부채 경감 이니셔티브
MfDR	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개발성과를 위한 관리
MIF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다자간 투자기금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국제투자보증기구
MSF	Medecines Sans Frontieres	국경없는의사회
NCDs	Non–Communicable Disease	비전염성 질병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PO	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구
NTDs	Neglected Tropical Disease	소외열대질병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ion	해외개발연구소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빈곤감소전략보고서
RBM	Results–Based Management	성과중심관리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국제사회책임
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구조조정프로그램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
SWA	Sector Wide Approach	분야별 접근방법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AI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 고등교육연합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환경개발회의
UNCRC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아동권리협약

약어	풀이	한글명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무역개발기구
UNDG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s	UN 개발그룹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 개발계획
UNDRO	United Nations Disaster Relief Organization	UN 재난구호조정관 사무국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 환경계획
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 인구기금
UNGC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 세계기업협약기구
UNHCR	Offic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난민기구
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 인권이사회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 공업개발기구
UNIFEM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 여성개발기금
UN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WTO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 세계관광기구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UN 봉사단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WBG	World Bank Group	세계은행그룹
WCED	World Conference i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WEF	World Education Forum	세계교육포럼
WFP	World Food Programme	UN 세계식량계획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ID	Women in Development	개발에서의 여성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DA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 혹은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사업 주체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협력 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와 유상원조loan로 구분될 수 있다. 유상원조의 경우 소득 그룹별로 OECD DAC가 정한 증여율을 충족해야 한다. ODA는 기술 이전, 투자, 프로그램 원조, 식량 지원 등 긴급 재난 구호나 채무 탕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1960년 UN총회 본회의에서 빈곤 국가들을 위해 각 선진국이 국민 총소득GNI의 0.7%를 ODA로 지출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지만,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오늘날 평균적인 ODA 규모는 0.3%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목표와 GNI 대비 0.15~0.2%라는 최빈국 대상 ODA 목표가 최근 2015년도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결과 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와 SDGs 목표를 통해 거듭 재확인되었다.

ODA의 분류

사업주체별	설명	형태	내용
양자원조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 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	무상원조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 이전. 즉 개발도상국은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음. 예) 기술 협력, 식량 원조, 재난 구호 등
		유상원조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수원국 앞 현금 또는 현물 이전. 즉 개발도상국은 공여된 원조 자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음. 예) 개발도상국의 공공 개발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지원
다자원조	수원국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지 않음	세계은행, UNDP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기존의 원조 방식을 재점검하여 원조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단순히 원조 자금을 집행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제1~4차 원조(개발)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고위급 회의의 결과로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이 출범했다.

: 취약 국가Fragile State

취약 국가란 정부가 빈곤 퇴치 정책을 발전시키거나 이행할 능력 및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국가로, 파트너십이 곤란한 국가 또는 위기에 처한 저소득 국가 등의 개념을 대체하는 용어이다. 주로 분쟁이 종결된 나라, 국내 정치나 정부 통치 능력이 열악한 나라, 분쟁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나라, 테러범의 온상이 되고 있는 나라 등을 의미한다.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 정치, 행정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친 '국가state'와 '사회'의 관계를 지칭하며,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 체계와 시장의 기능 및 제도Market Mechanism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운영 체계,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 공적 재원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공적인 규제를 행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올바른 국정 관리Good Governance는 이러한 것들이 운영됨에 있어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어 국민이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기제가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관협력이란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 NP, 지역 주민 등이 업무를 분담하는 협력 관계를 말한다.

: 분야별 접근 방법Sector-Wide Approach, SWAs

'부문별 포괄 접근 방식'으로도 불린다. 협력 대상국 정부, 공여국 및 특정 분야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국제개발의 접근 방법으로, 특정 정책이나 활동이라기보다 유기적 조직화를 위한 일련의 실행 원칙을 말한다. 현장의 주도권과 책임성을 고양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외부 자원과 국내 자원을 조정하고, 개발과 빈곤 감축에 적절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잠재적으로 강력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 빈곤감소전략 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

PRSP는 빈곤 감소에 초점을 맞춘 중점 개발 과제와 그 대책을 포괄적으로 기재한 3년간의 경제 · 사회 개발계획이다. 이는 고채무 빈곤국 이니셔티브 및 국제개발협회IDA 융자의 판단 자료로, 1996년 세계은행과 IMF의 공동총회에서 개발도상국에 작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략에는 결과를 중시한 경제 성장, 경제와 사회의 안정,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된다.

: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성장Pro-Poor Growth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 상대적 소득 분포를 변화시키는 경제 성장 정책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의 빈민이 아닌 부패한 정권의 지도자나 선진국의 민간 은행들에게 원조가 돌아가는 등의 오도된 개발 정책이 개발도상국 빈민들의 빈곤을 심화시켰다는 반성에 따라 제시된 정책이다.

: 성과 중심 관리Result-Based Management, RBM

성과 중심 관리는 '성과 지향적 관리' 혹은 '개발 성과를 위한 관리MfDR'라고도 불린다. 산출물, 결과, 그리고 영향의 달성 및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 전략을 의미하며, 성과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재원을 관리하고 의사 결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예산 지원Budget support

예산 지원은 협력 대상국 정부가 개발한 개발 정책, 주로 수원국의 빈곤감소전략 보고서PRSP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개발협력 형태로, 협력 대상국의 금융 관리 및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직접 투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 지역 중심 개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원조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원조가 지역 자립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참여적 개발

Participatory Development / Participatory Approaches to Development

2000년 이전의 개발 정책 실패로 인해 부상한 참여적 개발은 협력 대상국 주민들이 개발사업의 발굴, 계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사후 관리에까지 이르는 모든 사업 진행 단계에 자발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민 및 지역사회가 자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권한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인간중심적인 접근법이다.

: 범분야 이슈 / 크로스커팅 이슈Cross-Cutting Issues

범분야 이슈 / 크로스커팅 이슈란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을 언급할 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하며, '분야 횡단적 과제' 또는 '크로스커팅 과제'라고도 불린다. 젠더, 환경과 천연자원, 제도적 개발과 역량 강화, 인권, 성 평등,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아동의 권리, 선주민, 분쟁 예방, 환경 지속성, HIV/AIDS 등 여러 분야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다뤄지고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환경 경영, 윤리 경영, 사회공헌, 그리고 노동자가 포함된 지역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이익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 표준인 ISO 26000을 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로마 클럽Club of Rome

1968년 지구의 유한성에 문제의식을 가진 유럽의 경영자, 과학자, 교육자 등이 로마에 모여 회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1972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날 때 연관 산업을 이용하여 후발 · 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데, 국부를 증대하면 사회 전체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회과학적 근거는 없다.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년에 UN이 새천년개발선언을 통하여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이후 2002년에 채택한 8개의 빈곤 퇴치 목표이다.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양성 평등 및 여성 능력의 고양, 유아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AIDS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으로 이뤄져 있다.

: 지속가능개발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고 빈곤을 감소하고자 UN에서 2015년에 채택한 목표로서 2030년까지 이행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담고 있다. MDGs와 달리 환경, 사회, 경제의 영역을 포괄하여 빈곤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닌 전 세계 UN 회원국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 국제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GPE

국제교육파트너십은 빈곤 국가의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에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공여기관,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재단, 기업,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교육 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높이고자 2012년 제67차 UN총회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 주도로 출범한 범세계적 이니셔티브이다. GEFI는 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 양질의 교육, 세계시민교육의 증진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베이징선언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말미에 채택된 결의안으로서 처음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로드 맵을 제시했다. 선언에는 'UN헌장에 천명된 남녀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성, 기타 세계 여성의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문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인도적 지원의 질과 책무성에 대한 핵심 기준

Core Humanitarian Standard 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CHS

인도적 지원 책무성 파트너십Humanitarian Accountability Partnership, HAP, People In Aid, 스피어 프로젝트The Sphere Project가 공동으로 인도적 지원의 기준에 일관성을 확립하고자 수립한 기준이다. 이 원칙은 인도적 지원 활동가, 재난과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

NGO, 네트워크, 정부, UN기구, 공여기관 및 학계의 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졌으며, 위기에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 및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인도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인도적 지원의 기준을 일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국제사회가 기존 국제 조약 및 선언 등을 통해 확인한 인권 관련 규범, 기준 및 원칙들을 개발계획, 정책 및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전통적인 원조에서의 공여자와 수혜자 관계는 의무부담자와 권리보유자로 개편되어, 시혜적 의미의 개발이 아닌 사람의 권리를 실현할 책무로서 개발을 인식할 수 있다.

: 비정부기구 /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를 칭하는 용어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비영리기구Non-Profit Organization, NPO,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가 혼용된다.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비정부기구,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비영리기구라는 용어가 활용되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들이 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거나 각종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하는 단체라는 좁은 의미를 지닌다.

국제개발협력 기관

UN기관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1941년 8월,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은 대서양헌장을 통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의 평화 정착 희망을 표명했으며, 1942년 1월 연합국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서명했다. 이 선언은 대서양헌장에 구체화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 행동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 노력을 천명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이라는 용어를 이 선언에서 최초로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UN은 국제 평화,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 경제 · 사회 · 문화 · 인도적 문제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 역할을 한다. UN의 주요 기능은 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② 경제적 · 사회적 개발 증진 ③ 인권 보호 ④ 인도주의 실현 ⑤ 국제법 발전 촉진 등이다. UN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의 주요 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org

: UN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UN 전문기구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 국제기구로서 UN헌장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UN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UN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UN의 전문기구이다. 각국의 노동 입법 수준을 발전시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정책과 행정 · 인력 자원을 훈련시키며, 기술을 지원하고, 협동조합과 농촌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지원한다. 1919년 베르사유조약 제13편(노동 편)을 근거로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lo.org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IFAD의 주요 임무는 대상국의 농업 개발을 지원하며, 농업 환경에 맞게 농작물 개량 · 축산 · 사료 · 농축산 금융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IFAD의 주요 사업은 농축 산업 관련 부문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 분야는 포괄적이어서 농축 산업 직접 육성을 위한 금융 사업, 즉 협동농장, 협동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구의 현대화와 이와 관련한 물품의 수입 · 생산 · 판매 등 제반 시설 관련 지원 업무도 주요 사업의 일부분이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한국은 1978년에 가입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fad.org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 및 제한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로서 1953년 12월 8일 제8차 UN총회에서 제안되었고, 1956년 80개국의 서명을 받아 1957년 7월 29일에 발족했다. 세계의 평화 · 보건 · 번영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에너지가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 보건 안전상 기준 제시,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 원조 모색, 과학기술 정보와 전문가의 교환, 방사능 보호 시설의 설치 · 관리 등을 담당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aea.org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TO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흡수 · 통합해 명실공히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기존의 GATT는 정식 국제기구가 아닐 뿐더러 공산품 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분쟁 해결 능력도 미흡했다. 이에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 무역자유화 역할을 강화한 국제기구로서 1995년 WTO가 출범하였다. 1967년 GATT 회원국이 된 한국은 WTO 출범과 함께 WTO 회원국이 되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2016년 현재 164개국 회원국과 20개국의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to.org

UN 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964년 3월부터 6월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회 UN 무역개발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1964년 12월 UN총회에서 UNCTAD를 UN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남북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은 1964년에 가입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년에 설립된 WHO는 세계보건기구 헌장 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제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당국 간 조정 및 감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WHO는 매년 합동 지원 요청Consolidated Appeals Process, CAP에 참여하여 결핵, 소아마비, 혈액 안전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국제적인 보건 사업을 지도하고 요청 국가의 보건 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다. 특히 질병 퇴치, 영양, 주택, 위생, 근로 조건, 환경 위생, 산모 및 아동의 건강 증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건 및 의료 관련 과학, 교육 등도 다루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ho.int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저작권을 다루는 베른조약과 공업소유권을 다루는 파리조약의 관리 및 사무기구상 문제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 조약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1974년에 UN 전문기구가 되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ipo.int

UN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UNESCO의 주요 임무는 교육 · 과학 ·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진하여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국가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식 유지 · 촉진 · 보급 등에 필요한 국제협약을 권고 · 채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은 교육, 자연과학, 인문 · 사회과학, 문화, 소통 및 정보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걸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esco.org

UN 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UNIDO는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UN의 전문기구이다. UNIDO는 개발도상국 공업 개발 확대 및 근대화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과 기술 원조를 촉진한다. UN 내 공업 활동과 관련한 중앙 조정기관의 임무를 가지며, 개발도상국의 공업 개발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계획 작성 및 기술 원조를 행하고, 공업 관계 표준화 및 데이터 정보를 수집 · 분석 · 발행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ido.org

UN 아동기금(유니세프)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CEF는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여성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서 1946년 12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19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영양, 예방 접종, 식수 문제 및 환경 개선, 기초 교육 등을 지원한다. 1950년 3월 25일 한국 정부와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icef.org

UN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FAO는 모든 사람들의 영양 기준 및 생활수준 향상, 농촌 인구의 소득 증대를 통한 세계 경제 발전과 기아 근절 도모를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또한 FAO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홍수, 대규모 가축 질병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농업 생산 재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개발 사업과의 연계도 중시해 왔다.

- 인터넷 사이트: www.fao.org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UN 산하 국제 인권 전문기구로서 1993년 UN총회를 통해 설립되었다. 조직의 지도자인 고등판무관은 UN 사무차장급이며, UN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UN의 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ohchr.org

: UN 보조기구Subsidiary Organization

UN 보조기구란 UN헌장상의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헌장 규정에 근거하여 일방 행위로 창설하는 기관이다. UN은 UN총회와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기구, 프로그램, 기금 형태의 다양한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DP는 UN헌장 정신에 입각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 정치적 자립과 경제 · 사회 발전 달성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 개발 목표에 일치하는 원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 · 사회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UN 산하기관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dp.org

UN 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

1951년 1월 1일에 조직된 UN 보조기구이다. 국제난민기구IRO의 후신인 UNHCR은 박해받을 수 있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구제 사업 대상은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인 자를 비롯하여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박해받거나 우려가 있어 자국을 탈출한 자,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본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자,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 등이다. UNHCR은 세계 사무소를 통해 쉼터 · 음식 · 물 등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각국 정부가 난민 및 비호 신청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주력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hcr.org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환경 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총회 산하에 설치된 환경 관련 종합 조정기관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UNCHE의 인간환경선언 결의에 따라 UN총회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기구로 설립되었다.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촉진, 국제적 지식 증진, 지구 환경 상태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1972년에 가입하였으며,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ep.org

UN 여성기구UN Women

2011년 1월, UN은 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여성 관련 기구였던 UN 여성개발기금UNIFEM, UN 경제사회국 여성지위향상부UNDESA, 여성과 성 평등gender 이슈에 관한 특별보좌관실, UN 여성지위향상연구조사원을 통합하여 UN 여성기구를 새롭게 설립했다. 사무차장급의 책임 지위를 신설하여 성 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각국 UN기구에 여성 문제 자문관을 두어 국가 현장에서 UN 정책에 대한 성性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women.org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UN총회의 보조 기관 중 하나로서 UN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 ·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 하나였던 UN 인권위원회UNCHR를 개편 · 발전시켜 2006년 6월에 새로 설립하였다.

- 인터넷 사이트: www.ohchr.org/en/hrbodies/hrc

(참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UN 특별보고관 및 독립전문가는 UNHRC에서 임명된 전문가로서 UN의 특별 보고 메커니즘을 위해 인권 문제를 조사, 모니터, 권고, 대외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및 감시 후 권고 사항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거나 인권 상황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행하기도 한다.

UN 인도주의업무조정국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OCHA

UN사무국 기구 중 하나로서 1991년 12월 UN총회에서 결의돼 발족되었다. 1972년도에 생긴 UN 재난관리국을 대체하여 출범했으며 재난 대응, 긴급구호와 정책 제시, 인도주의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ocha.org

UN 에이즈계획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

각 국가들의 에이즈 관리 및 예방 사업을 돕고자 1996년 1월 창설된 UN 산하의 에이즈 전담기구로서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으며, UN 개발그룹의 회원 기구이다. UNAIDS는 각 국가에 에이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HIV의 확산을 막는 한편, 감염 또는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호 · 지원하고, HIV에 대한 개인과 집단의 방어 능력을 키우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aids.org

UN 인간정주계획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UN 인간정주계획은 인간의 정주定住에 관련된 주요 과제, 다시 말해 주택 · 환경 · 교통 · 도시 개발 · 빈곤 등을 다루는 기구이다. 1975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차 UN인간정주회의Habitat I 에서 인간의 정주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 창설하였다. 20년마다 개최되는 UN인간정주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담과 도시 정부가 참여하는 회의, 그리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NGO 회의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매번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국이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habitat.org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IOM은 이주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51년에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이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이주자의 보호를 위해 1988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om.int

: 기타 이니셔티브

UN 고등교육연합UN Academic Impact, UNAI

UN공보국 산하의 이니셔티브로서 2010년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됐다. UNAI는 고등교육기관과 UN 연구를 연계하면서 지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되는 새로운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10개의 허브 대학과 1,000여 개의 회원 기관이 연합하여 활동한다.

- 인터넷 사이트: academicimpact.un.org

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2012년 UN 반기문 사무총장에 의해 출범한 이니셔티브이다. 국제적으로 과학적 · 기술적 전문성을 동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제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동한다. SDGs의 구상 과정에 기여했으며 SDGs의 국별, 지역별, 글로벌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학습을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접근을 도모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sdsn.org

UN 세계기업협약기구UN Global Compact, UNGC

UNGC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주창하여 2000년 7월에 창설되었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 전략을 UNGC의 10대 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가입 기업이 기업 전략 및 사회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경제 및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정당하며 포괄적으로 번영 · 번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unglobalcompact.org

UN 개발그룹UNDG

UNDG는 국가적 차원에서 UN 개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7년 UN 사무총장에 의해 창설된 UN 개혁 수단이다.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을 소집 가능한 UNDG는 함께 일하는 소속 기관 승인, 국가 이슈 분석, 지원 전략 계획, 지원 프로그램 이행, 결과 모니터링, 변화를 위한 주창 등과 관련한 정책 및 절차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는 각 국가들이 빈곤 감축을 포함한 MDGs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에 있어 UN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UNDG에는 WHO, FAO를 비롯한 총 3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UNDG 집행위원회는 창설위원회인 UNICEF, UNFPA, WFP, UNDP로 이뤄져 있다. 집행위원회는 기금과 프로그램 작동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UNDG의 메커니즘을 관리하고 있다.

UNDG 참여 기관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이트: undg.org

국제개발협력 기관

UN 외 국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처음 출발한 OECD는 1961년 비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마셜 플랜을 통한 유럽의 부흥 정책에 발맞춰 설립된 OECD는 지금에야 선진국들의 모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기구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oecd.org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

1960년 OEEC 내 개발원조그룹DAG으로 출발한 OECD DAC는 1961년 OEEC가 OECD로 개편되면서 DAC로 개칭되었다. DAC는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중요한 정책 행위자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 DAC 산하에는 통계 작업반WP-STAT, 원조효율 및 원조관행 작업반WP-EFF, 개발 평가 네트워크EVALUNET, 남녀평등 네트

워크GENDERNET, 환경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ENVIRONET, 빈곤 퇴치 네트워크POVENET, 공공 관리 네트워크GOVNET, 분쟁 · 평화 및 개발협력 네트워크CPDC 등 여덟 개 작업반이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oecd.org/dac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국제 범죄를 범한 개인을 심리 · 처벌하는 국제재판소로, 2002년 7월에 설립되었다. 1948년 12월 채택된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의 제6조 '범인을 심리 · 처벌하는 기관으로서 행위지의 국내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에 따라 UN총회에서 ICC에 관한 예비 검토를 지시했다. 1998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UNCP에서 ICC 설립에 관한 로마선언이 채택되었다. 1953년에 작성된 국제법위원회ILC 개정 초안을 보면 ICC는 상설로 하며, 헌법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국제법상 범죄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icc-cpi.int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

IUCN은 전 세계 자원 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UN의 지원 아래 1948년에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IUCN은 자원과 자연의 관리 및 동식물 멸종 방지를 위한 국제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서식지나 자생지 또는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보호 전략을 마련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글란트에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ucn.org

국제개발협력 기관

국제금융기구

: UN기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44년에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되어, 1947년 3월부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이다. 흔히 IMF와 IBRD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 한다. IMF는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가맹국의 고용 증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IMF가 하는 주요 활동은 ① 외환시세 안정 ② 외환 제한 철폐 ③ 자금 공여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imf.org

세계은행그룹Wolrd Bank Group, WBG

WBG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1945년 창설), 국제개발협회IDA(1960년 창설), 국제금융공사IFC(1956년 창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1988년 창설),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1966년 창설) 등 다섯 개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본다면 세계은행은 중 ·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중장기 개발자금을 지원하는 IBRD와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을 지원하는 IDA로 구성되어 있다. IBRD의 주요 재원은 회원국의 출자 자본금 · 차입금 · 이익 잉여금 · 운용 수익 등이고, IDA의 경우에는 IBRD로부터의 이전 수입 · 재원 운용 수익 · 회원국의 출연금 등이다.

산하기관 중 IFC는 세계은행이 승인한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지원한다. 또 다른 기관인 MIGA는 세계은행 회원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외국 기업이나 개인 투자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ICSID는 국가 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wbg.org

: 그 외의 국제금융기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DB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1959년 12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다자간 지역개발기구로, 회원국은 2015년 현재 총 48개국이다. IDB의 설립 목적은 중남미 지역 개도가맹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종합적 · 개별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중남미 지역 통합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IDB 그룹은 다자간 투자기금MIF 및 미주투자공사IIC로 구성된다. MIF는 공여와 투자를 통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IIC는 중소 규모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adb.org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ADB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위해 1966년에 설립된 지역개발금융기구이다. ADB의 설립 구상은 1963년 3월 UN 아시아 · 극동경제위원회의 19차 총회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동 위원회에서 1965년 8월에 ADB 설립을 위한 설립보고서와 협정문을 확정했으며, 그해 12월에 개최된 아시아경제협력에 관한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66년 8월에 ADB 설립을 위한 15개국의 국내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 도쿄에서 32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ADB의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 2015년 현재 48개 회원국(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ADB의 주요 업무는 회원국의 출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 일반 재원의 투 · 융자, 아시아개발기금ADF의 융자, 기술 지원, 협조 융자 등이다. ADB의 자금 지원 형태는 유상차관, 무상증여, 기술 협력, 신용 보강, 지분 투자, 협조 융자 등 다양하다. 이 중에도 유상차관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데, 유상차관은 일반 재원 및 특별 기금의 ADF 재원으로만 지원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adb.org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AfDB는 투 · 융자 사업과 기술 지원 등으로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개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4년 9월에 설립되었고, 1973년에는 역외 자금 조달을 통해 역내국에 양허적 대출을 제공하는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이 설립되었다. 2015년 현재 80개 회원국(아프리카 국가 54개, 비아프리카 국가 26개)을 대상으로 대출, 지분 투자, 지급보증,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afdb.org

유럽부흥개발은행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EBRD는 1991년 중앙 ·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이 민주주의 환경 내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설립되었다. 2015년 기준 EBRD 회원국은 총 63개국이다.

EBRD는 해당 국가가 시장지향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 부문과 기업 부문의 이니셔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금융기구들이 순수하게 역내 가맹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과는 달리 EBRD는 정치 · 경제 체제의 전환을 개발금융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는 EBRD의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협정문 제1조에서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및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중동부 유럽 국가의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 및 기업가의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과 부흥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ebrd.org

국제개발협력 기관

국가 간 협의체

주요 20개국Group of 20, G20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끌던 G7, EU 의장국, 그리고 12개의 신흥국 및 주요 경제국들을 더한 20개 국가의 모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융, 외환 등과 관련된 국제적 위기 대처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 9월 G8 재무장관회의에서 G20 창설에 합의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08년 11월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에는 정상회의급으로 격상되었고, 2010년에는 한국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주요 8개국Group of 8, G8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 국가들의 모임으로서 1975년에 프랑스가 G6(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정상회의를 창설한 이후 캐나다가 합류하여 G7이 되었고, 이어서 러시아가 추가되어 G8로 거듭났다. 매년 정치와 경제 문제에 대해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77그룹Group of 77, G77

G77은 UN 내 개발도상국들의 연합체이다. 개발도상국 간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77개국으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134개국이 가입해 있다.

브릭스BRICS

브릭스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브라질(B), 러시아(R), 인도(I), 중국(C), 남아프리카공화국(S)의 신흥 경제 5개국을 지칭한다.

원래 브릭스는 1990년대 말 이후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가능성이 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 4개국 간 협의체였다. 이들 국가는 일부 선진국들의 독점적 세계 경제 구조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 모임인 브릭스정상회담BRICS Summits을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후 2011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됨에 따라 기존 BRICs의 소문자 s를 대문자로 변경하여 BRICS가 되었다.

믹타MIKTA

믹타는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터키 · 한국 · 호주가 참여하여 만든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UN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발족하였다. G20 회원국 가운데 G7 또는 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기준 경제 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를 차지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UN의 전문 기관인 세계기상기구WMO와 UN 환경계획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한다. 독자적인 연구를 추진하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UNFCCC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군소도서 국가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해수면 상승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대서양 군소도서국들의 국제기구이다. 1990년에 설립된 AOSIS는 군소도서 개발도상국SIDS이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동한다.

국제개발협력 기관

국제 NGO

개발 NGO 연대Alliance 2015

Alliance 2015는 유럽 지역의 6개 개발 NGO가 MDGs 추진을 위해 연대한 모임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를 돕고, 캠페인을 통하여 대중들의 여론을 형성하여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빈곤 퇴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alliance2015.org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CSOs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CPDE는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개발효과성 논의를 위해 출범한 국제 시민사회 플랫폼이다. CPDE는 현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 집행위원회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CPDE 동북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csopartnership.org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MSF

1971년 12월, 진보적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인권 유린 및 대량 학살 피해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단체이다. 각종 재난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펼치는 한편, 재난 현장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규모 백신 캠페인, 현지 의료진에 대한 훈련과 감독, 수질 및 위생 관리, 자료 수집, 급식, 진료, 모자 보건,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보급, 정신 건강 관리, 병원과 진료소 복구, AIDS 예방과 관리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msf.org

국제기아대책기구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FHI

1971년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래리 워드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업, 식수, 위생, 보건, 영양, 아동, HIV/AIDS, 소액금융, 긴급구호, 재난 구호, 장기적인 지역개발 활동 등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fhi.net

국제사회책임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표준을 개발 · 이행함으로써 작업장과 노동자 공동체를 발전시키려는 인권 단체이다. SAI는 기업인들에게 작업장 기준에 대해 교육하고, 회사들이 합의된 표준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조직에 인가를 발행해 준다.

• 인터넷 사이트: www.saintl.org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 및 고문하는 일을 고발하고, 정치범 석방 및 고문 · 사형 폐지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이다. 1961년에 창설되어 2015년 현재 160여 개국에 80여 개 지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조약 비준, 캠페인, 사형 폐지를 위한 이론적 근거 제공, 인권학교 개설, 국회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 각종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이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amnesty.org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Earth International, FoEI

1971년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등 4개국 지구의 벗 조직에 의하여 FoEI가 결성되었다. 현재는 75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며 세계 3대 민간 환경단체가 되었다.

FoEI는 인간의 부주의와 무차별한 개발로 인해 손상된 지구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 지구의 생태적 · 문화적 · 민족적 다양성을 보존하며, 대중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함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foei.org

그린피스Green Peace

1971년, 알래스카 암치카 섬에서의 반핵 시위를 계기로 태동한 그린피스는 핵무기 반대 의지와 환경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결합되어 탄생했다. 주요 활동 영역은 삼림 및 해양 보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 금지, 재활용 에너지의 사용 촉진,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유전자 변형 방지, 핵 오염과 핵 위험의 종결, 포경 금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greenpeace.org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 NT

NT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옥타비아 힐, 로버트 헌터, 하드윈 론즐리 등 3명의 박애주의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장소 및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 기부 · 증여를 통해 운영되는 NT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호주, 한국 등 26개국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자연 신탁 국민운동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nationaltrust.org.uk

국제지뢰금지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1992년 10월 설립된 국제지뢰금지운동은 대인지뢰의 사용 · 생산 · 비축 · 이전을 반대하며, 지뢰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원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1997년 12월 오타와 지뢰금지 협약을 비준하는 데 성공했으며, 100여 개국에서 1,100여 개의 개별 NGO와 연계해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icbl.org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이다. 1919년 영국에서 처음 설립된 이래로 현재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977년에는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을 설립했

다. 전 회원국이 보건 및 영양, 교육, 아동 보호, 아동 권리 거버넌스를 핵심 과제로 삼아 활동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sc.or.kr

아시아개발연대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ADA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별 개발 NGO 협의체들의 네트워크이다. 2013년 '2015,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한 아시아의 목소리'라는 모토로 발족된 이후 UN 2030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창립 이후 2014년까지 KCOC가 사무국을 맡았으며, 2015년 이후로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이 ADA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ada2030.org

액션에이드Action Aid

1972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2003년 Action Aid International을 구성한 개발 NGO로, 지구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 45개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GCAP의 회원으로서 정책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Action Aid UK는 원조의 양적 · 질적 개선, 부채 탕감 등의 이슈를 지구적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삼고, 이를 선진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개발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actionaid.org

옥스팜Oxfam

1942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옥스팜은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 최대

규모의 개발 NGO로, 세계화 · 공정무역 정책 · 민주화와 빈곤 퇴치를 포함한 국제개발 이슈와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옥스팜은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94개 국가에서 1만여 명의 직원, 3,500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옥스팜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영역은 공정무역, 교육, 국가 부채와 원조, 생계, 보건, 성평등, 분쟁과 자연재해, 민주주의와 인권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oxfam.org

월드비전World Vision

월드비전은 빈곤과 불의를 타파함으로써 아동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가 각각의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독교 인도주의 구호단체이다. 월드비전은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아동들을 돕고 있다. 변화를 가져오는 지역개발 사업, 국제 구호 사업, 애드보커시 사업 등 3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orldvision.org

일본국제자원봉사자센터Japan Volunteer Center, JVC

1980년, 태국에 유입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인도차이나 반도로 건너간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시작된 JVC의 활동은 난민에 대한 긴급구호부터 시작해 농촌개발 사업으로 이어졌다. 현재 JVC의 사업은 농촌개발 사업 외에도 긴급구호 활동과 평화 운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여 나라에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ngo-jvc.net/en/

전 지구적 빈곤 퇴치 운동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GCAP

GCAP는 MDGs와 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가 공언한 약속들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05년에 출범한 네트워크이다.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개발 NGO, 시민사회단체, UN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불평등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SDGs 이행 촉구 활동을 한다.

• 인터넷 사이트: www.whiteband.org

케어CARE

케어는 전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일하는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이다. 특히 케어는 가난한 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일하게끔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초 교육의 강화, HIV 예방, 식수와 보건으로의 접근성 강화, 경제적 기회의 확장, 자연 자원을 보호, 긴급구호 및 회복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care.org

A4SD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4SD는 2016년에 IFP, CIVICUS, GCAP, CAN 등이 UN 2030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공동으로 발족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국별 협의체 · 단체 · 개인이 참여하여 SDGs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별 · 지역별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아울러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action4sd.org

BOND British Overseas NGOs for Development

영국의 개발 NGO 협의체로, 1993년에 창설되었다. 국제개발과 개발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50개 이상 영국 개발 NGO들의 네트워크이다. BOND는 개발 정책 및 개발 관행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영국 정부 및 EU 간 교류를 증진하고, ODA 정책과 관행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대정부 및 EU와의 관계에서 개별 개발 NGO들을 대신해 대표성을 가지고 협력하며, 개발 정책과 제반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bond.org.uk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IVICUS는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국제 동맹이다. CIVICUS의 주요 활동은 ① 정부, 기업, NGO 간 파트너십 증진과 파트너 간 협력 속에서 시민사회 역할의 강화 ②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건실한 재정 환경과 규제 환경에 대한 애드보커시 활동 ③ 출판 사업, 신문, 이메일 회보, 웹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한 시민사회 홍보 ④ 인적 자원과 정보의 교류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civicus.org

CONCORD

2003년에 창설된 CONCORD는 EU 내 개발과 구호를 위해 활동하는 1,600개 이상의 NGO가 참여하는 21개의 국가 연합체와 19개의 국제 네트워크들의 연합이다. CONCORD는 개발 NGO들이 EU 정부 기관들과 협력하여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합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의 양적 · 질적 증대, 개발 정책의 일관성, EU 기관과 시민사회 간의 정책적 대화 확대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concordeurope.org

GAA German Agro Action

GAA는 1962년 FAO가 펼쳤던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Freedom from Hunger Campaign'의 독일위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1969년에 위원회는 GAA로 이름을 바꾸고 국제 NGO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GAA는 아프리카 · 아시아 · 중남미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아프리카는 GAA가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으로, GAA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24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welthungerhilfe.de

IFP International Forum of National NGO Platforms

IFP는 아프리카 · 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의 62개 국가별 협의체, 2만 2,000여 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 IFP는 2008년에 인권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불평등과 사회 부정의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한국에서는 KCOC가 이사단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ifp-fip.org

Mercy Corps

Mercy Corps는 안전하고, 생산적이며,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고통 · 빈곤 ·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에 소명을 둔다.

Mercy Corps 직원의 95%는 현지인으로 Mercy Corps의 비전을 받아들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 나름의 해결책으로 풀어 간다. 1979년 설립된 이래 40개국 이상에서 17억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 인터넷 사이트: www.mercycorps.org

NPA Norwegian People's Aid

1929년에 창설된 NPA는 인권과 분쟁 예방, 민주화 지원, 지뢰 제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특화된 개발 NGO이다. 노르웨이 최대의 난민 지원 단체로, 국제적으로도 여러 국가에서 난민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npaid.org

Social Watch

Social Watch는 MDGs 추진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언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에 목적을 둔 국제 연대이다. Social Watch는 각 회원국 시민사회단체들이 SDGs 이행 상황에 대해 보고한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Spotlight Report》발간을 담당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socialwatch.org

TAP Network 투명성, 책무성, 참여 네트워크

Transparency·Accountability·Participation Network

TAP Network는 UN 2030지속가능발전의제를 이행함에 있어 공개적·포용적이며, 책무성 있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핵심에 두고자 활동하는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특히 거버넌스 이슈 중에서도 SDGs 이행 과정의 기획,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

함으로써 SDGs 이행의 책무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tapnetwork2030.org

The Reality of Aid

The Reality of Aid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국제 NGO 이니셔티브로,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상황 분석과 로비 활동에 중점을 둔다.

• 인터넷 사이트: www.realityofaid.org

Together2030

Together2030은 SDGs 이행을 증진하고,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에 만들어진 시민사회 네트워크이다. Together2030은 Post-2015 개발의제 수립과 이행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강력한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하여 130개 이상의 국가와 1,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활동했던 Beyond 2015의 후속 기구로서 출범하였다.

• 인터넷 사이트: www.together2030.org

국제개발협력 기관

국가별 원조기관

그리스

Hellenic Aid

www.mfa.gr

네덜란드

DGIS(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ww.government.nl/ministries/ministry-of-foreign-affairs/contents/about-the-ministry

노르웨이

NORAD(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www.norad.no

뉴질랜드

NZAID(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ww.mfat.govt.nz/en/aid-and-development

독일

BMZ(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bmz.de

KfW(Bank for Reconstruction)

www.kfw-entwicklungsbank.de/International-financing/

KfW-Entwicklungsbank

GTZ(German Agency for Technical Cooperation)

www.giz.de

덴마크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um.dk/en/danida-en

룩셈부르크

Lux-Development

luxdev.lu/en

미국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Aid)

www.usaid.gov

벨기에

BTC(Belgian development agency)

www.btcctb.org

스웨덴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www.sida.se

스위스

SDC(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www.eda.admin.ch/sdc

스페인

AECID(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ww.aecid.es/EN/aecid

아일랜드

Irish Aid(Ireland's official overseas development programme)

www.irishaid.ie

영국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

오스트리아

ADA(Austrian Development Agency)

www.entwicklung.at

이탈리아

The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openaid.esteri.it/en/cooperazione-italiana

일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ww.jica.go.jp/english

캐나다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www.international.gc.ca/development-developpement/index.aspx?lang=eng

포르투갈

IPAD(Portuguese Institute for Development Support)

프랑스

AFD(Agency Francaise de Development)

www.afd.fr/lang/en

핀란드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min.finland.fi

FINNFUND(Finish Fund for Industrial Cooperation)

www.finnfund.fi/en_GB/etusivu

호주

Australian Aid(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at.gov.au/aid/pages/australias-aid-program.aspx

국제개발협력 기관

재단

재단foundation이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비영리 기관으로, 그중 공익을 위한 많은 수의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빈곤 퇴치, 교육, 공중 보건, 사회복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만 7만 3,000개가 넘는 재단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록펠러 재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등은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매우 활발하게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미국 재단의 지원 자금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백신 및 열대병 등을 연구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개발구호 재단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Relief, FIDR

1990년 일본의 야마자키 제빵 주식회사의 창업자 이지마 도주로의 기부로 만들어진 민간 국제협력 단체이다.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fidr.or.jp

록펠러 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

기업가인 존 록펠러가 세운 재단으로, 약 35억 달러의 자산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 문제, 대학 발전 등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rockfound.org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ill&Melinda Gates Foundation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가 설립한 재단으로, 세계적으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재단 중 하나이다. HIV/AIDS, 말라리아 등의 공중보건과 교육 문제에 공헌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gatesfoundation.org

쉘 재단Shell Foundation

영국에서 2000년에 설립된 재단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환경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빈곤 퇴치를 위하여 아프리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에 힘쓰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shellfoundation.org

슈왑 재단Schwab Foundation

슈왑 재단은 제네바 대학의 교수이자 세계경제포럼의 창설자인 클라우스 슈왑과 그의 아내 힐데가 1998년 전 세계 사회적 기업가들을 지원하고자 설립하였다. 보건, 교육, 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schwabfound.org

스탠리 재단Stanley Foundation

스탠리 재단은 평화, 자유, 정의를 추구하며 세계시민권과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둔 초당파적인 민간 재단이다. 공평하고 공정한 해결책 창출을 위해 차이를 존중하면서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원칙으로 한다.

스탠리 재단은 정책 커뮤니티, 미디어 전문인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일반 대중의 중요한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다. 스탠리 재단의 보고서, 출판물, 프로그램은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이트: stanleyfoundation.org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OSF

1979년에 설립된 열린사회연구소를 전신으로, 1993년 부호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국제 재단이다.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정의, 교육, 공공보건, 독립 언론의 발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opensocietyfoundations.org

포드 재단The Ford Foundation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세운 재단이다. 약 120억 달러 자산으로 가난과 부정 타파, 민주주의 가치 보존,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fordfoundation.org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 FES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일 최초의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의 정치적 유산으로서 1925년에 설립되었다. 사회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가치인 자유, 정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fes.de

국제개발협력 기관

연구소

국제개발연구소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

IDRC는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1970년 캐나다 국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IDRC의 소명은 지식을 통해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 주요 역할은 개발도상국들이 인지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 작업과 전문적 자문 제공,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가 연구와 혁신을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IDRC 연구의 주요 4대 주제는 ① 환경과 천연자원 관리 ②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③ 혁신, 정책, 과학 ④ 사회경제 정책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idrc.ca

랜드연구소Rand Corporate

1948년에 설립된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외교, 군사 정책 연구소이자 세계적인 싱크탱크이다.

비영리 민간 연구소로 연구소 주도의 리서치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 정치, 국방, 교육, 에

너지, 교통 등 사회 여러 분야의 공공 정책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소 산하 대학원에서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rand.org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10년 앤드루 카네기에 의해 설립된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외교 정책 싱크탱크이다. 이 기관은 국가 간 협력 및 미국의 적극적인 국제사회 개입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특정 정당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국제기구, 비확산, 미국 외교 정책, 에너지와 기후, 무역과 평등과 개발, 사회와 정치 등이다. 모스크바, 베이징, 베이루트, 브뤼셀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은 글로벌 싱크탱크로 도약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carnegieendowment.org

트랜스내셔널 협회Transnational Institute

1974년에 설립된 국제 조직으로서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다. 민주화, 환경, 경제적 평등 문제 등을 포함한 세계화 관련 각종 문제 연구와 대안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 www.tni.org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

런던에 있는 ODI는 구제 개발과 인도주의적 이슈를 다루는 영국의 선도적 독립 연구 기관이다. ODI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고통을 없애며,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정책 및 실행을 개발하고 알리는 일에 소명을 둔다.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는 농업, 원조, 비즈니스 및 민간 부문, 아동 및 청소년, 빈곤, 기후변화, 분쟁과 안보, 경제 성장, 식량, 외교 정책, 취약 국가, 산림, 젠더, 거버넌스와 정치, 글로벌 거버넌스, 보건, 불평등, 이주, 무역, 도시 문제, 관광, 식수와 보건 등이다.

• 인터넷 사이트: www.odi.org.uk



국제회의

: 아동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아동복지연맹총회General Council of the Union for Child Welfare는 1923년 2월 23일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의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UN 아동권리선언195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선언은 아동 권리에 관한 10가지 원칙을 두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UN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년

아동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90년 9월에 2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각종 아

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조약 당사국들은 최대한의 입법 · 사법 ·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에 비준했다.

세계아동정상회담1990년, 뉴욕

전 세계 71개국 국가 원수를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아동 권리 선언과 국가 행동 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UN총회 27차 특별 세션2002년, 뉴욕

2002년 5월에 열린 이 특별 세션은 UN총회가 세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전례 없는 회의였다. 특별 세션에는 세계 정상과 NGO 대표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 세션의 목적은 1990년 아동정상회담의 이행 결과를 검토하고,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적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 여성

1차 세계여성회의1975년, 멕시코시티

'지위status'라는 개념을 여성이 자신의 생활 조건에 대해 갖는 통제력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정의했다. 개발 정책이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무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이 개발 과정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주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회의이다. 이 회의의 직접적인 결과로 UN 국제여성연구훈련원INSTAW과 UN 여성개발기금UNIFEM이 설치되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년

1979년 34차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81년 9월 3일 발효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선거 등의 공적 생활, 국적, 교육, 고용, 가정생활 및 혼인 관계 등에서의 평등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

2차 세계여성회의1980년, 코펜하겐

여성에게 주어진 권리와 이를 활용할 능력 간의 불균형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평등 · 개발 · 평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①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② 고용 기회에 관한 동등한 접근 ③ 적합한 보건 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접근 등 세 가지 영역을 확정했다.

3차 세계여성회의1985년, 나이로비

1만 4,000여 명이 참가하여 'UN 여성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마무리했다.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157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주류화mainstreaming 관점이 확립된 회의다.

여성폭력철폐 선언1993년

이 선언에서는 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유의 박탈, 협박, 폭압 등 여성의 물리적 · 성적 ·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사적 ·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젠더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폭력."

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베이징

각국 정부들은 성인지적 관점이 모든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이 회의의 산출물인 베이징행동강령은 '권리'라는 말을 500회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성 평등을 위해 일하는 여성단체와 정부들에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건이다.

: 장애

아 · 태 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회의2012년, 인천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2012년 11월 송도에서 열린 정부 간 고위급 회의에서 '3차 아시아 · 태평양 장애인 10년(2013~2022년)' 동안 아 · 태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담은 인천전략을 채택했다. 인천전략은 10개 목표와 27개 세부 목표,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62개 지표로 구성된다.

: 식량

세계식량회의1974년, 로마

모든 사람은 신체적 · 육체적 기능 발달을 위해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다.

영양에 관한 국제회의 1992년, 로마

영양에 관한 첫 국제회의는 FAO와 WHO의 후원을 받아 로마에 있는 FAO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159개국 대표들과 16개 UN기관, 11개 국제기구, 144개 NGO가 모여 기아와 영양실조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식량정상회담 1996년, 로마

FAO 주도로 개최된 회담으로,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선언 및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국 정부가 기아를 해소시키며, 기아의 근본 원인인 가난 극복을 최우선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정치적 의지를 확립할 수 있었다.

세계식량정상회담+5 2002년, 로마

1996년 정상회담 결과의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기아 근절에서 이뤄진 진보를 고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평가 결과 매년 600만 명 정도가 영양부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세운 목표치였던 영양 부족 인구 연간 2,200만 명 저감을 크게 밑도는 수치였다. 이 회의에서는 농업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늘리는 방법과 농촌 개발 방법이 주로 논의되었다.

식량 안보 정상회담 2008년, 로마

'기후변화와 바이오 에너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FAO가 주최한 이 회의에서는 글로벌 식량 위기로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긴급구호를 비롯한 단기 대응책의 실행이 촉구되었다.

: 인구

1차 세계인구회의1954년, 로마

이 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확보되었다. 또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 분석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역훈련센터 설립이 추진되었다.

2차 세계인구회의1965년, 벨그라드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과 UN에 의해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개발계획 정책의 한 방편으로서의 다산fertility에 초점이 맞춰졌다.

3차 세계인구회의1974년, 부쿠레슈티

세계 135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이 회의 결과, 세계인구 행동계획World Population Plan of Action이 도출되었다. 이는 인구 변수와 개발 간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인구 정책과 목표를 사회경제 개발 정책의 필수 요소로 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세계인구회의1984년, 멕시코시티

이 회의에서 미국은 가족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완화했고, 인구 성장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5차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1994년, 카이로

인구 문제 해결 없이는 각국의 개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열린 회의이다. 180여 국가가 참가한 최대 규모의 인구 관련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와 개발에 관한 특별 세션2014년, 뉴욕

2014년 UN총회의 특별 세션으로서 인구와 개발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국제인구개발회의ICPD 20년을 맞아 특별 총회로 개최된 이 회의에서는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논의된 '인구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이행 결과에 따른 향후 과제가 논의되었다.

: 인도적 지원

스톡홀름 회의Stockholm Meeting 2003년, 스웨덴

스웨덴 정부가 2003년에 공여국 · UN기구 · NGO · 국제적십자사 등을 초청해 개최한 회의로, 인도주의적 지원 공여국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이 준수해야 할 23개 원칙에 합의하고 GHD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 채택의 토대를 마련했다. GHD Initiative는 공여국 간 인도적 지원 재정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수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재해 감소를 위한 세계회의2005년, 고베

재해를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간, 주제 간 공공 포럼이라는 주요 방법에 대해 각 주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토의가 이뤄졌다.

제1회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2016년, 이스탄불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인도주의 정상회의World Humanitarian Summit가 2016년 5월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국제사회 지도자들이 세계 인도주의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을 모색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이 회의가 인도주의 활동과 긴급 대응 활동, 특히 분쟁 지역 및 전염병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속력 있게 다룰 수 없음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난민 · 이주민 특별 총회2016년, 뉴욕

2016년 초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UN총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난민 · 이주민 특별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서 국제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에 합의하는 '뉴욕 선언'이 채택됐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난민 · 이주민 문제와 관련한 대규모 공동 대응과 협력이 처음으로 합의되었다. 뉴욕 선언에 의하면 국제사회는 난민 위기 공동 해법의 구체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까지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정례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 개발 재원

경제 개발의 문제점에 관한 카이로 회의1962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개발을 촉진할 것을 제창했다.

1차 UN 무역개발회의 총회1964년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1차 생산품 및 반제품의 수입 목표 설정, 개발도상국 제품 수입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이 논의되었다.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 도하라운드2001년, 도하

처음으로 무역 및 개발에 대한 제반 과제를 폭넓게 다룬 회의이다. 개발도상국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과 기술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기금DDAGTF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G8 개발장관회의2008년, 도쿄

4월에 열린 이 장관급 회의에서는 개발원조를 위한 공여국 간 파트너십 확대 방안과 효과적인 국제원조 체제의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최근 주요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과의 원조 분야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G20 정상회의2010년, 서울

2010년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열린 G20 주요 경제국 정상들의 다섯 번째 모임으로서 금융 시장, 세계 경제를 주제로 다뤘다. 국회의장 간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인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처 노력을 의회 외교 차원으로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차 개발재원총회2002년, 몬테레이

MDGs 채택에 따른 개발 재원 논의를 시작한 회의가 2002년에 몬테레이에서 개최되었다.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를 채택하여 MDGs 달성을 위한 6대 개발 재원으로서 국내개발 재원, 국제개발 재원, 무역, ODA, 외채, 구조적 문제를 규정하고, 2015년 GNI 대비 0.7% ODA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제2차 개발재원총회2008년, 도하

몬테레이 컨센서스 합의 결과의 이행 점검을 위한 후속 회의로서 그 결과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5년 0.7%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 대상국의 노력 필요성과 기후변화 및 식량 위기와 같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확인하였다.

제3차 개발재원총회2015년, 아디스아바바

이 회의는 9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와 함께 향후 지구촌의 미래를 결정할 2015년 3대 국제회의로 불렸다. 회의 결과로서 Post-2015 개발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발 재원의 효과적 조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사항을 'AAAAAddis Ababa Action Agenda'라는 이름의 문서로 채택하였다.

: 기후변화

교토의정서1997년, 교토

UN기후변화협약FCCC에 가입한 160개국 대표들에 의해 채택된 문서로,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즉 선진국들의 의무 감축 목표와 감축 시기를 설정한 의정서다. 미국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한 가운데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UN기후변화 회의2010년, 칸쿤

이 회의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총 8,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UN기후변화 회의2013년, 바르샤바

제19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당사국들이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이후의 '국가별 기여 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2015년 제21차 당사국 총회 이전에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UN기후변화 회의2015년, 파리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

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 목표 아래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 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로 이행 점검을 하는 등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거

제3차 UN인간정주회의2016년, 키토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UN 회의인 제3차 UN인간정주회의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다. UN이 주관하여 1976년부터 20년 주기로 개최되는 UN인간정주회의는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관련 세계 최대의 토론의 장이다. 제3차 UN인간정주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약속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빈곤 문제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회의 결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했다.

: 교육

세계교육포럼2000년, 다카르

세계 200여 개국 장관급 대표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교육 부문에서의 국제개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합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카르 실천 계획'이 채택되었다.

세계교육포럼2015년, 인천

다카르 회의 이후 15년만인 2015년 5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장관급 대표 등 1,600여 명이 참석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목표와 MDGs 교육 관련 목표의 달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로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이라는 비전을 담은 인천선언문을 채택했다.

제66차 UN NGO 컨퍼런스2016년, 경주

UN공보국에서 주최하는 UN NGO 컨퍼런스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세계시민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연례 OECD DAC 고위급 회의2008년, 파리

이 회의에는 22개 DAC 회원국, DAC 비회원국 및 국제개발기구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여 식량 가격 급등, 원조 효과 제고 방안, DAC의 향후 역할 및 기후변화와 개발원조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신흥 공여국 및 거대 민간 원조기관의 부상,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고, DAC의 기능과 구조 관련 개선 사항을 결정하였다.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2009년, 파리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 합의를 통해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OECD DAC 동료 평가 회의2012년, 파리

한국에 대한 OECD DAC 동료 평가Peer Review 최종 회의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료 평가는 OECD DAC 운영의 핵심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로, 매년 4~5개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 집행 체제에 대한 상호 검토를 실시해 회원국 간 정책 ·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2012년의 평가는 한국이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최초로 받은 정기 평가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권고안이 도출되었다.

OECD DAC 각료급 회의2014년, 파리

ODA의 개념을 재정의하여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발맞추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이 각료급 회의에서는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의 ODA 측정 방식 변경,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규모 확대 공약, 민간금융 수단의 활용 및 평화 유지 활동의 ODA 측정 방식 개선 작업 착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총공적 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OECD DAC 각료급 회의2015년, 파리

2014년의 각료급 회의에 이어 2015년 2월에 열린 이 회의에서는 ODA 현대화에 관한 후속 조치(평화 안보 및 민간금융 수단 ODA 통계 보고 지침 개정 등)와 함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을 위한 DAC의 역할, 개발 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 개혁 문제, 난민 위기가 개발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 개발 목표

'단 하나뿐인 지구' UN인간환경회의1972년, 스톡홀롬

환경 파괴와 관련된 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한 최초의 회의이다. 113개국 대표자, 21개 UN기관, 16개 정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했고, 200여 개 이상의 NGO에서 참관자를 파견했다. 이 회의에서 UNEP 창설이 결정되었다.

UN지구정상회담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혹은 '리우정상회담'으로도 불린다. 환경과 개발을 포괄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보여준다. 170개국 이상의 대표자와 108개국의 국가 정상이 직접 대표로 참여하고, 1만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우선언문'과 '의제21'을 채택했다. UN지구정상회담에서 결의된 5개의 주요 문서 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약'이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후 체계에 해로운 인위적인 간섭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대기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였다.

세계사회개발 정상회담 1995년, 코펜하겐

인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초 중 하나인 사회개발 문제, 특히 인권 · 빈곤 퇴치 · 노동 · 외채 · ODA 확대 · 20:20 Compact, 구조조정 정책 이행, 여성의 지위 향상, 환경, 전환기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1996년, 코펜하겐

'코펜하겐선언'이라고도 한다. 사회개발을 위한 20/20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사회개발, 경제적 풍요, 환경의 지속가능성, 남녀평등을 개발협력의 모든 부문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침의 필요성을 OECD DAC에서 제시했다.

어젠다21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UN총회 19차 특별 세션

1997년, 뉴욕

'지구정상회담+5 회의'라고도 부른다. 이 회의에서 각국 대표자들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 이후의 진척 사항을 평가하고, 지구정상회담 전략의 지속적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회를 가졌다.

55차 UN총회 UN 밀레니엄 정상회담 2000년, 뉴욕

UN새천년선언 및 국제사회 공동의 빈곤 퇴치 목표인 MDGs를 발표했다. 인류 최초로 빈곤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정치적 선언 및 목표를 채택했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속개발정상회담2002년, 요하네스버그

1992년 UN지구정상회담에서 채택된 'Agenda 21'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이다. 세계 각국 정부 대표를 포함해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89개국 6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회의로, '요하네스버그선언'과 '이행 계획'이 채택되었다. 이행 계획은 서론, 빈곤 퇴치,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의 변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군소도서Small Island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다른 지역의 이니셔티브, 실행 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UN MDGs 이행 점검 회의 밀레니엄+52005년, 뉴욕

UN, 국제금융기구, OECD 등이 MDGs 실현을 위한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이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개발 재원 마련을 촉구하는 '뉴욕선언문'이 채택되었다.

UN 아프리카 개발 고위급 회의2008년, 뉴욕

9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이 회의는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 관련 국제사회의 최우선 관심사인 아프리카 지역의 M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UN MDGs 정상급 회의2010년, 뉴욕

UN총회 기간 중 UN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MDGs 달성을 위한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목표 시한인 2015년까지 추진할 행동 과제들에 관해 논의했다. 약 90개국 정상 및 정부 수반을 포함한 190개국이 참석했다.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2012년, 리우데자네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1992년 UN환경개발회의를 포함한 주요 지속가능발전회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회의이다. '녹색 경제'라는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과 문서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채택했다.

제4차 UN 개발협력포럼DCF 고위급 회의2014년, 뉴욕

이 회의는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개선을 위해 전 UN 회원국이 참여하는 원조 포럼으로, 2년마다 뉴욕에서 열리고 있다. 'Post-2015 개발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4년 회의에서는 2015년 9월 국제사회에서 채택할 새로운 빈곤 퇴치 목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2015년, 뉴욕

2015년 9월 15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가 열렸다. UN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의 UN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환경,

사회, 경제를 포괄하여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보편적으로 달성해야 할 17개의 SDGs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다.

고위급정치포럼HLPF 2016년, 뉴욕

SDGs의 이행 원년인 2016년, 각 국가에서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하여 UN경제사회이사회 주관의 고위급 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이 열렸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No One is Left Behind'이라는 SDGs 기본 정신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가 국별 자발적 평가National Voluntary Review에 참여하여 SDGs 채택 이후 정책적 이행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 개발효과성

제1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2002년, 로마

OECD 차원의 원조(개발)효과성에 관한 첫 고위급 회의로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로마선언'을 통해 제시했다. 최초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원조의 필요성을 최고위급 정책 결정자가 함께 확인하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2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2005년, 파리

원조 조화를 위한 로마선언(2003) 및 마라케시 공동 메모랜덤(2004)의 주요 원칙을 반영하여 '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파리선언은 협력 대상국의 주인의식, 원조 일치(협력국-공여국), 원조 조화(공여국-공여국), 성과 지향적 관리, 상호 책임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제3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2008년, 아크라

파리선언의 이행과 관련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회의로, 2010년까지 파리선언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아크라 행동 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채택했다. 이 행동 계획을 통해 협력 대상국 주도의 개발 프로그램 수립, 협력 대상국의 재정 · 예산 · 조달 제도 활용 확대, 원조 계획과 원조 자금 사용에 있어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제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회의2011년, 부산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 계획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개발 효과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다. 이 회의 이후 원조효과성 논의를 넘어 효과적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가 도출되었으며 신흥국, 시민사회, 의회, 민간기업 등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추천 도서 목록

번호	분야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1	개관/빈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2	개관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3	개관	사다리 걷어차기	장하준	부키
4	개관	안젤리나 졸리의 아주 특별한 여행	안젤리나 졸리	바람구두
5	빈곤	거대한 역설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교양인
6	빈곤	세계에서 빈곤을 없애는 30가지 방법	다나카 유 외	알마
7	빈곤	세계의 빈곤,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야!	김현주	사계절
8	빈곤	빈곤에서 권력으로 (국가와 시민은 어떻게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던컨 그린	이매진
9	인권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그림을 위한 밑그림)	조효제	후마니타스
10	인권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조효제	교양인
11	인권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한울아카데미
12	인권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르티아 센	갈라파고스
13	인권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지침서	보르안드레아센, 스티븐 마크스	후마니타스
14	인권	들리지 않는 진실	아이린 칸	바오밥

15	아동	안나와디의 아이들 (성장과 발전의 인간적 대가에 대하여)	캐서린 부	반비
16	아동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과 이행 방법 (국문 번역본)	Keeping Children Safe 발행, KCOC 번역	–
17	아동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COC 발행	–
18	여성, 성 평등	히잡을 벗고, 나는 평화를 선택했다	시린 에바디, 아자데 모아베니	황금나침반
19	여성, 성 평등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용어해설집	박진경, 이나영, 조영숙	KoFID 젠더분과
20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슈테판 람슈토르프, 한스 요아힘 셀론 후버	도솔
21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지구와 환경 : 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James Gustave speth, Peter M. Haas	명인문화사
22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	필리프 스콰르조니	다른
23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겨레출판사
24	사회적 경제	블루스웨터	재클린 노보그라츠	이른아침
25	사회적 경제	탐스스토리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세종서적
26	사회적 경제	지구촌 아름다운거래 탐구생활	한수정	파란자전거
27	사회적 경제	진흙, 물, 벽돌	제시카 재클리	21세기북스
28	사회적 경제	정태인의 협동의 경제학	정태인, 이수연	레디앙
29	사회적 경제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발전론)	글린 윌리엄스 외	푸른길
30	인도적 지원	솔페리노의 회상	앙리 뒤낭	대한적십자사
31	인도적 지원	All in Diary, 인도적 지원 사업 수행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조은희 번역	KCOC
32	세계시민성	당신은 세계시민인가	마크게이어존	에이지21
33	공정무역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	코너우드먼	갤리온
34	공정무역	자바트레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커피 순례자	딘 사이컨	황소걸음
35	공정무역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	마일즈 리트비토프, 존메딜레이	모티브북

36	공정여행	희망을 여행하라	임영신, 이혜영	소나무
37	국제개발 협력교육	담장너머지구촌보기 실전시리즈 (초등편/고등편)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OICA, KCOC	–
38	국제개발 협력교육	우리는 세계시민 *KCO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OICA ODA 교육원, KCOC	–
39	국제개발 협력교육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	유네스코 아태이해교육원	–
40	국제개발 협력교육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이상백, 박수연	KOICA ODA 교육원
41	국제개발 협력교육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KOICA ODA 교육원	–
42	자원봉사활동	해외봉사 바로 알고 가기 (KOICA가 알려주는 해외봉사 완벽 가이드)	KOICA	파이카
43	자원봉사활동	자원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니다 (국제자원활동 매뉴얼)	이선재 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4	자원봉사활동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실천 해외봉사활동	김병관	시나리오 친구들
45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도 고민이 필요해	다나카 유	돌베개
46	자원봉사활동	되살린 미래	아름다운 가게	생각정원
47	후원활동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어떻게 세계의 절반을 가난으로부터 구할 것인가)	피터 싱어	산책자

주

1장 국제개발협력 개관

1) 다음 국어사전(검색일 2016.08.31.)

2) 한국국제협력단(2009),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3) 한국국제협력단(2009),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3쪽

4) http://odakorea.go.kr/hz.blltn.DevdicSl.do?top_menu_id=5&left_menu_id=8&sub_menu_id=1&blltn_div=oda&brd_seq=17&bltn_seq=309

5) http://sarangbang.or.kr/kr/info/UN/un1_Dev.html, 〈발전에 관한 권리선언 전문 번역〉

6) 위와 동일

7) http://spinternet.ohchr.org/_Layouts/SpecialProceduresInternet/ViewAllCountryMandates.aspx?Type=TM

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2010), 《슬럼 : 인권, 이곳에 있다》

9) ODI(2013), 〈The Geography of Poverty, Disasters and Climate Extremes in 2030〉

10) UNHCR(2016),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5〉

11) Beyond 2015, Climate Action Network(CAN)(2013), 〈Contributions to the UN Thematic Consultations on Energy〉

12) The World Bank(2013), 〈Turn down the heat : why a 4°C warmer world must be avoided〉

13) The Guardian(2012), 〈An open letter to Obama from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14)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6쪽

15)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1/L02_S01.jsp

16) https://data.oecd.org/oda/net-oda.htm

17) 위와 동일

18)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4), 《대한민국 ODA백서》, 23쪽

19) 국무총리실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자료(2015)

20) 위와 동일

2장 국제개발협력 주제

1. 개발협력 – 빈곤과 불평등

1) http://www.worldbank.org/en/topic/poverty/overview

2) http://www.oxfam.org.uk/get-involved/campaign-with-us/our-campaigns/grow/guide-to-land-grabs

3) Oxfam(2012), 〈'Our Land, Our Lives': Time out on the global land rush〉

4)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world/foreign-investors-are-buying-up-farmland-in-third-world-a-884306.html

5) UN(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6)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59591.html

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17/0200000000AKR20130917002800094.HTML

9) http://www.worldbank.org/en/news/opinion/2013/11/04/bolsafamilia-Brazil-quiet-revolution

2. 개발협력 – 인권

1) 조효제(2016), 《인권의 지평–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38쪽

2) 이성훈(2016),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인권》, KOICA ODA 교육원, 483쪽

3) OHCHR(2006),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FAQ)》, 번역 BASPIA, 11~22쪽

4) KOICA ODA교육원(2016),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시공미디어 492쪽

5) DIHR(2007), 《Applying a Rights–Based Approach》, 1쪽

6) 한국인권재단(2016), 《인권기반 개발협력 애드보커시 수행가이드라인》, 46쪽

7) 두산백과사전, 검색일 : 2016. 9. 14

8) 바스피아(2007), 《RBA핸드북》, 26쪽

9) 조효제(2016),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17쪽

10) 1986년 UN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선언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선언은 발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고, 인간이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며, 전 인구와 모든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 권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3. 개발협력 – 교육

1)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n.d.)(2015), 〈250 Million Reasons to Invest in Education: The case for investment〉

2) UNESCO(200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138~144쪽

3) UNESCO(201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4) Bundy, D. et al.(2009), 《Rethinking School Feeding: Social Safety Nets, Child Development, and the Education Sector》, World Bank.

5) UNESCO(201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6) Filmer, D.(2007), 〈If you build it, will they come? School availability and school enrolment in 21 poor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43》

Glewwe, P. and Kremer, M.(2006), 《Schools, teachers and education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7) Petrosino, A. et al.(2012), 《Interventions in Developing Nations for Improving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Enrollment of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8)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초등교육 학령기 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9) UN(201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5〉

10) www.globalpartnership.org/education/the-benefits-of-education#education-box-sources

11) UNESCO(201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한글판 요약본)〉, 33~37쪽

12) 성 평등 지수Gender Parity Index, GPI: 남학생 대비 여학생 등록률이다. 국제기구에서 남녀 비율의 균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1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여학생 비율이 낮고, 이상일 경우 남학생 비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13) 본 책자 다른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교육 또는 개발교육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 장에서는 전체 흐름상 세계시민교육으로 지칭하였다.

14) OECD(2005), 《Teachers matter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Paris:OECD

UNESCO-UIS(2006), 《Teachers and educational quality : Monitoring global needs for 2015》, Canada: Montreal

박환보(2015), 《중점협력국가의 교원교육 분야 협력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개발원

15) 임진호, 이현석, 김형주(2005), 《교육정보화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6) http://www.itu.int/net4/ITU-D/idi/2015/

17) OECD(2006), 《Are students ready for a technology-rich world? What PISA studies tell us》, Paris:OECD

4. 개발협력 – 아동

1) http://data.unicef.org
2) UNICEF(2014), 〈Issue Briefs: Child Poverty in the Post-2015 Agenda〉
3) http://www.ngokcoc.or.kr/paper/paper.php?ptype=view&code=jin1&idx=4620
4) UNICEF(2014), 〈Issue Briefs: Child Poverty in the Post-2015 Agenda〉
5) http://data.unicef.org/child-protection/birth-registration.html
6) Save the Children(2015), 《Every Last Child Report》
7) http://www.unhcr.org/figures-at-a-glance.html
8) CIDA(2001), 〈Lessons Learn: The need for a new approach〉, 《CIDA's ACTION PLAN ON CHILD PROTECTION: PROMOTING THE RIGHTS OF CHILDREN WHO NEE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9) 세이브더칠드런 시그니처 프로그램 http://signature.savethechildren.net/families/
10) Save the Children (2009) 〈Keeping Children Out of Harmful Institutions〉, 3, 5쪽
11) 유니세프 홈페이지 https://www.unicef.org/media/media_45279.html

5. 개발협력 – 여성과 성 평등

1) http://www.un.org/press/en/2014/sgsm15676.doc.htm
2) 〈베이징행동강령〉 51조
3) http://beijing20.unwomen.org/en/in-focus/poverty
4) 위와 동일

5) 베이징행동강령이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으로서 여성 인권과 양성 평등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12개 분야(빈곤, 교육, 보건, 폭력, 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 결정, 성 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인권, 언론, 환경, 여아)의 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 참석한 189개국 여성 대표들은 만장일치로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에 서명하였다. 이후 이 행동강령은 세계 각국 정부가 양성 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6) http://www.fao.org/gender/infographic/en/

7) 위와 동일

8) http://beijing20.unwomen.org/en/infographic/poverty

9) 위와 동일

10) 위와 동일

11) http://beijing20.unwomen.org/en/in-focus/health

12)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3-2014》, 30쪽

13) 위와 동일

14) http://mdgs.un.org/unsd/mdg/Resources/Static/Products/Progress2014/Gender%20Chart%202014.pdf

15) http://www.who.int/topics/millennium_development_goals/maternal_health/en/

16) 위와 동일

17) http://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cts-and-figures, 〈Facts and Figure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18) 위와 동일

19) http://www.unfpa.org/resources/female-genital-mutilation-fgm-frequently-asked-questions

20) http://www.unwomen.org/en/what-we-do/ending-violence-against-women/facts-and-figures, 〈Facts and Figure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21) 위와 동일

22) 〈베이징행동강령〉 69조

23)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3-2014》, 19쪽

24) http://www.unwomen.org/en

25) http://blogs.worldbank.org/education/globally-periods-are-causing-girls-be-absent-school, 〈Globally, periods are causing girls to be absent from school〉

26) 여성과 개발을 분석하는 접근법은 더 세분화되어 나눌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로 간략화하여 다루기로 한다.

27) 조영숙(2016), 《국제개발협력과 젠더 - DAK 전문교육 프로그램 결과자료집》, DAK 젠더분과위원회, 50쪽

28) 위와 동일

29) UN Statistics Division, 2014.

30) 위와 동일

31) 위와 동일

32) 위와 동일

33) 위와 동일

34)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한국위원회(2013),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3-2014》, 21쪽

35) UN Statistics Division, 2014.

36) 위와 동일

37) https://www.malala.org/malalas-story

6. 개발협력 – 보건

1) http://www.who.int/about/mission/en/

2) 양재모, 유승흠(1984), 《국민의료총론》, 44~45쪽

3) 세계인권선언문(1948) 제3조

4)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0/en

5)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0/en/index1.html

6)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290/en/

7) 보편적 건강 보장의 목적은 건강을 기본권으로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8) World Health Organization(2015), 《Health in 2015: from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9) http://www.who.int/topics/global_burden_of_disease/en/

10) Murray, C. J. L., Barber, R. M., Foreman, K. J., Ozgoren, A. A., Abd-Allah, F., Abera, S. F., … Vos, T. (2015).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for 306 diseases and injuries and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for 188 countries, 1990-2013: Quantifying the epidemiological transition》, The Lancet, 2145~2191쪽

11) 위와 동일

7. 개발협력 – 환경

1) UN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써 일본 등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으로 책임이 큰 38개국의 선진국에게 제1차 의무 감축 기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안 1990년 배출 수준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평균 5.2% 줄여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이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한국, 중국 등 포함)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제외되었었다.

2)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2005). 기후변화홍보포털 기후교실 자료.

3) 마이클 T. 스나르 · D. 닐 스나르(2008), 《글로벌 이슈: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명인문화사, 339쪽.

4) James Gustave Speth · Peter M. Haas(2009), 《지구와 환경: 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명인문화사, 36쪽.

5)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2014),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3-2014(한국어판)》,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44쪽.

6) 기상청(2014), 《기후변화 2013 과학적 근거》,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번역본, 38쪽.

7) 존 밸러미 포스터 외(2009), 《생태논의의 최전선》, 필맥, 20쪽.

8) 마이클 T. 스나르 · D. 닐 스나르(2008), 《글로벌 이슈: 세계화의 도전과 대응》, 명인문화사, 342쪽.

9) James Gustave Speth · Peter M. Haas(2009), 《지구와 환경: 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명인문화사, 53쪽.

10) 유엔 MDGs보고서 한국위원회(2011),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2011 (한국어판)》, 유엔 MDGs보고서 한국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열매나눔인터네셔널, 유엔과국제활동정보센터, 53쪽

11) UNESCO-WWAP(2003),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The UN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12) James Gustave Speth · Peter M. Haas(2009), 《지구와 환경: 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명인문화사, 45쪽

13) MDGs 리포트 한국위원회(2008),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 40쪽.

14) 권혁주(2005),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적 논의와 한국의 정책대안〉, 《국제개발협력》2005년 제6호, 한국국제협력단, 12~16쪽.

15) James Gustave Speth · Peter M. Haas(2009), 《지구와 환경: 녹색혁명의 도전과 거버넌스》, 명인문화사, 108쪽.

8. 개발협력 – 사회적 경제

1) DFID(1999),〈DFID's 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 Framework〉

2) 장원봉(2006),《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5쪽

3) 캐나다 퀘벡의 사회경제위원회

4) Paola Bobos 외(2006), 〈Reviewing OECD experience in social sector〉

5) https://www.kiva.org

6) 존 엘킹턴, 파멜라 하티건(2008), 《세상을 바꾼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힘》, 에이지21

7) FINE은 대표적인 공정무역 기구 연합체로, 그 구성원은 FLO공정무역상표기구(현 FI), IFAT세계공정무역기구(현 WFTO), NEWS유럽월드숍네트워크, EFTA유럽공정무역협회이다. 단체의 특성상 제각각 다르게 사용하던 공정무역의 정의를 합의함으로써 운동의 통일성과 기준 설립에 기여했다.

9.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의 역사와 배경

1) OECD(2007), 〈OECD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DCD/DAC(2007)3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쪽

2) 위와 동일. 단, 공여국(donor countries) 내 난민에 대한 지원, 무력을 사용하거나 표현함으로써 이뤄지는 사람과 소유물에 대한 안전 보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3) 〈Principles and Good Practice of Humanitarian Donorship〉 endorsed in Stockhom, 17 Jun. 2003, by Germany, Australia, Belgium, Canada, the

European Commission, Denmark, the United States, Finland, France, Ireland, Japan, Luxemburg, Norway, the Netherlands, the United Kingdom, Sweden and Switzerland.

4) 첫 번째, 수요 평가에 의한 지원이란 피해 조사를 통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피해 당사국 역량 강화란 일시적 서비스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재난에 대한 피해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 간 연계 강화는 인도적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로드 맵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5) ① Peter Walker and Danie G. Maxwell(2010), 《Shaping the Humanitarian World》, Routledge

② Randolph Kent(1983), 《Reflecting Upon a Decade of Disasters: The Evolving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59, No. 4, 693~711쪽

③ Randolph Kent(2004), 《International Humanitarian Crises: Two Decades Before and Two Decades Beyond, International Affairs》, Vol.80, No.5, 851~869쪽

인도적 지원의 역사 부분은 세 가지 책과 논문들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인도적 지원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 Walker and Maxwell(2009)은 자선의 기원이 B.C. 2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종교적 가르침과 사상들이 그 바탕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기원 역시 중요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근대 이후의 인도적 지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6) 현재 'UN 난민기구'로 불리고 있다.

7)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이었던 Colin Powell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 기관들을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힘을 배가시키는 존재force multiplier"라고 선포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이후 재건과

평화 구축 활동에 평화유지군 등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면서 'hearts and minds 이성과 감성을 움직이는 전략'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9 · 11 테러 이후 원조가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전통적인 인도적 지원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10. 인도적 지원 –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 인도적 지원 조정 체계 및 협력

1) 이슬람권에서 인도적 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이슬람권의 국제적십자사를 일컫는다. 이슬람권 33개 국가에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대신 신월, 즉 붉은 초승달 모양의 표장을 사용한다.
2) 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 집단 (두산백과사전, 검색일: 2016.9.15.)
3) http://reliefweb.int
4) http://reliefweb.int, 〈The NGOs and Humanitarian Reform Project〉, 22~23쪽
5) http://reliefweb.int, 〈Save the Children UK〉 19쪽
6) 현재 'UN 난민기구'로 불리고 있다.
7) http://reliefweb.int, 〈Feinstein International Center and Humanitarian Futures Programme〉, 37쪽

11.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 분야

1) World Vision International(2010), 《Humanitarian & Emergency Affairs 2010 Annual Review》, 45쪽
2) UNOCHA(1999), 〈Orientation Handbook on Complex Emergencies〉
3) http://www.gndr.org/programmes/frontline-programme/everyday-disasters.html

3장 세계시민의 실천

1. 국제개발협력교육과 세계시민성

1) United Nation(2015),〈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a52

2) 본 장에서는 Global Citizenship을 세계시민성으로, Global Citizen을 세계시민으로 번역한다.

3) Douglas Bourn(2015),《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Education: A Pedagogy for Global Justice》, Routledge, 15쪽

4) KOICA ODA 교육원(2014), 〈개발교육,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개발교육 1호》, 7쪽

5) Douglas Bourn(2015),《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Education : A Pedagogy for Global Justice》, Routledge, 16쪽

6) Douglas Bourn(2015),《The Theory and Practice of Development Education : A Pedagogy for Global Justice》, Routledge, 20쪽

7)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애드보커시란 빈곤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관습,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개인 혹은 시민연대 차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8) http://deeep.org/deeep-project/

9)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2012),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 An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20쪽

10) en.unesco.org/gced

11) www.gcedclearinghouse.org

2.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1) 원조 공여국이 수원국으로 자금 및 물자를 지원할 때 국가 대 국가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2) 다자원조는 국제기구가 다양한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 다양한 국가의 자금이 국제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다자원조라고 부른다.

3)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4) 국제표준화기구 홈페이지(www.iso.org)를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다양한 참여 방법

1) 환경멸망시계The Environmental Doomsday clock의 개념을 한국의 환경재단에서는 환경위기시계의 개념으로 본다. 아사히글라스 재단과 협력하여 시계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환경부, 국립환경 과학원,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 《한반도의 기후변화 분야별 영향 및 적응》 http://www.climate.go.kr, 2016년 9월 5일

3) http://mcms.mofa.go.kr/trade/greengrowth/climatechange/index.jsp?menu=m_ 30_150_20

4) 안혜진 외(2016), 《한국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5)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4/nov/20/eu-set-to-approve-historic-deal-to-cut-plastic-bag-use

6) http://cmi.princeton.edu/wedges/game.php

7) http://kud.kr/?page_id=195

8) http://www.waste21.or.kr/board/board_content.asp?menu=2&sub=5&idx=6822&b_type=BOARD5&page=1&b_kinds=&b_word=

9) http://www.eroun.net/58539

10)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2/jul/08/fresh-water-tourist-developing

11) 최명애(2007), 〈여행은 소비아닌 관계맺는 것〉, 《경향신문》

12) http://www.responsibletravel.com/holidays/high-altitude-trekking/travel-guide

13) 박선영, 박찬걸(201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http://www.responsibletravel.com/copy/company-history

15) http://www.unwtostep.org

16) 굿네이버스(2008), 〈굿네이버스 세계시민교육교재 One Heart〉, 122쪽

17) 통일연구원(2008),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80쪽

18) 위와 동일

19) 통일연구원(2008),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172쪽

20) KCOC(2016), 〈2015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 사업결과 보고집〉

책자 발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기획 및 편집

권영의 KOICA ODA 교육원 원장
조병선 KOICA ODA 교육원 팀장
이소영 KOICA ODA 교육원 전문관
노영선 KCOC 교육센터 팀장
김만이 KCOC 교육센터 간사

초판 집필진

이상훈 르완다 PIASS 대학교 교수
박수연 KOICA ODA 교육원 과장 / 개발교육 전문관
전지은 인디랩 대표

개정증보판 집필진

1장 국제개발협력 개관
전지은 인디랩 대표

2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제
(개발협력)
빈곤과 불평등, 아동 김현주 세이브더칠드런 스쿨미유닛 팀장
인권 오선영 한국인권재단 사무국장
교육 굿네이버스 교육보건팀 (최미나, 김순남, 우승희)
여성과 성 평등 장은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센터장
보건 한국월드비전 보건 UNIT (최순영, 이지은, 서은교)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수정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사회적 경제 한수정 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
(인도적 지원)
강도욱 前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 팀장

3장 세계시민의 실천
국제개발협력교육과 세계시민성 남상은 한국월드비전 옹호팀 팀장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남수정 KCOC 정책센터 과장
다양한 참여 방법 강현주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 팀장
노영선 KCOC 교육센터 팀장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개발협력 활동가 이야기(가나다 순)
권유선 아름다운커피 네팔센터 센터장
김동조 한국월드비전 미디어팀 영상 제작 PD
김동주 한국월드비전 국제구호팀 팀장
김현주 세이브더칠드런 스쿨미유닛 팀장
남수정 KCOC 정책센터 과장
박수연 KOICA ODA 교육원 과장 / 개발교육 전문관
이순열 글로벌발전연구원 연구평가팀 팀장
조희경 어린이재단 해외전략팀 대리

부록 – 국제개발협력 용어 해설, 국제개발협력 기관, 국제회의
문도운 KoFID 간사

자문 및 감수

자문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전체 감수
이상훈 르완다 PIASS 대학교 교수
신유승 KOICA 경영평가팀 과장

분야별 감수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김성태 한국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본부장
이경신 KCOC 인도지원팀 부장
신재은 KCOC 정책센터 부장

시범 독서단

김권애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4학년
홍나연 수원대학교 국제개발협력학과 4학년
유연진 수원 영생고등학교 2학년(지도교사 정영주)
이예진 인천 원당고등학교 2학년(지도교사 이승자)

윤문
윤지영

그 외 함께해 주신 분들
양정훈 KOICA 라오스 부소장, 김한나 前 KOICA ODA 교육원 전문관, KIDC 김윤지, KCOC 지희경 간사, 김현희, 이상혁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개정증보일 | 2016년 12월 1일

펴낸이 | KOICA ODA 교육원, KCOC
엮은이 | KCOC 교육센터

펴낸곳 | KOICA ODA 교육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시흥동)
대표전화: 031-740-0500
홈페이지: www.koica.go.kr
KCOC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54, 4층 (대흥동, TAF빌딩)
대표전화: 02-2279-1704
홈페이지: www.ngokcoc.or.kr

ISBN 978-89-964138-7-5 03300